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FOR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CHURCH  
TO A SMALL GROUP-FOCUSED CHURCH**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Bae Lee (이 영 배)**

Lynchburg, Virginia

December 2016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

READE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 **ABSTRACT**

###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FOR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CHURCH TO A SMALL GROUP-FOCUSED CHURCH**

Young Bae Lee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of culturalization, which takes place before a full-scale transition, to Korean churches that are attempting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ir ministries from traditional to small group-oriented ministr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mall group ministry, Korean churches have been trying to convert to small group churches. Many churches, however, are struggling with the transition due to hastiness instead of following the right philosophy and roadmap. Having led cell group and small group ministries for the last ten years in Korean churche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researcher recognizes that many churches tend to rush the transition process while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the initial culturalization proces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biblical grounds and related literature for small group ministry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In particular, it will be confirmed through real life examples that the success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is directly linked not only to the success of the transition of the ministry, but also to the importance and essentials of the process. Ten Presbyterian churches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s of Korea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transition. Through this paper, the researcher intends to present the basics in order

to prevent any confusion caused by the conversion of the ministry and to allow Korean Churches to form small group ministries as commanded by the Lord.

Abstract length: 239 words

## ABSTRACT

###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FOR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CHURCH TO A SMALL GROUP-FOCUSED CHURCH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

Young Bae Lee (이영배)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연구는 전통적인 목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로 사역의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환 이전에 이루어지는 토양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그룹 사역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후부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철학과 로드맵을 따라 움직이기 보다 성급한 열정만으로 전환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많다. 본 연구자가 지난 10 여년 간 미주한인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셀사역과 소그룹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점은 수많은 교회가 초기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사역전환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사역의 이론적 토대를 위해 소그룹 사역의 성경적 근거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과 필수 요소들을 다루고, 토양화 과정의 성공이 사역전환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예를 위해서 소그룹으로의 사역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부산과 경남에 있는 장로교회 10 곳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사역전환에 따른 혼란을 막고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소그룹사역을 건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48 words

## ACKNOWLEDGEMENTS

###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본 논문은 작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자상하고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이유정 교수님, 정태우 교수님 그리고 김성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의 지도가 없었다면 저는 본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전교회 담임목사님인 박성규 목사님의 배려와 관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논문을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논문을 마치기까지 재정과 기도로 기꺼이 후원해주신 김혜영 권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가 꼭 필요했는데 후배 목사의 요청에 기꺼이 허락하여 주시고 친절하게 설문에 답해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권철 목사의 도움은 워드가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논문을 쓰기까지 아내 오정숙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바빠 함께 하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지만 참고 이해해준 사랑하는 자녀 현우와 하영이와 하린이에게도 감사합니다. 가족의 격려와 기도는 제가 논문을 마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논문을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 오정숙과 자녀 현우, 하영 그리고 하린이에게 바칩니다.

# CONTENTS

##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
감사의 글	
TABLES .....	xiii
표	
FIGURES .....	xiv
그림	
SUMMARY .....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	1
제 1 장: 서론	
1. Statement of the Problem.....	5
문제제기 진술	
2. Statement of Scope and Limitation.....	6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술	
3. Theoretical Basis.....	7
이론적 토대	
1) Biblical Basis.....	7
성경적 기초	
2) Theological Basis .....	16
신학적 기초	
4. Statement of Methodology.....	22
방법론에 대한 진술	
5. Review of Literature .....	23
문헌 검토	

6. Conclusion .....	26
결론	
CHAPTER 2: Traditional Church and Small Group-Focused Church.....	27
제 2 장: 전통교회와 소그룹 중심교회	
1. Definition of Traditional Church .....	27
전통교회의 정의	
1) Dictionary Meaning of Traditional Church.....	27
사전적 의미의 전통교회	
2) Ecclesiological Meaning of Tradional Church.....	28
교회론적 의미의 전통교회	
2.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hurch.....	29
전통교회의 특징	
1) Ministry System Centered around Pastor .....	30
목회자 중심의 사역구조	
2) Worship Service Centered around Large Group .....	31
대그룹 중심 예배	
3) Pastoring Centered around Programs .....	33
프로그램 중심목회	
4) Church Centered around Buildings .....	35
건물중심의 교회	
3.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Church .....	36
전통교회의 공헌과 한계	
1) Contributions of Traditional Church .....	36
전통교회의 공헌	
2) Limitations of Traditional Church.....	39
전통교회의 한계	
4.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Group .....	42
구역의 정의와 특징	
1) Definition of Geographical Group .....	42
구역의 정의	

2)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Group .....	43
구역의 특징	
3) Contributions of Geographical Group.....	44
구역의 공헌	
4) Limitations of Geographical Group .....	45
구역의 한계	
5. Definition of Small Group-Focused Church.....	46
소그룹 중심교회의 정의	
1) What is <i>Group</i> ? .....	47
그룹이란 무엇인가?	
2) What is Small Group-Focused Church? .....	48
소그룹 중심교회란 무엇인가?	
3) History of Small Group-Focused Church .....	50
소그룹 중심교회의 역사	
6. Conclusion .....	56
결론	
CHAPTER 3: Change and Soil Cultivation Toward Small Group-Focused Church .....	58
제 3 장: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과 토양화	
1. Need for Change Toward Small Group-Focused Church.....	58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의 필요성	
1) Overcoming of the Sense of Alienation .....	58
소외감의 극복	
2) Recovery of the Sense of Community.....	59
공동체성 회복	
3) Raising of Leaders.....	59
리더 양성	
4) Making Faith as Daily Life .....	60
신앙의 생활화	
5) Overcoming a Limit of Traditional Church .....	61
전통교회의 한계극복	

2. Transition toward Small Group-Focused Church .....	61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과정	
1) Presenting Vision .....	62
비전제시	
2) Selecting Leaders .....	63
리더선발	
3) Training Leaders .....	64
리더 훈련	
4) Choosing Small Groups .....	66
소그룹 선택	
5) Starting Small Group-Focused Church and Church's Effort .....	67
소그룹 중심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노력	
3. Definition of Soil Cultivation .....	68
토양화의 정의	
1) Contents and Progress of Soil Cultivation .....	70
토양화의 내용과 과정	
2) Methods of Soil Cultivation .....	77
토양화의 방법	
3) Obstacles and Solution for Soil Cultivation .....	79
토양화 과정의 장애물과 그 해결	
4. Conclusion .....	82
결론	
CHAPTER 4: Survey and Results .....	83
제 4 장: 설문조사와 결과	
1. Survey Participants .....	83
설문 대상	
2. Survey Method.....	83
설문 방법	
3. Survey Question Contents.....	83
설문 내용	

4. Participating Churches and Information of the Survey.....	84
설문참여 교회와 정보	
5. Survey Contents and Results .....	84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b>CHAPTER 5: Analyses from the Survey.....</b>	<b>112</b>
제 5 장: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1. Strengths of Small Group-Focused Church .....	112
소그룹 중심교회의 장점	
1) Meaning of the Number of Assistant Pastors.....	112
부교역자의 수가 주는 의미	
2) Increase in Number .....	114
양적인 증가	
3) Settling Down of New Members.....	115
새신자의 정착	
4) Lay People who Minister .....	117
사역하는 평신도	
2. Soil Cultivation and Its Significance .....	120
토양화 과정과 그 중요성	
1) Essence of Soil Cultivation Success – Leadership.....	120
토양화 성공의 핵심-리더십	
2) Length of Soil Cultivation.....	121
토양화의 기간	
3) Biggest Weapon for Successful Soil Cultivation .....	122
성공적인 토양화의 가장 큰 무기	
3. Obstacles of Ministry Changes .....	123
사역전환의 장애물	
4. Soil Cultivation and Growth in Number.....	124
토양화와 양적 성장	
5. Conclusion .....	126
결론	

CHAPER 6: Conclusion .....	127
제 6 장: 결론	
1. Approach Strategically.....	128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2. Change with Clear Philosophy.....	129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전환하라	
3. Convey Clear Vision.....	129
분명한 비전을 전달하라	
4. Exercise Servant Leadership.....	130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5. Prepare and Expect Resistance .....	131
저항을 예상하고 준비하라	
6. Prepare Leaders .....	132
리더를 준비하라	
Appendix A.....	134
부록 A	
Bibliography .....	138
참고자료	
IRB Approval.....	144
IRB 승인	

**TABLES**  
**표**

표 1. 규모별 새신자 등록율.....	2
표 2. 기독교의 사회 참여도.....	38
표 3. 2015 년 소그룹 세미나 현황 .....	65
표 4. 설문조사 교회와 정보.....	84
표 5. 부산과 경남의 대표적인 전통교회와 사역자 수.....	112

## FIGURES

### 그림

그림 1. 나이 .....	85
그림 2. 시무 년수 .....	85
그림 3. 담임형태 .....	86
그림 4. 하루 평균 기도시간.....	86
그림 5. 교단.....	87
그림 6. 교회 설립 시기.....	87
그림 7. 교회 위치 .....	88
그림 8. 전임부교역자 수 .....	88
그림 9. 파트 사역자 수.....	89
그림 10. 예산 사용처 .....	89
그림 11. 부임시 장년출석.....	90
그림 12. 현재 장년 출석.....	90
그림 13. 부임시 주일학교 출석 .....	91
그림 14. 현재 주일학교 출석.....	92
그림 15. 부임시 청년 출석 .....	92
그림 16. 현재 청년 출석.....	93
그림 17. 새신자 방문 수.....	93
그림 18. 새신자 정착율 .....	94
그림 19. 수평이동 성도의 비율 .....	94
그림 20. 새신자 소그룹 정착율 .....	95

그림 21. 전도집회 유무 .....	95
그림 22. 새가족 교회방문 방법 .....	96
그림 23. 새가족 정착 방법 .....	96
그림 24. 부임시 신앙훈련 활성화.....	97
그림 25. 훈련사역 유무 .....	98
그림 26. 훈련 소요 시간.....	98
그림 27. 훈련과목 수.....	99
그림 28. 평신도 성경교사 수.....	99
그림 29. 목장 수.....	100
그림 30. 목자 수.....	100
그림 31. 목장 외 소그룹 유무 .....	101
그림 32. 취미그룹 유무 .....	101
그림 33. 취미 그룹 수.....	102
그림 34. 2015 년 분가 수.....	102
그림 35. 목자와 목원 비율 .....	103
그림 36. 부임 후 사역전환 시점 .....	104
그림 37. 토양화 기간.....	104
그림 38. 토양화 중 설교내용.....	105
그림 39. 토양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106
그림 40. 토양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	106
그림 41. 토양화의 장애물 .....	107
그림 42. 토양화 과정 중 책임기 .....	108

그림 43. 장애물 극복 방법 .....	108
그림 44. 사역전환 직후 성도수 변화.....	109
그림 45. 성도의 증가 시점 .....	110
그림 46. 사역전환 전과 현재의 성도수의 증감.....	110

## **SUMMARY**

### **CHAPTER 1**

#### **INTRODUCTION**

The number of Christians in Korean churches began to decline at around the year 2000. Church members left, and new members did not join. Korean churches are making a great effort to overcome this decline, and many of them have chosen to shift from the traditional church system to a small group-oriented church. The intent is good, but such a conversion is not easy; many of the attempts failed. The writer believes that the most significant cause for the failure was the absence or neglect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in conversion.

The central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churches to small group-focused churches. This thesis also purposes to propose a method, or roadmap, for those who have the desire to change their churches to small group-focused churches so that they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local church ministries.

The thesis will probe Acts 2:46-47, Matthew 28:19-20, Ephesians 4:11-12, and Matthew 13:4-8, among other Bible passages, honoring the authority of the Bible. 1 Peter 2:9 is significant in that it teaches the principle of individual priesthood of believers. This principle allows people to lead small groups, and even small churches. Unlike the Old Testament where only priests from the tribe of Levi were able to represent the people before God, anyone can become a leader of a small group or a small church in the New Testament.

## CHAPTER 2

### TRADITIONAL CHURCH AND SMALL-GROUP FOCUSED CHURCH

Korean churches in their traditional form practically led the Korean society since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1910-1945), which was a time of the great persecution and suffering for Korea and Korean churches. Through the moderation movement, anti-smoking campaign, rural enlightenment campaign, and social work movement, Korean churches set new moral standards and took the lead in advancing culture and education. By the help of missionaries to Korea, early Korean churches established seminaries and provided organized theological education. Mission organization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In spite of the great contributions made by traditional Korean churches, their shortcomings began to appear in recent decades. In traditional churches, the organizational system has been in place so long that they find it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pace of change of the times. The churches retain an attachment to the past, and they resist the change. The most visible relationship within the traditional churches is that between the pastor and lay people. More central to the modern traditional church are programs, which face limitations in cultivating all members for spiritual growth and in building the church as a community.

In traditional Korean churches, the building provides the reference for the identity of believers, and for the life of faith and church.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building-centered ministry reached its limit as congregations, as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he building, began thinking beyond the building.

The authoritarian leadership of traditional Korean churches was meaningful around the 1950s. It might have been even inevitable since most of the believers were not well-educated and

had no professional knowledge. Nonetheles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have risen to be more important than authoritarian leadership nowadays. In this sense, small group-focused churches that emphasize delegation and servant leadership grew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form of the church.

In traditional Korean churches are found geographical groups that make up the church. The geographical group system first provided lay leaders for Korean churches. The leaders played a big role in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by sharing with the pastor caring ministries for church members. The groups invited newcomers to their group meetings to share their life of faith and fellowship. In essence, the geographical groups helped members to grow spiritually.

Contributions aside, the geographical group system was bound by geography only, as opposed to age or any other commonality. Churches frequently assigned power-oriented leaders to the groups. Also, the groups were mostly attended by women.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churches, small group-focused churches can perform various, unique functions of a church in different ways. For example, small groups have flexibility to meet anytime during weekdays. In addition, pastors and lay leaders share their ministries together.

In the book of Acts, the early church members gathered in large groups at their homes and worshiped in small groups. These small groups were hosted or led by married couples (Rom 16:5), male leaders (Phile 1:1-2), and female leaders (Col 4:15). In the course of history, however, the function of small groups disappeared, and Christians gathered in large groups for worship. It is time to return to the biblical model of the church through renewal.

## CHAPTER 3

### CHANGE AND SOIL CULTIVATION TOWARD A SMALL GROUP-FOCUSED CHURCH

Traditional Korean churches overelevate the place of the Sunday morning worship services and recon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daily life of a Christian, which is worship itself, relatively less. Small groups can bring a good balance between Sunday morning worship services and Christian's daily life. In order to shift from the traditional church model to a small group-focused model, it is most important to prepare the hearts of church members. The process begins with the pastor, who should cast a clear vision and should not be afraid of the change.

The next step is to select small group leaders, current leaders of the church, as church-appointed volunteers. Each church is different, but, in all cases, clarifying the roles of a leader, the extent of ministries, and the degrees of commitment is very important. Reading and discussing Scripture, attending seminars, and experiencing other small group meetings are effective ways to train leaders.

When the small group leaders are ready to receive their members, the members should be allowed to find and join the group of their choice. The church should focus all its attention to construct and establish a small group setting in the church. There may be confusion and negative reactions at the beginning, but going back to the old ways is not an option. Rather, the church should endeavor to improve the transition and the small groups. Along with the change, large-scale program-based events, which may be important to traditional churches, should be resolutely abandoned.

The associate and assistant pastor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transition. They frequently meet members in ministry and life situations, and they can share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the

small group-focused church with the members. The staff pastors all need to work as a team with the senior pastor. Elders, deacons, and lay leaders should likewise possess like-mindedness on the transition and vision. Eventually, all members should come together.

Once the vision is shared, training follows. Negative consequences are enormous when untrained leaders are set up as leaders. Preaching is a good way to communicate about the values of small groups, community, and ecclesiology as well as the reason and necessity of the transition of ministry; while seminars become a practical avenue for introducing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of small group ministries. Ministry episodes from the field may be shared in order to help one another's understanding. As the last step in the soil cultivation process for transition, a revival-style conference can function as a rally that motivates members to start a small group ministry.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church to a small group-focused church means that members are transformed from care-receivers to care-givers. It means changing from visitation-receivers to visitation-givers, from learners to teachers. The lay leaders may feel apprehensive about the load of the new ministries. Therefore, the new church should relieve them of their old service and help them to focus on the new responsibilities.

The soil cultivation process for the paradigm shift is vitally important for the church. Changes in members' thought about the transition should frequently receive more attention than the change of the system itself. Soil cultivation for the transition cannot be ignored. It is the process to prepare for seeds to grow well, not to bear fruit immediately. Good planning and execution should cultivate the soil for the transition well.

## CHAPTER 4

### SURVEY AND RESULTS

As for the survey, the writer has chosen eight senior pastors who successfully converted their churches from the traditional type of churches to the small group-focused ones, based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writer. The selection was not totally arbitrary, but followed the criteria below.

First, those churches are known to have very good small group-centered ministries. Second, the churches hold seminars on the preparation and transition of the paradigm shift. Third, the churches grew numerically after the transition. Fourth, the churches positively influence other Korean churches.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en pastors, and eight responded. All of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via e-mail. Along with the questionnaire, a translation of the explanation and the consent of the survey were attach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 at Liberty University. All respondents to the survey agreed to the explanation and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47 items with the possibility of answering at minimum 45 item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respondents. All eight respon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without missing any items.

The survey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the situation of the church, the status of the small groups in the church, and the transition of ministry. More specifically, the items, or questions, in the survey deal with the age of the senior pastor (the respondent); his tenure at his current church; his invitation to the church; the number of hours he

prays daily; the age of the church; the information about staff; the total attendance of people and number of ministry departments; the number of of new members; hypothesis on factors for new members to remain in the church; the type of training the church provides; the kind of small group system and activities the church has; the preparation the church went through and length thereof;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transition for that church; the greatest challenge that faced the transition; and books the pastor found useful.

## CHAPTER 5

### ANALYSES FROM THE SURVEY

A strikingly common factor can be seen among eight churches: the smaller number of associate or assistant pastors in comparison with the former system of the church. In the small group-focused churches, lay leaders take over many areas of the pastoral ministries traditionally taken care of by associate or assistant pastors. This demonstrates that the small-group focused church is lay leader-centered.

The average attendance of these eight churches was 216 each before the transition, but grew to about 852 afterwards, a four-fold increase. It took at least three years before they realized such an exponential growth.

The settlement rate for new members reached at least 60% for seven of the eight churches. The way of evangelism affects the settlement rate. Six of the churches do not hold large-scale evangelism conferences that traditional Korean churches like. The small-group focused churches evangelize through small groups.

Six out of eight respondents counted pastoral leadership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uccess during the soil cultivation process. The soil cultivation process lasted anywhere from less than six months to more than three years. The smaller the congregation, the less time it took to convert to the new model; the larger, the longer.

Half of the respondents noted preaching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communication for soil cultivation. Of the remaining four, two pointed to attending seminars as the key contributor to the success; the other two, visitation. Five of eight respondents emphasized ecclesiology in their preaching; the remaining three, the concept of community. The pastors did

not approach the conversion of their churches for the purpose of church growth or the call of the times, but addressed it from an ecclesiological perspective.

Half of the respondents identified communication, or conversation, as the most effective way of handling opposition to the change, followed by confidence in ministry and prayer. These pastors took a practical approach to meeting the challenge by talking to the members. There was no noticeable change in membership right before and after the change. Five respondents noticed a growth in number after two yea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God uses small group-focused churches for His kingdom. The fact that a high percentage of new members visit and stay indicates that small group-focused churches do enjoy quantitative growth.

The pastor himself is a central element for success in the ministry conversion. He should present a clear vision through preaching, dialogue, and prayer, and should meet the challenges through conviction in the conversion. New possibilities of spiritual and physical growth open up after conversion into the small group-focused church.

## CHAPTER 6

### CONCLUSION

Many traditional Korean churches are attempting to change their churches into small group-focused church, such as a house church or a cell church. Some have succeeded while some others have not. Any spontaneous or emotional approach to the change brings great difficulty to the church, and one should employ strategic approaches. This thesis has established that good soil cultivation for the change increases the success rate considerably.

Pastoral leadership is a critical element in the change. The change demands leadership with clear philosophy and servant attitude. The pastor should communicate clear vision and goal for the change while maintaining conviction and confidence in it. Training lay leaders on servant leadership is also a necessary component of soil cultivation.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should be delegated to the leaders at different levels within the small group settings.

Joshua, having undergone training under Moses, became an outstanding leader in bringing the Israelites into the land of Canaan after Moses' death, and the apostles spent three years with Jesus. Those who led successful ministries in the Bible went through customized preparation and training. Soil cultivation is vitally needed for the change from traditional churches to small group-focused churches.

## 제 1 장

### 서론

기독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후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어왔다. 이 놀라운 성장의 현상은 개신교 성도수의 증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불과 20년만인 1905년에 5만 명이던 성도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1909년 20만여 명으로 그리고 1935년에는 67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60년에는 무려 13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sup>1</sup> 이러한 성장은 한국사회의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60-1980년대에도 이어지게 되었다.<sup>2</sup> 하지만 이러한 성장도 199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정체상태에 있다가 2000년대가 되면 확연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85년에 기독교인구는 약 650만 명이었던 것이 1995년이 되면 876만 명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2005년에는 860만 명으로 오히려 16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감소는 타종교의 증가와 더욱 비교가 된다. 불교는 1985년에 800만이던 신도수가 1995년에는 1030만 명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1070만 명으로 증가한다. 천주교 또한 1985년에는 신도수가 136만 명이었으나 1995년 통계에 따르면 295만 명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514만 명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다.<sup>3</sup> 주요 종교 가운데서 오직 기독교만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성도 수 감소의 이유는 기존의 성도가 교회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2004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의 이탈률은 58.6%로 불교의 26.2%, 천주교의 13.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sup>4</sup>

---

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1075.

2) 정일용,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113.

3) 통계청(www.kosis.kr)은 1985년부터 10년 주기로 각 종교별 신도수를 파악하고 있다.

4) 최현중, “한국 교회의 새신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목회와 신학」, 2015년 9월, 42.

개신교의 이탈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유입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를 지탱해주었던 이 유입인구의 감소, 즉 새신자의 감소는 개신교 성도의 전체적인 감소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개신교의 새신자 등록율이 얼마나 저조한 상황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표 1〉 규모별 새신자 등록율<sup>5</sup>

구분	소형	중소형	중중형	중형	중대형	대형	합계
0%미만	215 (47.7)	67 (27.3)	16 (23.5)	12 (21.1)	7 (25.9)	3 (21.4)	321 (37.2)
0%이상~10%미만	152 (33.6)	95 (38.8)	22 (32.4)	18 (31.6)	3 (11.1)	4 (28.6)	294 (34.0)
10%이상~20%미만	31 (6.8)	37 (15.1)	11 (16.2)	12 (21.1)	8 (29.6)	6 (35.7)	104 (12.0)
20%이상~40%미만	20 (4.4)	26 (10.6)	12 (17.6)	8 (14.0)	4 (14.8)	2 (14.3)	72 (8.3)
40%이상	34 (7.5)	20 (8.2)	7 (10.3)	7 (12.3)	5 (18.5)	0 (0.0)	73 (8.4)
합계	452 (100)	245 (100)	68 (100)	57 (100)	27 (100)	15 (100)	864 (100)

소형교회에서 새신자 등록율이 거의 10% 미만인 교회가 81%이며 중소형교회의 새신자 등록율 10%미만인 교회는 66%에 이른다. 그리고 중형교회의 새신자 등록율 10%미만인 교회는 52%나 된다. 중형교회 이하의 교회에서는 새신자 등록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의 새신자 등록율 10%미만인 교회는 중대형교회가 37% 그리고

5) 김대학, 정종현,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40.

대형교회가 50%이다.<sup>6</sup> 이처럼 한국교회에서는 2000 년대에 들어서서 소형교회에서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새신자 등록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정체와 감소의 현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그 중 하나가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시스템을 벗어나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시스템 전환을 만드는 일이었다.<sup>7</sup> 1990 년대에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되고 감소의 분위기가 나타나자 셀그룹에 대한 소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이 성공을 거두면서 1990 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소그룹 사역들이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와 맞물려 많은 교회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sup>8</sup>

1900 년대 후반부와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소그룹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초대형교회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세미나를 열기 시작하였다.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풍성한교회, 안산동산교회, 휴스턴 서울교회(이민교회) 등이 그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목회자들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소그룹의 형태들을 배운 후 자신이 담당하는 교회에 접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사역으로의 접목이나 전환의 로드맵을 설정하지 못하고 세미나를 통한 열심만을 가지고 급하게 전환을 하여 목회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았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였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셀교회로의 전환을 담당했던 송창근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전환의 과정은 성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짧게는 1 년 길게는 3 년이 걸리기도 한다.”<sup>9</sup>

6) Ibid, 41.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있는 864 교회를 리서치 했으며, 소형교회는 100 명 미만, 중소형교회는 100~300 명, 중중형교회는 300~500 명, 중형교회는 500~1000 명, 중대형교회는 1000~2000 명, 대형교회는 2000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여기서 소그룹은 셀, 가정교회, 다락방등과 같이 주중에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10 명 내외로 모이는 모임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도: 소그룹하우스, 2010), 120.

9) 송창근, “셀 목회의 3 단계 로드맵, ‘전환. 정착. 열매,’” 「목회와 신학」 2013 년 9 월, 61.

본 연구자가 실제로 참여했던 셀 세미나, 가정교회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의 모든 메뉴얼에는 사역전환의 실패원인 중 하나를 급격한 사역전환으로 소개하며 사역전환을 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새로운 사역으로의 전환에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토양화 과정을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목회자가 생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해 교회가 더욱 혼란을 겪기도 한다.

모든 목회자가 교회를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한 동기로 사역의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모두가 성공적으로 사역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사역전환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과 성도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Howard Snyder 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그룹은 교회의 중요한 형태가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사회에서는 이러한 소그룹들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 제도적 교회 프로그램이나 대중방송 매체들보다 교회의 사명에 보다 알맞은 것이다.”<sup>10</sup> 분명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의 미래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는 소그룹만큼 교회의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는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공동체임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치 거대한 운동장에 야구를 보러 왔다가 경기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소그룹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소그룹 사역으로 전환하는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토양화의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래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위해 뿌리가 튼튼히 그리고 깊이 뻗어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처럼

10)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54.

토양화의 기간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위해 기초를 튼튼히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화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향후 본 연구자는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토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토양화라는 용어는 단순히 농업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넘어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기초, 또는 사전단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논문의 ‘토양화의 정의’라는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자기의 교회에 맞는 방법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한국교회의 거대한 사역전환의 시기에 적절하고 올바른 사역전환의 방향제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방향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1. 문제제기 진술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통적인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토양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토양화 작업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더러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설득을 요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결코 전환될 수 없다. 그래서 사역전환의 작업은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한국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밝힐 것이며, 이것의 이론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또한 소그룹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교회들을 설문 조사하여 토양화의 과정이 사역전환 성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의 전환을 준비중인 한국교회에 몇 가지 전환의 중요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사역전환에 대한 열심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전환에 따른 방법과 중요성을 제안하여 지역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교회는 정체의 시기를 지나 감소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부정적이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에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 2.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술

이 논문을 쓰면서 몇 가지 제한사항을 알려두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은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물론 본 연구자는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조금씩 다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동일한 깊이와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일반적인 소그룹 전환의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전환에 있어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소그룹 사역자체와 그 전환과정에서의 토양화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이지, 사역전환의 성공요소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양화 과정뿐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토양화 과정뿐 아니라 다른 사역전환의 성공요소도 함께 다룰 것이다. 토양화 과정만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역전환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토양화 작업이 반드시 사역전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공적인 토양화 작업이 없이는 사역전환의 성공은 없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모든 소그룹 교회를 설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전환에 성공하여 소그룹 사역을 건강하게 잘하는 교회를 그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사역의 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소그룹에 관한 책이나 목회자 그리고 협회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항상 성경의 원리보다 부차적임을 알려준다. 그 이유는 어떠한 연구서나 잘 연구된 책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며 소그룹의 시작과 그 당위성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론적 토대

#### 1) 성경적 기초

##### (1) 사도행전 2:46-47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6-47 절이다. 이 본문에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모임 형태가 나타나며 그 형태는 다른 아닌 소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개종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사도행전 2:41)에 처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예배 공간을 만들 수는 없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은 ‘흩어진 교회’로서의 구조인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sup>11</sup>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임은 대그룹과 소그룹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초대교회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의 형태로 가정에서 모이는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임은 초대교회로부터 약 300년 동안 이어져온 초기교회의 방식이었다.<sup>12</sup> 이러한 가정에서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소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조인 소그룹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사도행전 2:46-47)하였다. 이들이 가정에서 모여 행한 것들은 현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것이 그들의 교회생활이었다. 이러한 모임은 성도들의 가정을 서로 돌아가며 모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본문에서 “집에서”라는 말을 이상근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앞선 ‘성전에’와 대조되는, 단순회 ‘집에서, at home’의 뜻 및 ‘집에서 집으로, from home to home’의 뜻으로, 후자가 원문에 보다 충실하다고 본다.”<sup>13</sup> 한국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없지만 NASB는 오늘 본문을 이상근의 주장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And day by day continuing with one mind

11)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출판사, 2006), 199-201.

12) Joel Comiskey, “Cell-Based Ministry as a Positive Factor for Church in Latin America”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7), 22.

13) 이상근, 「사도신경」, 「신약성서주해」 (대구: 성등사, 1993), 62.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Acts 4:46) 여기서 “house to house”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가정을 열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소그룹이 중심의 예배였다는 것이다. F. F. Bruce 도 이와 같이 논증한다. “오순절 이후로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며..... 집에서는..... 친교와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다..... 교제의 만찬은 ‘각 집에서’ 먹었다”<sup>14</sup>

초대교회의 이러한 소그룹 형태의 모임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로마서 16:5 절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또 저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한다.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근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확히 번역하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이다. 초대 교회는 지도적 신자의 집에서 모인 가정 교회였다.”<sup>15</sup> 이에 대하여 James Dunn 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초기의 로마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형태로 모임을 가졌다”<sup>16</sup> 주후 200 년경까지 건물로 된 교회가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sup>17</sup> 오히려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가 가정에서 모였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의도된 형태였는가? 초기 기독교는 의도적으로 대중이 모이는 건물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모였다. 이에 대해 정용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신약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즉 신약교회가 당시 로마세계의 다른 종교 단체들이나 유대교 회당처럼 종교적으로 구별된 건물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인 여건 가운데 있었거나, 또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난하여 유력한 후원자가

14) F. F. Bruce, 「사도행전(상)」, 「헨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이용복, 장동민 역, 개정판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4), 109.

15) 이상근, 「로마서」, 「신약성서주해」 (대구: 성등사, 1993), 346.

16) James D. G. Dunn, *Romans 9-16, World Biblical Commentary* (Mexico: Thomas Nelson, 1988), 893.

17)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73.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모였는가? 하지만 로마 제국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의 신분은 획일적이지 않고 황제에 따라, 지역 행정관의 태도에 따라 관용의 정도가 각기 달랐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항상 불법적인 종교의 신분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도행전은 기독교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에 유력한 후원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약 시대에 교회는 단지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가정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가정에 모였음을 특히 누가행전은 보여주고 있다.<sup>18</sup>

즉 그들이 가정에서 모인 이유는 시대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식이었다. 그들은 복음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고, 가장 잘 간직할 수 있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에서 소그룹의 형태로 모이는 것을 유지하였다.

골로새서 4:15 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눘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눘바의 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이 교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약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소그룹으로 모여 모임을 가졌고 교회의 본분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신약의 교회는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모습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발견된다. 최소한 초대교회는 4 세기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sup>19</sup>

## (2) 마태복음 28:19-20

소그룹 사역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은 Great Commission 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명령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다. 위대한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본문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18) 정용성, “신약 가정 교회와 21 세기 한국 교회를 위한 제언,” 「개혁신학 논문집」, 13 권 (2002): 65-6.

19) Ibid, 65.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 28:19-20)

위대한 명령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어로 보면 동사가 하나 밖에 없고 그 동사가 이 위대한 명령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위대한 명령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동사는 “make disciples”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성경에서 동사처럼 보이는 “Baptizing and teaching”은 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헨드릭슨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주 동사는 ‘제자를 삼다’이다. 이것에 종속되는 것은 a. 그들에게 세례를 주다와 b. 가르치다이다.”<sup>20</sup>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Getz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였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셨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선택한 12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훈련 시키셨다. 하지만 이 훈련은 지식적 가르침의 형태가 아닌 현장중심의 실생활 교육방식이였다.<sup>21</sup>

예수님께서서는 이 명령을 위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러나 이 명령은 12 제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William Hendriksen 은 이렇게 말한다. “무슨 명령인가! 누구보다도 열한 제자와 모든 선생들을 위한 명령이다. 그러나 어느 의미로는 분명히 전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신자는 증인이다.”<sup>22</sup>

그래서 현재의 모든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은 제자를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Bill Hull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제자삼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며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께서서

20) William Hendriksen, 「마태복음(하)」, 「헨드릭슨 성경주해」, 김경래 역 (서울:아가페출판사, 1984), 442.

21) Gene A. Getz,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Wheaton, IL: Victor Books, 1984), 56.

22) William Hendriksen, 「마태복음(하)」, 442.

제자삼는 것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지시하셨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것의 모델이 되셨고, 셋째,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sup>23</sup>

그렇다면 왜 위대한 명령은 소그룹 사역의 기초에 중요한 구절인가? 그것은 제자를 만들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바로 소그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초점을 12 명의 제자와의 관계 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12 명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12 명이라는 소그룹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성격과 은사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여러 명과 함께 또는 각각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Leon Morris 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은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다.”<sup>24</sup> 그렇다. 확실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하셨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하시고 때때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셔서 보고 배운 것을 실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sup>25</sup>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역을 보고 배우게 함으로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 보고 배우게 하는 방식의 훈련은 대그룹으로는 불가능하다. 소그룹일 때 더 효과적이다. 예수님께서서 12 명의 제자만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라 할 것이다.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일! 능력있는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것은 소그룹일 때 효과적이다. 오늘날 소그룹보다 더 제자를 만드는 일에

23) Bill Hull, *The Disciple-Making Church*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90), 10.

24)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749.

25)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53.

적합한 도구는 없다.<sup>26</sup> 위대한 명령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그룹으로 가능한 것이다.

Rod Dempsey 는 이렇게 말한다. “혁신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sup>27</sup>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도구를 만들기에 앞서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언제나 시스템에 앞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소그룹인 것이다.

### (3) 에베소서 4:11-12

이 본문은 문법적인 논란이 있는 본문이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 4:11)라는 부분이다.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에 다른 명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직분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John Calvin 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두 직분이 하나라고는 보고 싶지 않으며, 서로 다르다고 본다, 가르치는 것은 모든 목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교사 중에는 복음 전파에 부적합한 교사가 있을 수도 있다”<sup>28</sup> 칼빈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두 직분으로 보지 않는다. John Stott 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표현에는 정관사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같은 사역에 대한 두 이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양떼를 먹임’으로 즉 가르침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한다.<sup>29</sup> Max Anders 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

26) Ibid., 25.

27) Rod Dempsey, *Innovate Church: What is God's Will for My Church? DISCIPLESHIP!*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08), 109.

28) John Calvin, 「에베소서」, 「신약성경주해」,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5), 339.

29) John Stott, 「에베소서강해」, 정옥배 역 (서울:IVP, 2007), 199-200.

것 같다. 그것은 이 헬라이어 문장에서 다른 직임들을 언급할 때와 달리 ‘와’라는 다른 낱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직임이 동일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다.”<sup>30</sup>

저명한 신학자인 Bruce 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목사와 교사라는 두 용어는 동일한 하나의 직분이다”<sup>31</sup>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다른 직분이 아닌 하나의 직분에 다른 표현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관사의 사용 때문이다. Klyne Snodgrass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지막의 두 개는 한 범주에 들어간다. 하나의 헬라이어 관사가 그 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목사’라는 의미이다.”<sup>32</sup>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구절은 같은 직분에 다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던 직분이 아니라 현재도 있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Lloyd-Jones 는 먼저 언급된 세 개의 직분-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특별하고 일시적인 직분이지만,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인 직분으로 본다.<sup>33</sup> 물론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Jones 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진 직분이라고 말하지만 Anders 는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선교사와 비슷하다고 말을 한다.<sup>34</sup> 그리고 Stott 역시 “복음 전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sup>35</sup>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모든 학자들에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목사와 교사”는 현재에도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다.

30) Max Anders, 「Main Idea 로 푸는 에베소서」, 김창동 역 (서울:디모데, 2004), 237.

31)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74), 85.

32) Klyne Snodgras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6), 203.

33) Martyn Lloyd-Jones, *Christian Unity: An Exposition of Ephesians 4:1-16*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2), 192-3.

34) Max Anders, 「Main Idea 로 푸는 에베소서」, 237.

35) John Stott, 「에베소서 강해」, 200.

그렇다면 지금도 존재하는 직분인 “목사와 교사”는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목사와 교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최영기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12 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역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세가지 다 목사의 일인가 아니면 일부만 목사의 일이고 나머지는 성도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판 성경은 다르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동사의 주어는 11 절에 열거된 사람들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의 주어는 성도들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의 일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sup>36</sup>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는 사역이다. Snodgrass 는 이렇게 표현한다. “리더들은 세 가지 모든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봉사와 세우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하는가?..... NIV 는 올바르게 두 번째 것을 택했다”<sup>37</sup> Stott 는 “신약성경이 사역을 일부 선택된 성직자들의 특전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특권적 부르심으로 생각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sup>38</sup>라고 말한다. 본문에 따르면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성도를 온전케”하는 것은 성도들이 헌신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내는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그룹 안에 있을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분의 제자가 되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사명은 대그룹의 사람들을 모아 교실수업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소그룹이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 하겠다.

36)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57-8.

37) Klyne Snodgras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204.

38) John Stott, 「에베소서 강해」, 203.

## (4) 마태복음 13:4-8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에는 네 가지의 토양이 나타난다. “길 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다. 이 네 종류의 토양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 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 주신다. 이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sup>39</sup>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도 동일하며 씨도 동일하다.”<sup>40</sup>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함을 설명하는 것이다.<sup>41</sup>

동일한 씨를 동일한 사람이 뿌리는데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밖에 없다. 그것은 씨를 받는 토양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잘 알려진 비유의 제목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제목이 바뀌어야 함을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R. T. France 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나 심지어 씨에 대하여 그 초점이 있지 않다. 오히려 씨가 떨어질 네 종류의 토양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이 비유의 제목을 ‘네 가지 종류의 토양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유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sup>42</sup> 즉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도, 씨도 아니라 바로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은 씨나 씨 뿌리는 농부의 노력보다는 씨가 뿌려질 토양의 상태가 결실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즉 토양의 상태에 따라 수확의 질과 양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Hagner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씨에 맞추는 것도 아니라, 씨의 운명은 그 씨를

---

39) 마가복음 4 장 14 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40) Michael Green, 「마태복음 강해」, 「BST 시리즈」, 김장복 역 (서울: IVP, 2005), 222

41) Donald English, 「마가복음 강해」, 「BST 시리즈」, 정옥배 역 (서울: IVP, 2000), 127.

42)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ed. F. F. Bruce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2007), 503.

받아들이는 땅의 종류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sup>43</sup> 아무리 씨가 튼튼하고 좋아도, 아무리 씨 뿌리는  
가자 부지런하여도 토양의 상태가 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농부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것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수확을 얻지 못하는 세 종류의 씨는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Craig L. Bloomberg 는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 세 종류의 토양에는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뿌리가 없다.”<sup>44</sup>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 당연히 수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당연히 씨가 자랄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사역전환도 이와 같다.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한 것이다. 그 토양을 만들지 않고 사역을 전환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열매는 더욱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환의 시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사역에 막혀 결국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열매를 빨리 얻기 위해 또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작업이 힘들고 귀찮아서 씨 뿌리는 자가  
비옥하지 않은 땅인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렸다면 그 결과는 이미 씨를 뿌리는 순간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기름지게 만든 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사역전환을 꿈꾸는 모든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가 사역전환에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그룹 사역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2) 신학적 기초

### (1) 공동체 사상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동등하며 삼위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Calvin 은 이를 두고 “하나님은 자신을 한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보기에는 구별된

43) Donald A. Hagner, 「마태복음 상」, 「WBC 성경주석」,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1999). 607.

44) Craig L. Bloomberg, *Matthew,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H, 1992), 214.

세 위로 자신을 드러내신다”<sup>45</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단으로부터 교리를 수호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변적인 범주에 머무르게 되었다.<sup>46</sup> 이러한 편향된 삼위일체 교리는 자연스럽게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성질을 무시하고 말았다.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김현진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회를 삼위 하나님의 정태적인 존재방식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동태적인 사역 방식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삼위일체 교리의 역동적인 면을 또한 찾아볼 수 있다.”<sup>47</sup>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중의 신비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해도 이 교리를 논리적으로 똑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다.”<sup>48</sup>

이 신비로운 교리를 권문상은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은 본질상 공동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구조화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기 동등한 개별적인 지위와 권한, 능력, 영광을 지니되 사랑 안에서 상호 인정, 협력, 상부상조라는 공동체의 삶으로 계신다.”<sup>49</sup>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즉 따로 떨어져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하시는 것이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요구한다.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로서의 인간 사회, 특히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sup>50</sup>

4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1」, 김종흡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3.

46) 오성춘, “삼위일체 교리와 섬김의 공동체 비전,” 「장신논단」, (1994), 535-6.

47)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2.

48) 박영철, 「셀 교회론」, 182.

49) 권문상, “21세기 목회를 위한 조직신학적 제언,” 「개혁신학 논문집」, 13권 (2002), 99.

50) Ibid, 101.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도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26)라고 기록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무엇을 뜻하는가? “당연히 공동체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계획하셨다는 말이다.”<sup>51</sup>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유를 Ralph W. Neighbour 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성상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풍요함 속에 항상 거하신다”<sup>52</sup>

신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명백한 본문이다. John. C. Ryle 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삼위 모두의 임재에 대하여 듣고 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사 그 위에 임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sup>53</sup> R. C. H. Lenski 도 동일하게 주장한다. “이처럼 이곳 요단강에서 있는 일로부터 우리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완전한 삼위일체의 계시의 하나를 볼 수 있다. 즉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아들은 요단강에 성육신되어 서 계셨으며, 성령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sup>54</sup>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바로 삼위일체의 공동체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Gareth Weldon Icenogle 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존재이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

51) Ibid, 102.

52)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정지우 역 (서울: NCD, 2006), 153.

53) J. C. Ryle, 「마태복음서 강해」,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29.

54) R. C. H. Lenski, 「마태복음(상)」, 문창수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3), 120.

형상을 따라 존재하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지음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성숙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자연스럽게 과시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sup>55</sup>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도 공동체라는 소그룹의 형태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계획된 소그룹을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다.”<sup>56</sup>

## (2) 만인제사장 사상

베드로전서 2:9 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통해 만인제사장 사상을 이야기해왔다. 그렇다면 만인제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Scot Mcknight 는 이렇게 주석한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왕족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왕족의 일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윗 왕가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특별한 가문으로부터 왔고, 그들은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비교를 뛰어넘는 특권이였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부르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은 (1) 육체적인 혈통과 유산의 모든 측면을 씻어 내는 것과 (2)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을 이처럼 똑 같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했다.”<sup>57</sup>

예전에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직분인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부여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9 절은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55)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20.

56) Ibid, 21.

57) Scot Mcknight, 「베드로전서」, 「NIV 적용주석」, 문종윤, 권대영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5), 125.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즉 우리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Grant Osborne 은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신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sup>58</sup>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역은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행해지지 않는다.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교회이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전문적인 신학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아니다. 평신도 리더가 목자가 되어 소그룹을 이끌어 가야 한다. 만인제사장은 소그룹 리더에게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3)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말씀이다.<sup>59</sup> 이것은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효되어 팽창하는 포도주를 낡은 부대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팽창을 안전하게 막고, 포도주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하다. 새 것인 복음을 낡은 것인 유대주의에 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다. 즉 예수님의 복음은 이전의 유대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58) Grant Osborne, 「베드로전서」, 「LAB 주석 시리즈」, 류호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94.

59) 마태복음 9:17; 마가복음 2:22; 누가복음 5:37, 59.

Darrell L. Bock 은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옛 것과 새 것 이 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함께 둘 수 없다. 이 비유의 요점은 간단하다. 복음은 유대주의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60</sup>

새 것인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옛 것인 유대주의의 틀 안에 둘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유대주의뿐 아니라 복음조차도 쏟아져 버려질 것이다.<sup>61</sup> 이 비유는 전통교회를 넘어 소그룹 중심교회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인 토양화 작업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한국교회는 전통을 넘어 변화를 요구받고있다. Snyder 는 전통에 얽매어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화된 교회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sup>62</sup> 한국교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전통에 둘러싸여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로운 개념의 틀 안으로 가져가기위한 요구이다.

본 연구자는 제도화된 전통교회라는 장애물을 넘어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이야말로 진정한 토양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 Snyder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제도나 신학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 교회는 늙고 혼합된 기독교가 아닌 예수님을 제시할 수 있다.”<sup>63</sup>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닌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준비작업이 바로 토양화 작업일 것이다. 이 토양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는 더 강력하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60) Darrell L. Bock, *Luke,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4), 520-1.

61) I.H.Marshall, 「루가복음」, 「국제성서 주석 시리즈」, 강요섭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96.

62)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8.

63) Ibid, 19.

#### 4. 방법론에 대한 진술

이 논문은 3 가지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총 6 장에 걸쳐 작성될 것이다. 3 가지의 접근법과 6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접근법

첫 번째, 이 논문은 전통교회에서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 교회적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왜 토양화가 중요한지를 밝힐 것이다. 두 번째, 소그룹 전반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의 문헌과 논문들을 살펴보고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와 신학적인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전통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설문 조사하여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이론만이 아니라 목회현장의 실제적인 경험을 나눌 것이다. 더불어 토양화 과정이 성공적인 전환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각 장의 주제

1 장은 전통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그룹 중심 교회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2 장은 전통교회에 대한 정의와 공헌 그리고 한계에 대해 설명한 후 소그룹 중심교회로 바뀌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할 것이다. 3 장은 소그룹 중심교회의 정의와 교회에 주는 유익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4 장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토양화의 정의와 중요성을 다루게 될 것이다. 5 장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토양화의 과정이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힐 것이다. 6 장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려는 한국의 교회에 전환의 성공을 위한 유용한 제안과 토양화의 중요성을 피력할 것이다.

## 5. 문헌 검토

논문을 쓰면서 주로 본 연구자에게 가장 많은 동기부여와 지식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논문 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서적들이 있다. 아래의 책들은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해주는 서적들과,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을 위한 유용한 제안과 관계된 책들이다.

「셀교회 지침서」: 현대적 의미의 셀을 세계에 알린 셀 이론가이며 셀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Neighbour의 책이다. 이 책은 셀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Neighbour가 25년 동안 셀을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귀한 책으로 셀의 이론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셀의 실제적인 모습까지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교회의 현 상황을 설명하며 셀교회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셀교회의 방법론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셀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나에게 셀교회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책이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Icenogle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소그룹을 사용하였는지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소그룹의 사역과 중요성을 넘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은 매개체일 뿐이며, 제자도가 목적이다. 소그룹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 그룹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룹은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다.”<sup>64</sup>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소그룹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최영기가 저술한 이 책은 가정교회를 한국에 널리 알린 아주 유명한 책이다. 평범한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여정과 목회자가 된 후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는 전통교회였던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를 가정교회로 성공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현재는 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가정교회에

---

64)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6.

대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한국과 미국에서 열고 있다. 그의 뜻에 동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뛰고 있다. 이 책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

「Successful Home Cell Groups」: 현대적 셀의 시작을 알린 조용기의 책이다. 소그룹의 개념이 없을 때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시스템을 변경하였고 이 구역모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셀교회를 창안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이 책은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바꾸게 되는 동기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많은 내용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며 특히 담임목사의 영향이 사역전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다.

「제 2의 종교개혁」: 이 책에서 Bill Beckham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즉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대그룹인 예배만으로 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날개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한 루터와 헛필드 그리고 웨슬리가 지향한 소그룹과 그 결과를 이야기함으로써 종교개혁 시대의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소그룹과 셀 사역 그리고 셀교회로의 전환」: 김덕수가 출판한 이 책은 한국에서 셀교회로 유명한 지구촌교회의 셀 전환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셀교회 이론서의 성격도 있지만 전통적인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셀교회로 전환을 시도할 때 구체적인 방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이 셀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과 관련 있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평신도를 깨운다」: 한국교회에 이 책만큼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고 옥한흠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외적인 성장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함을 역설한 책이다. 그것을 위해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말한다. 사랑의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세우고, 세워진 사람이 소그룹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Wolfgang Jimjon 은 “내가 꿈꾸는 교회는 조직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형식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인 영적 확대가족과 같은 것이다.”<sup>65</sup> 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그가 꿈꾸는 교회인 유기적인 교회인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나 셀 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소그룹의 역사」: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소그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신,구약에 나타난 소그룹부터 교회사에 나타난 소그룹, 한국교회의 소그룹 역사 그리고 현대 교회의 다양한 소그룹 형태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성경이 그리고 교회사가 얼마나 소그룹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교회사는 소그룹의 역사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그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셀 교회론」: 저자인 박영철은 셀교회라는 주제로 신학교에서 강의뿐 아니라 오랫동안 세계의 셀교회를 방문하였기에 학문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다. 또한 많은 교회들을 셀교회로 전환하는 일을 도왔다. 이 책은 이론과 실체가 잘 어우러져 있는 책이다. 셀교회로 전환하는 실제적인 일의 준비과정부터 전환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토양화 작업에 대한 언급은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이 책은 소그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Neighbour 나 Carl F. George 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월로크릭교회의 소그룹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

65) Wolfgang Jimjon,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4.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생겨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셀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이 책은 한국의 대형 교회의 하나인 안산동산교회를 셀교회로 바꾸어 가는 중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셀교회로 바꾸어 가는 중에 생기는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성도들과의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또한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은 이론서는 아니지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하려는 모든 목회자들은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 이 책을 읽으면 전환에 따른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수의 감소로 인해 교회가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비판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전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한국의 교회는 그 돌파구로 소그룹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그룹이 주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사역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에 따른 로드맵이나 목회자의 소그룹에 대한 깊이있는 철학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역의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역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 즉 토양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역전환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체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방식이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소그룹의 형태로 모였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모였던 모습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다시금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소그룹의 올바른 정착과 적용을 위해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작업인 토양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안하려 한다.

## 제 2 장

### 전통교회와 소그룹 중심교회

#### 1. 전통교회의 정의

본 연구자는 먼저 전통교회의 정의를 내림으로서 논문의 주제인 “전통교회를 소그룹 중심 교회로 전환하는데 있어 토양화의 중요성”의 토대를 놓고자 한다. 전통교회라고 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지만 이런 막연한 개념보다는 사전적인 접근과 교회론적 접근을 통해 전통교회에 대한 보다 뚜렷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더불어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를 지탱해 온 한국의 전통교회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성장해 왔는지 동시에 21 세기를 맞이하여 성장의 감소와 사회적인 비판의 중심에 있는 한국교회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동시에 살펴보려 한다.

##### 1) 사전적 의미의 전통교회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통교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전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이란 뜻을 한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sup>66</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통이란 뜻의 영어 단어인 “Tradition”을 Collins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radition is a custom or belief that has existed for a long time”<sup>67</sup> 즉 “오랜 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관습이나 신념”이라는 말이다. 한국어사전과 영어사전 둘 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념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현재도 여전히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용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즉 전통이란 오랜 시간 동안 변화없이

---

66) “전통”, 「우리말 사전」

67) “Tradition”,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유지되어 온 사회 구성원들의 관습이나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사전적 의미로 전통교회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교회이다. 두 번째, 이전의 시스템이나 조직 형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교회이다. 세 번째,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이 있는 교회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규는 그의 논문에서 사전적 의미에서 전통교회를 “약 5~10년 정도 가치관이나 관습이나 행동양식(예배, 교육 등의)이 변하지 않는 교회”<sup>68</sup>라고 정의를 한다. 여기서 박성규가 전통교회의 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Aubrey Malphurs의 책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박성규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통화되는 기간을 5~10년 정도로 설정한 이유는 델러스 신학교의 교수이자, 교회 컨설팅 전문가인 오브리 멜퍼스에 따르면 하나의 조직은 2~3년 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5~10년 안에는 그 교회는 전통화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했다”라고 주장한다.<sup>69</sup>

## 2) 교회론적 의미의 전통교회

전통교회에 대한 교회론적 의미란 성도들이나 목회자 또는 신학자들이 전통교회라고 했을 때 갖는 일반적인 이해와 의미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처럼 전통교회란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여러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변화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현재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Harry L. Reeder는 그의 책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함몰되어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하고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0</sup> 즉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인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정의한 것이다. 릭 위렌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68) Sung Kyu Park, “Effective Pastoral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A Tradit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jeon Presbyterian Church”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7.

69) Ibid.

70) Harry L. Reeder,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송영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8-21.

옛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이런 것도 해왔고 저런 것도 해왔다”라고 말한다고 하며 전통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sup>71</sup> Mark Conner 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이미 사용해 온 예전과 전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이다”라고 정의한다.<sup>72</sup> Conner 또한 Reeder 나 Rick Warren 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과는 달리 “예전과 전통”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 즉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련하여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교회를 그는 전통교회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여러 논증들을 살펴볼 때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전통교회란 예배의 형식이나 구성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어 있지만 여전히 변화하려 하지 않고 옛날에 해오던 것이 익숙하여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거부하는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부른다고 말할 수 있다.

## 2. 전통교회의 특징

전통교회는 전통교회라고 불리는 그것만의 독특한 형식이나 방식이 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착화된 일종의 문화이다. 그리고 한 교회만의 독특한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교회의 형태이다. 한국교회 또한 전통교회라고 불리는 한국만의 고유한 교회 양식이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또한 미래를 향한 한국 교회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한국 교회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발전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란 다음과 같다.

71) Rick Warren,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5), 88.

72) Mark Conner, *Transforming Your Church: Seven Strategic Shifts to Help You Successfully Navigate the 21st Century* (Tonbridge, Sovereign World Ltd, 2000), 14. 박성규 “Effective Pastoral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A Tradit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jeon Presbyterian Church”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7에서 재인용.

### 1) 목회자 중심의 사역구조

전통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목회자가 사역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는 목회자 중심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모든 일에 목회자의 판단과 결정을 필요로 한다. 목회자가 없으면 사역을 진행할 수 없고 평신도들 또한 목회자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규정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너무나 지나치게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sup>73</sup>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역구조가 지배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 혼자서 만능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고 목회의 능력이나 역동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이제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의 능력을 빌려 함께 사역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sup>74</sup> 그래서 Warren 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신자가 목회자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sup>75</sup> Warren 의 말처럼 평신도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 두 직분에 대한 등급이 나뉘게 된다. 목회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와 신분을 높이려고 애쓰고,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려 하며 예수님의 모범처럼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신도는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더욱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교회는 평신도들의 다양한 역량과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미 한국교회는 이것을 철저히 계급으로 인식하여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sup>76</sup>

7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50.

7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31.

75) Rick Warren, *Purpose Driven Church*, 368.

76) 김경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89년 10월, 27.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직분을 계급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낮은 직분에서 높은 직분으로의 진급이라는 표현이나 사상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sup>77</sup> 오직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 교회를 모두 다스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성경적으로도 그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Snyder 는 이렇게 말한다. “사역에 관한 신약성경의 교리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중구조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비슷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기둥에 기초한다.”<sup>78</sup>

## 2) 대그룹 중심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 46-47).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그룹으로 모였다가 각자의 가정에 있는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Beckham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신약교회는 멜로디(소그룹)와 하모니(대그룹)에 맞춰 아름답게 노래하였다.”<sup>79</sup> Beckham 은 초대교회의 모임 방식을 음악에 비유하며 멜로디와 하모니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어 모였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신약의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고 말하며 이것을 유명한 두 날개에 비유한다. “창조주께서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창조하셨다. 한 날개는 대그룹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두 날개를 사용할 때 교회는 하늘 높이 날아서 하나님

77) 이성희, “기능적 직분이해가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1994년 6월, 221.

78) Howard Snyder,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3), 123.

79) Bill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경기도: NCD, 2012), 101.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서 이룰 수 있었다.”<sup>80</sup> 이처럼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가 잘 작동하여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두 날개가 중심이던 초대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점점 소그룹 모임이 사라지게 되었고 두 날개가 아닌 한 날개만으로 날아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인호는 이렇게 말한다:

초대교회는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격변, 내부적 이단들의 위협 속에서도 4세기 초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로마제국을 넘어 이교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성장해갔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황제들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후원으로 대성당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이고 그곳에 지하동굴이건 가정이던 모이는 곳이 교회이던 초대교회의 삶과 예배와 리더십의 형태는 현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사이 교회는 건물 속에 갇힌 형태로 변질되었고 초대교회 역동성의 주역인 가정에서의 소그룹은 요한 웨슬리 시대가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sup>81</sup>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의 전통교회는 소그룹의 기능이 사라지고 대그룹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진정한 형태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면 소그룹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주후 약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건물로 서의 교회를 짓지 않았다. 교회 건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숫자적 증가와 영적 깊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활기차게 움직였다. 이들은 가정에서 모였으며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갔던 곳은 가정이었다.<sup>82</sup>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모이는 것만큼 큰 의미와 은혜를 누렸던 곳이 친밀한 교제가

---

80) Ibid., 32.

81) 김인호, “교회 개척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서서,” 「목회와 신학」, 2002년 4월, 73.

82)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73-75.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이성희는 그의 책에서 “주일교회에서 매일교회로 전환하라”<sup>83</sup>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과 교회역사는 언제나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교회가 대그룹 모임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동체성을 만들기 어렵게 된다. 대그룹 중심의 교회는 공동체성이 결핍된 구조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아픔과 필요를 알지 못한다. 체육관을 가득 매운 스포츠 관람객들은 운동경기를 보기 위해 대규모로 모여있지만 그 모임을 통해 어떤 사회적 변화도 이루어 낼 수 없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서로의 아픔과 삶의 정황을 알 수 없다.<sup>84</sup> 현대 전통교회가 이와 비슷하다.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목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다. 하지만 목회자들만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살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그룹은 현대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여 공동체성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다.<sup>85</sup>

### 3) 프로그램 중심목회

현대의 전통교회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많은 목회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킬지에 그들의 역량을 투입한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넘쳐난다. 그러다보니 교회가 목회철학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프로그램이라면 무분별적으로 도입한다. 그 프로그램이 목회철학과 상충되는 것은

8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31.

84)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목장」 (서울: 두란도, 2004), 6.

85)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128.

없는지,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는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회의 다른 사역과 상충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프로그램 중심 목회의 문제점은 프로그램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과 교회 공동체성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면 프로그램 자체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며,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하게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자체를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본래 사업의 과정 중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6</sup>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에 성도들을 참여시키지만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성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섬세한 시간과 커리큘럼으로 짜인 수많은 프로그램은 성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지만 서로를 알 수 있게 하지 못한다. 각자가 맡은 일을 할 뿐이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프로그램의 일부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sup>87</sup> 이러한 것을 두고 Glen Wagner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sup>88</sup>

현대의 전통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를 통한 세움에 관심이 있기 보다 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적인 성장에 더 크게 치중하는 것 같다. 이렇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할수록 교회 본래의 기능은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sup>89</sup>

86)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82.

87) Ibid, 88.

88) Glen Wagner, 「사람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12.

89) 유양욱, “전통적교회에서 Cell 을 중심으로 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45.

#### 4) 건물중심의 교회

한국 전통교회에서 건물은 예배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회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요 자신의 신앙과 동일하다. 교회는 성도들의 만남의 장이며, 훈련을 받는 장소이며,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며 그리고 모든 교회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오직 성전에서만 드러지기 때문이다. 교회를 벗어난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선포한 말씀인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7:48-49)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이 교회건물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은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에 구속당하지 않고 건물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면 교회가 된다. 건물로 된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면 그곳이 교회이며, 가정에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sup>90</sup> 현대 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인 교회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웨슬리는 학급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어 교회의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웨슬리가 교회의 분열을 주장한다고 비난을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난에 웨슬리는 자신이 사람들을 교회 건물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은 인정하나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하며 자신의 소그룹 모임을 옹호하였다. 웨슬리의 학급 모임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 소그룹 모임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였다. 웨슬리는 자신의 소그룹에 그리스도의 몸의 권위를 부여하였기에 전통교회의 어떠한 비난에도 견딜 수가 있었다.<sup>91</sup>

건물중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좁아졌다. 21세기 목회의 페러다임은 전통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 비하면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 하워드 스나이더의 책

90) Wolfgang Jimjon, 「가정교회」, 19.

91) Bill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175.

제목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21 세기에 건물중심의 목회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여 설교를 듣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교회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소그룹 중심의 예배가 공존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이 두 날개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sup>92</sup>

### 3. 전통교회의 공헌과 한계

#### 1) 전통교회의 공헌

전통교회는 오랜 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큰 버팀목이었다. 민족의 수난기에는 민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이었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성장한 한국교회를 길러낸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와 문화를 세운 것이 전통교회였다. 전통교회의 공헌을 한국사회와 교회들을 통해 알아보겠다.

#### (1) 한국사회에 대한 공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후 수많은 박해와 탄압에도 기독교는 성장해 갔다. 이러한 성장의 힘은 한·일합방이라는 민족의 분노 앞에 항일운동으로 나타난다. 한·일합방 이후에 한국의 수많은 독립운동과 의병조직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3.1 운동의 민족대표 33 인 가운데 16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기독교가 민족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있다.<sup>93</sup>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데 앞장을 선다. 그렇다면 민족의 어두운 시기에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다.

92) 명성훈, “셀그룹 목회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월간목회」, 2002년 8월, 50.

9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21-2.

첫째, 절제운동이다. 일본은 술, 담배, 아편, 공창 등을 운영하여 한국사회의 정신적인 근간을 뒤흔들려 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에 대항하여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금주, 금연 그리고 순결운동을 벌였고, 기독교잡지들은 일제히 금주, 금연운동을 펼쳤다.<sup>94</sup> 두 번째, 농촌운동이다. 1900년대초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일본이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본으로 가지고 갔으며 특히 쌀의 경우에는 많게는 약 50%정도의 양을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 인해 한국 농촌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일부는 만주나 사할린 등으로 이주를 가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교회는 총회차원에서 농촌부를 설치하여 농촌사업 전문가를 모시고 신용조합을 설치 보급하였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 농촌지도자 육성과 토양개량사업등을 펼쳤다. 또한 농민생활과 같은 잡지를 만들어 보급하였다.<sup>95</sup> 세 번째, 사회사업운동이다. 한국교회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다. 때로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범교단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사업을 주도하였다. 맹인학교, 고아원, 양로원, 나병원, 결핵요양원 그리고 아동보건소를 설립하여 한국의 사회사업을 이끌어 갔다.<sup>96</sup>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전통교회는 선교초기에는 학교, 병원 등을 지어 사회에 기여했다면 6.25 시대에는 외국 교회의 원조를 받아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정부의 복지정책이 거의 없던 시절에 한국교회는 사회의 큰 기둥이 되었다.<sup>97</sup>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참여는 근.현대에 와서 여전히 한국사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교회가 타종교와 비교하여 한국사회의 복지 분야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

94) Ibid., 255.

95) Ibid., 258~263.

96) Ibid., 337.

97) 정무성, “한국 복지 정책 진단과 교회의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11월, 214.

〈표 2〉 기독교의 사회참여도<sup>98</sup>

	기독교	불교	천주교
사회복지 법인	194 개소	104 개소	58 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88 개소	49 개소	49 개소
노숙인시설	54 개소	8 개소	8 개소
지역아동센터	1601 개소	전국: 3013 개소	

## (2) 한국교회에 대한 공헌

처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기독교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1990 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지 분할정책에 따라 각 지역에 서로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를 오게 되었다.<sup>99</sup>

먼저 감리교에서는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신학반이라고 명명하여 신학수업을 했으나 1916년에는 서양 근대식 건물에 협성신학교를 세워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로교회는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였고 1907년에는 7명의 한국인목사를 배출하여 한국인에 의한 목회를 가능하게 하였다.<sup>100</sup> 성결교단은 1910년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시작하여 1921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단을 형성하여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복음전파를 시작하였다.<sup>101</sup>

이처럼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국의 전통교회는 교회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것을 발판 삼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2005년

98) 손병덕, “사회봉사-기독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2010년 4월, 196.

99)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26.

100) Ibid., 30.

101) Ibid., 74-8.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구 4700 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860 만 명을 차지하여 전체 인구의 18.2%나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인구의 약 1/5 이 기독교신자가 되었다. 또한 2015 년 현재 한국의 교회 수는 약 7 만 5 천개 정도로 추산되어 불과 선교 100 년이 조금 지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전통교회는 우상으로 난무했던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2) 전통교회의 한계

### (1)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

현대의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시대 앞에서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이라는 text 를 전하기 위해 수 많은 context 를 이용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도대상자들의 문화, 의식, 생활방식, 필요, 관심 그리고 삶의 정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이상 영혼구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02</sup> 이러한 의미에서 Aubrey Malphurs 는 그의 책에서 “교회가 과거에 했던 방식은 더이상 현재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sup>103</sup> Warren 은 전통교회가 변하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통교회의 목표는 과거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정체는 안정이라는 말로 해석해 버린다”<sup>104</sup>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가족형태가 해체되고 가족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한 주 5 일제 근무로 인한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주일성수에 대한 생각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예전의 아날로그

102) 명성훈, “한국교회 성장의 실상분석과 대책.” 「목회와 신학」, 1996 년 1 월, 118.

103) Aubrey Malphurs,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Grand Rapid, MI: Baker Book House, 1993), 131.

104) Rick Warren, *Purpose Driven Church*, 77.

방식에서 이제는 디지털 방식의 사회가 되었다. 또한 전자기기의 혁명으로 모든 것이 수십 년 전과 다른 세상이 되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Warr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워야 하며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역해야 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두 극단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싫어서 오늘날의 문화로부터 도망쳐 고립되는 것을 선택한다..... 반대로 어리석게도 최근의 유행을 모방하고, 세상과 무관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현대의 문화 속에 살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그들의 문화에 맞게 해석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sup>105</sup>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전통교회가 전통만을 고집하여 제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 (2) 리더십의 한계

한국 전통교회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 소통보다는 지시에 익숙한 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한국의 전통교회는 이러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왔으나 현시대는 명령과 수행이라는 것에 익숙한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게 되었다. 현시대는 명령보다는 상호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하는 세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제왕적 통치를 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다.<sup>106</sup>

담임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왕적 리더십은 1950년대 전후로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 성도들 대부분이 배움이 모자랐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시대였기에 어찌면 불가피한

105) Ibid., 55.

106) 김덕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서울: NCD, 2002), 133.

상황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성도들이 사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히 높은 상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에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구나 젊은 세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다.

카리스마로 대변되는 제왕적 리더십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역의 능동성은 사라지고 수동성만이 남게 되어 교회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게 된다.<sup>107</sup>

특히 소그룹 중심교회로 변화를 시도하려면 전통교회에서 해오던 목회 리더십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전통교회의 리더십과 가장 대비되는 소그룹 중심교회의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과 ‘위임’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 소그룹 중심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소그룹 리더에게 위임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데 전통교회에서 목사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자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평신도들은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sup>108</sup>

### (3) 전통교회에서의 소그룹 - 구역

한국의 전통교회에는 구역이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감리교는 속회라는 이름으로 선교 초기부터 소그룹 모임을 가졌고, 장로교는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sup>109</sup> 구역제도는 평신도들이 주중에 모여 성도들의 나눔을 가지는 모임으로 현재까지도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신도 소그룹 모임이다. 물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구역제도가 현대적인 의미의 소그룹과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소그룹의 기능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107) 김삼성, 「셀교회에서 G-12 교회로」 (서울: 서로사랑, 2003), 38.

108) Ralph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144.

109) 황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52.

선교 초기부터 시작되어 온 소그룹 모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로부터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조용기는 에베소서 4:11-12 절과 사도행전 2:46-47 절을 읽고 목회자 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sup>110</sup> 그리고 난 후 그는 교회속의 교회인 구역을 만들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소그룹 모임을 정착시켰다. 현대의 많은 저명한 소그룹 전문가들이 조용기의 책인 “Successful Home Cell Groups”라는 책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현대적인 셀의 기초를 얻은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구역의 체계화와 보편화는 한국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목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옛날부터 이어져오던 구역모임 또한 그 변화의 시기에 속해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인 구역의 특징과 공헌 그리고 한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4. 구역의 정의와 특징

##### 1) 구역의 정의

구역모임이란 평신도로 구성된 리더와 구역원이 주기적으로 가정에서 모여 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이 모임은 주중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에서 대부분 모이게 된다. 1부에는 주로 예배를 드리며 리더의 인도에 따라 모임이 진행된다. 1부 모임이 끝나면 2부에는 간단한 식사나 다과를 함께 하면서 친교의 모임을 나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모인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의 다른 성도들을 심방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을 방문한다.

이러한 구역모임의 형태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47 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비슷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전도”하였고 “하나님을

---

110) Yong-Gi, Cho. *Successful Home Cell Groups* (NJ: Bridge Publishing Inc. 1981), 16.

찬미”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구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역제도는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Ralph P. Martin 은 그의 책에서 초대교회의 예배모습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카리스마’ ‘말씀의 선포, 케리그마’ ‘교육, 디다케’ ‘교제, 코이노니아’ ‘봉사, 디아코니아’이다.”<sup>111</sup> 이 다섯 가지의 사역들이 구역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역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소그룹 모임임을 잘 보여준다.

## 2) 구역의 특징

첫째, 지역별로 구성된다. 구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가까이 사는 성도들이 같은 구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사회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훨씬 많은 나라였다. 만약 구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있으면 구역모임을 하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둘째, 교회가 구성원을 임의로 지정한다. 구역의 구성원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교회의 목회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구성한다. 매년 년 말이면 성도들의 이동을 파악하여 새로운 구역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연령과 성의 구분이 없음. 구역의 구성원은 가정단위로 편성되며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구역에 속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젊은 가정과 중년의 가정 그리고 노년의 가정이 한 구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정단위로 구성하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구조가 된다.

넷째, 평신도 리더가 모임을 이끈다. 구역이 현대적 의미의 소그룹 중심교회- 셀, 가정교회, G-12-등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전문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리더가 모임을 이끈다는 것이다. 모임의 리더를 구역장이라고 하며, 구역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권찰이라고 부른다.

111) Ralph P, Martin,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9), 208-14.

### 3) 구역의 공헌

한국교회의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한 구역제도도 현대에 와서는 변화의 목소리가 높다. 현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뜻이다. 물론 구역제도가 오래된 제도이기에 변화의 목소리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이 한국교회에 미친 공헌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구역제도가 한국교회에 미친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신도 리더의 발굴. 한국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 명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는 여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다. 많은 성도들을 주기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 바로 구역모임이다. 구역의 리더인 구역장과 권찰이 자신들의 구역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설교와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의 영역으로 알려진 성도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성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의 리더들은 모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구역리더 교육을 담임목사와 함께 받으므로 교회의 큰 자산이 된다.<sup>112)</sup>

두 번째, 새신자의 정착. 교회에는 새신자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꾸준히 친교를 나눌 만한 프로그램은 없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기존의 성도들과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바로 구역제도이다. 구역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다과나 식사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새신자들은 편안함을 느끼며 교회에 대해 좀더 친숙하게 여기게 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교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의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112) 황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54.

세 번째, 신앙의 성숙.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쌓아가는 방식은 설교를 듣거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속하여 성경에 대해 배우는 방식이다. 함께 신앙에 대해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는 없다. 설교나 훈련은 거의 대부분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양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역제도이다. 구역제도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양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구역의 가장 큰 기능이 바로 교제의 기능이기에 그렇다. 구역원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신앙적인 고민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다.

#### 4) 구역의 한계

구역제도는 한국이 선교 초장기를 지나 80 년대에 그 틀을 갖추게 된다. 이는 물론 위에서 언급한 데로 조용기 목사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이때만 해도 한국은 아직 농경중심의 사회로서 모이기에 용의하였고, 대가족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하였고 대가족보다는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고, 옛날과 다르게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구역의 모습이나 형태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sup>113</sup> 구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가 모임의 구성원을 지정한다. 구성원을 교회가 정하여 발표하다 보니 구성원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임이 어려워진다. 또한 구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구역장이나 권찰과 구역원들이 사이가 좋지 못하면 모임에 오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회회를 옮기기도 한다. 또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리더가 구역을 맡아서 이끌 때 그 구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성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구역모임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또한 교회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은 모임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성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성도가 없다면 그 구역은 이름만 있지 실제로 모일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없는 구역이라 할 수 있다.

113) 정근두, “오늘의 구역제도, 왜 문제인가,”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47.

둘째, 여성 중심의 구역모임. 구역모임이 주로 낮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남성이 모임에서 소외된다. 산업화가 발달한 현재 낮에 모이는 모임에 갈 수 있는 남성의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남성이 배제된 채 구역모임이 진행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남성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담임목사의 철학을 공유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교제하는 역할을 여성이 주로 하다 보니 남성들은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교회의 행정적인 정책에 결정권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남성뿐 아니라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신앙교육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된다. 낮에 모이는 모임에 자녀들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권력화 현상. 구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돌봄과 교제에 있다. 구역의 리더인 구역장과 권찰은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구역의 리더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코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 가운데 구역장이나 권찰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구역장이나 권찰을 잘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직분을 맡기 위해 구역장이나 권찰을 꼭 하려는 것이다.

## 5. 소그룹 중심교회의 정의

한국 전통의 소그룹 모임이었던 구역은 목회자들이 담당할 수 없는 세밀하고 많은 부분에서 목회적인 도움을 주었고, 평신도 리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모임에서 예배와 교제, 나눔, 기도, 전도, 봉사와 같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담당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구역의 활성화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 농경사회를 그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구역제도는 산업화와 현대화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기능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다.

구역제도의 약화에 따라 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구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경적인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흔히 “셀” 또는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소그룹들이 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셀”이나 “가정교회”같은 소그룹 모임이 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초대교회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소그룹에 대한 명칭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랄프 네이버나 로렌스 쿡은 “셀교회”로 명명하며, 로버트 벅스는 “가정(home)교회”, 최영기 목사는 “가정(house)교회”로 정의한다. 각각의 명칭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본 연구자가 논문에서 사용하는 소그룹 중심교회란 위에서 말한 모든 소그룹의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하기에 연구자는 논문의 제목을 “셀교회”나 “가정교회”라고 특정한 하나의 명칭을 지정하지 않고 소그룹 중심교회라고 명칭하였다. 소그룹 중심교회란 셀교회와 가정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소그룹 중심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때로는 셀교회와 가정교회를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그렇다면 소그룹 중심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다.

#### 1) 그룹이란 무엇인가?

그룹(Group)이란 복수의 사람이 모였다고 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해서 그룹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임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룹에 대한 정의를 배성찬은 그의 논문에서 Kart Lewin의 연구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룹의 본질은 구성원들의 유사성이나 이질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그룹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을 변화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 장(Field)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서로의 감정교류가 없으면 그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sup>114</sup> 그룹이란 단순히 여러 명이 모였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 즉 나눔과

114) Kart Lewin, *Frontier in Group Dynamics* (Human Relation, Vol.1, 1947), 49. 배성찬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2005), 5. 재인용.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정웅섭은 그룹을 이루는 요소들을 인원, 과제, 환경, 감정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라고 정의하며 이 가운데 “상호작용”이라는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sup>115</sup>

이처럼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을 통한 공통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룹이라 부를 수 있다.

## 2) 소그룹 중심교회란 무엇인가?

그룹이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룹이라 불려진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그룹에 대한 정의의 토대 위에 소그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소그룹을 연구한 학자나 또는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이다.

Icenogle 은 소그룹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람들의 많은 모임이 마치 소그룹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룹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언약적이지 않다. ‘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들자’라고 말하는 그룹은 반언약적 공동체이다. 허위 공동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sup>116</sup>

Icenogle 에게 소그룹이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그리고 부르심을 인식하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공동적인 목표 아래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Joel Comiskey 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셀그룹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마다 모인다. 각 셀그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전도와 결신을 통하여 그룹이 자라나서 번식하는 것이다.”<sup>117</sup> Neal F. Mcbride 교수는 소그룹을 이렇게 정의한다. “교회내의 소그룹이란, 3~12 명까지의 사람들이

115)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980년 156권, 68.

116)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5.

117)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8), 23.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을 말한다.”<sup>118</sup> McBride 는 소그룹을 정의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세워주는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David L. Finnell 은 소그룹을 “셀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그리스도인의 몸의 유기체이다.”<sup>119</sup>라고 말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소그룹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최상태는 소그룹을 “가정교회를 정의한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사도의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 등에 힘썼던 사역을 지역교회의 형태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120</sup>

이상에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소그룹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위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에 동의할 기초하여 소그룹 중심교회에 대해 본 논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 중심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룹이다. 소그룹이란 유기체적이며 하나의 세포와 같다. 이 세포는 몸과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Lawrence Khong 은 “셀그룹 교회에서 셀은 교회이다”라고 말한다.<sup>121</sup> 이런 의미에서 소그룹 중심교회란 교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다.

둘째, 소그룹 중심교회란 소규모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사역의 중심인 교회이다. 12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더 커지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22</sup>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한다.

118)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7), 28.

119) David L. Finnell,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경기도: NCD, 2009), 28.

120)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66.

121)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0), 70.

122)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29.

셋째, 소그룹 중심교회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가정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47) 위의 본문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교제”를 나누었으며 “전도”를 하였으며 “성찬”을 베풀었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바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소그룹 중심교회란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여야 한다. 최상태는 이렇게 표현한다. “성경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교회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sup>123</sup> 예배와 전도와 성도간의 교제가 나타나는 소그룹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가 바로 소그룹 중심교회이다.

넷째, 소그룹 중심교회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을 나누는 교회이다. 소그룹 중심교회에서 소그룹은 Organization(조직)이 아니라 Organism(유기체)이다. 교회가 소그룹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가 이끄는 유기체로서의 모임이다. 이 유기체로서의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된다. 전문 목회자가 아닌 10명 내외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에베소서 4:11-12 절을 완성하는 것이다.

### 3) 소그룹 중심교회의 역사

####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 i) 출애굽기 18 장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소그룹 중심의 모임은 단연히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이라는 소그룹으로 나뉘어진 조직을 세워 임무를 나누어

123)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88.

말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형태로의 변화는 “백성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책임을 분담할 대리자를 세우라는 것이다.”<sup>124</sup> George 는 이러한 모습의 형태를 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실상 동네 법정, 시 법정, 주 법정, 국가 법정체제로 지파들을 조직하여 처벌업무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 분산 시행했다. 이 체제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지도자 아래 10 세대를 한 단위로 묶는 기본원리를 잘 보여준다.”<sup>125</sup>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판결을 내리는 문제를 소그룹 리더에게 맡겨 놓으니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되었다. George 는 이에 대한 평가를 다름과 같이 내리고 있다. “이드로가 제안한 모델의 목적은 불평사항과 예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통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였다. 진보적인 법적관례를 세운 정연한 체제 덕분에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가 뒤를 이을지라도 계속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sup>126</sup> 이드로의 제안과 모세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분담제도는 소그룹의 리더가 구성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정을 판결하며 의미에서 현대 소그룹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 i) 예수님과 12 제자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라 다니던 무리에게 투자한 시간보다는 제자와 함께 한 시간이 훨씬 많았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실상 한가족과도 같은 사이였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며 사역의 현장을 맞보게 하였고, 거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역을 하셨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되었다. 즉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모두 자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124) John, I, Durham, *Exodus, Worl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ld, Incorporated, 1987), 250.

125)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182.

126) Ibid., 183.

12 명의 제자들만을 자신의 소그룹 구성원으로 특별히 대하셨다. 최상대 목사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소그룹의 선구자였다.”<sup>127</sup>

Icenogle 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성한 소그룹 공동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열두 명의 소그룹과 함께 지냈고, 함께 돌아다니셨으며, 그들 주위에는 남녀로 이루어진 다른 많은 그룹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그룹과 지속적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적인 만남을 나누며 지내셨다.”<sup>128</sup> 예수님이 제자들과 완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 것은 현대의 소그룹이 지향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 ii)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의 형태로 가정에서 모여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불러주고 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것은 서신서에 잘 나타난다.

먼저 로마서 16 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 16:5) 이 본문에서 “저의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다. 즉 가정에서 소그룹이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다.

빌레몬서 1:1-2 절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 1:1-2) 바울은 옥중에서 보낸 서신서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신약시대 교회의 대부분이 특정한 사람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 형태였음을 보여준다<sup>129</sup> 골로새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127) 최상대, 「21 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73.

128) Greath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68.

129) 박영철, 「셀 교회론」, 207.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로새서 4:15)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었던 늑바에게 문안하며 “늑바와 그 여자의  
 집”이라고 말한다. 이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가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준다.<sup>130</sup>

### (3) 초대교회 이후의 소그룹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도 나누었다. 이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족공동체였다.”<sup>131</sup> 이처럼  
 가족공동체로 가정에서 모였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313년 밀라노 칙령과 함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자 그 모임의 형태가 바뀌어간다. 가정교회로 모였던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와 모임  
 장소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정에서의 모임이 교회 건물에서의 모임으로 변화된 후 소그룹 중심의 모임은 암흑기를 맞이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Beckham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사탄은 보다 천재적인 계획을 고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선 그는 교회에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존경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소그룹 구조를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중성화시키기 시작하였다.”<sup>132</sup> “이처럼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를 예루살렘교회 이후에 함께 가져본 일이  
 거의 없었다. 4세기까지는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만을 주로 사용했고, 4세기 이후에는  
 대그룹이라는 다른 한 쪽 날개만을 주로 사용했다.”<sup>133</sup>

---

130) Ibid.

131)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45.

132) Bill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59.

133)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57.

## i) 수도원 운동과 소그룹

수도원 운동의 기원은 주후 250 년경 이집트에서 안토니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sup>134</sup>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안토니는 그야말로 혼자 광야에서 수도하며 생을 살았다. 하지만 안토니와는 다르게 파코미우스는 수도원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수도원을 운영하였다. 파코미우스가 운영한 수도원은 소그룹으로 운영되었다. 다음은 John Foster 가 밝힌 파코미우스의 수도원 규칙 중 일부이다:

여러 수도사들을 소그룹으로 모아 리더를 정한다. 각 그룹은 상거래를 할 수 있다. 각 그룹은 순번을 정하여 농장, 주방, 병원, 장사 등의 일로 전공동체를 섬긴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제공되는데 그룹별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수도사들이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홀로 일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러나 새벽과 저녁에 그룹별로 예배를 드린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일이며, 주일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성찬식을 거행한다.<sup>135</sup>

“수도사들은 작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소그룹을 조직하여 리더들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sup>136</sup>

## ii) 중세시대의 소그룹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독일미사와 예배규범”이라는 책에서 제 3의 예배형태를 제시하였다. 루터가 제시한 제 3의 예배형태는 다음과 같다. “올바른 복음적 규정인 제 3의 형태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지 않아도 된다..... 한 집에 모여야만 할 것이다..... 세례와 성찬 예배를 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sup>137</sup>

한정애는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는 제 3 형태로서의 모임을 비공식성, 비강제성, 소공동체성, 가정교회적 성향등을 통하여 서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교회의

134) Jonh Foster, 「새롭게 조명된 초대교회의 역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8), 201.

135) Ibid., 202.

136) Bill Hull, *Seven Steps to Transform Your Church*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 1993), 149.

137) M. Luther, *Deutsche Messe Ordnung des Gottesdienstes* (Weimar, 1526), 44-113.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54 에서 재인용.

존재와 역할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38</sup> 루터가 말한 제 3의 형태는 오늘날의 소그룹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루터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지 못하고 머리 속에만 넣어 두었다.

경건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슈페너가 소그룹 사상을 이어간다. 슈페너는 주일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 번 음미할 것을 말했으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개념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성직자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해 말씀을 서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sup>139</sup> 또한 슈페너는 1670년부터 직접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일주일에 두 번씩 남녀가 함께 모여 전 주일의 설교를 토론하거나 경건서적을 함께 읽었다.<sup>140</sup>

요한 웨슬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명맥을 유지해 오던 소그룹 운동에 가장 큰 활력을 불어 넣은 인물이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회의 소그룹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가 소그룹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속회-class meeting-이었다. 그는 12명 정도로 구성된 속회를 만들어 찬송과 기도 그리고 죄와 허물을 서로에게 고백했으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서로 나누었다. 이 속회 회원 중에서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따로 모아 신도반-band-을 따로 조직하였다.<sup>141</sup>

### iii) 현대의 소그룹 운동

현대 소그룹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라 할 수 있다. 조용기는 너무나 커져버린 자신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역제도가 성공을 거두자 그는 자신의 사역을 바탕으로 1980년에

---

138) Ibid.

139)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84-88.

140) Bill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171.

141)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14.

“Successful Home Cell Groups”라는 영문판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Neighbour, Cesar G. Castellanos 그리고 Larry Stockstill 같은 목회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sup>142</sup>

조용기의 큰 공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의미의 소그룹이 등장한 것은 1990 년대에 시작된다. Neighbour 박사가 “Where do we go from here”<sup>143</sup>를 출판하면서 그가 주창하는 셀이 전 세계로 활발히 소개되었다.

한국 또한 Neighbour 의 영향을 받아 1990 년 후반부터 셀을 포함한 소그룹에 대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고 옥한흠의 제자훈련, 최영기의 가정교회, 박영철을 중심으로 한 셀교회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인 지구촌교회, 안산동산교회 그리고 화평교회 등의 교회가 한국형 셀과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다.

## 6. 결론

전통교회란 문자 그대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예전부터 사용되던 방식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사역하는 교회를 말한다. 특히 한국에서 전통교회란 40-5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상적으로 지칭한다. 이런 전통교회의 희생과 헌신은 한국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현재 많은 전통교회들은 침체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 침체와 혼란의 가장 큰 이유를 박성규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영적인 역동성의 저하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sup>144</sup>

전통교회의 침체가 한국교회의 침체로 이어져오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침체를 뚫고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통교회가 활성화

142) 김인호, “한국교회 셀 목회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신학」, 2013 년 9 월, 37.

143) 이 책은 Ralph Neighbour 박사가 2000 년에 지은 책으로 Touch Outreach Ministries 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의 출판으로 전 세계는 셀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144) Sung Kyu Park, Effective Pastoral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A Tradit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jeon Presbyterian Church, 31.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변화를 취하는 것이다.

소그룹 중심교회는 목회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부터 소그룹은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소그룹은 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 중세와 현대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흐름이었다. 교회갱신과 개혁을 요구 받고 있는 현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전통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성경적이며,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인 소그룹 중심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왜 소그룹 중심교회가 한국교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제 3 장

###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과 토양화

#### 1.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의 필요성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전통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교회보다는 소그룹 중심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시대적 상황이라고 함은 사회적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 모두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밝힐 것이다.

##### 1) 소외감의 극복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그룹은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 많은 사람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즉 영적인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sup>145</sup> 정보화와 디지털화의 시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줄어든 인격적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인들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참된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필요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sup>146</sup> 정재영은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공동체는 대중이 아닌 소그룹 속에서 구현된다. 소그룹이 아니면 대면의 친밀감과 깊은 결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간단하게 식사하는 것을 교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교제만으로는 친밀감과 결속력을 발달시킬 수 없다. 적은 수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만 공동체의 특성들이 계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45) 류혜옥, 「현대인은 풀어야 할 6 가지 마음의 병이 있다」, (서울: 클릭출판사, 2009), 121.

146)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 (서울: 킹덤북스, 2011), 83.

소그룹은 인격의 상호 교섭과 상호 격려를 통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교회 속에서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sup>147</sup>

## 2) 공동체성 회복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성상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풍요함 속에 항상 거하신다.”<sup>148</sup> 하나님은 인간도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그룹이다. “공동체는 대중이 아닌 소그룹 속에서 구현된다. 소그룹이 아니면 대면의 친밀감과 깊은 결속력을 가져올 수 없다.”<sup>149</sup>

소그룹 위주의 공동체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대교회는 대형화와 개인주의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형집회를 통해 잘 꾸며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성도간의 참된 교제는 찾아 볼 수 없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신앙상담을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은 삶 속에서의 적용성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다.”<sup>150</sup>

## 3) 리더 양성

교회의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분가이다. 분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리더가 한 명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전통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는 교회가 임명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그룹 중심교회에서 리더는 분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된다. 특히 전통교회에서 교회의 리더는 세상에서의 권력이나 명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을 통한 리더는

147) 정재영, “소그룹 모임과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 73.

148) Ralph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153.

149) 정재영, 72.

150)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 78.

세속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리더와는 다르다. 소그룹에서의 리더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섬기는 리더십을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의 리더를 ‘지도자’라고 하지 않는다.<sup>151</sup> 많이 배운 명성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교회내의 리더를 더 잘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4) 신앙의 생활화

주중의 삶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의 비중만을 너무 크게 강조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만으로 성도로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성도의 삶이 비단 주일 뿐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이 그 자체로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sup>152</sup> 주일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라는 단어는 “라트류오(λατρευω)”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의 뜻은 “섬기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것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라트류오”라는 단어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위대한 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라트류오”의 또다른 의미이다. 즉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근본되고 본질적인 의미지만, 나아가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도 함께 포함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Elmer Towns 는 그의 책에서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즉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151) David L. finnell,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171.

152)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198-99.

정의하였다.<sup>153</sup> 남을 섬기는 것, 즉 삶의 영역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한국의 전통교회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시 한 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 5) 전통교회의 한계극복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의 낡은 틀 안에는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복음은 성장하여 유대교의 낡은 부대를 터뜨렸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주의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전세계에 전파되었다.<sup>154</sup> 전통교회가 새 부대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전통교회는 낡은 부대가 되었다. 이 낡은 부대는 영원불변의 복음을 변화하는 현시대 속에 담아낼 용기로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

부대에 담기는 복음은 영원하다. 하지만 복음을 담는 부대는 바뀌어야 한다. 부대는 낡아질 때마다 바뀌어야 한다.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Snyder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대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변화를 초래하고 변화를 산출하는 모체이기 때문이다.”<sup>155</sup>

#### 2.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과정

전통교회를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Chapter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교회는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변화없이 해온 교회이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이러한 거부감을 줄이고 소그룹 중심교회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중심교회에 대한 흔들림없는 철학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함을 물론이다.

153) Elmer Towns, 「예배전쟁의 종결」 이성규 역, (서울: 도서출판 누가, 2009), 180.

154)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8.

155) Ibid., 11.

자칫 준비없이 사역의 전환을 하다 보면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방식을 찾는다는 것이다.<sup>156</sup> 이러한 형태로 사역의 전환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 새 패러다임과 옛 패러다임이 섞여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역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느냐 아니냐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역전환을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부터 어떤 순서와 방식을 사역전환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 1) 비전제시

전통 교회 성도들에게 소그룹 중심으로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변화에 대해 샘물교회를 가정교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박은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구역조직을 조금 더 움직이겠다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목회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따라서 기존교회에 익숙한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가정교회에 참여하면 여러 면에서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다.”<sup>157</sup>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임목사가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의 이유와 변화된 이후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야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의식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의식적인 변화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시도함으로써 소그룹 사역으로의 전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정교회를 훌륭히 정착시킨 조태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열정이 넘쳐서 당장 가정교회를 시행하면 성공할 것 같을지라도 교회론부터 서서히 설교하며 가르쳐서 가정교회가

156)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89.

157)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서울: 향상다출판사, 2010), 65.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임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가정교회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sup>158</sup>

비전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서이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소그룹 사역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성경적인 요구를 설교한다면 이것은 더없이 좋은 비전제시가 된다.

Northpoint Church 를 개척하여 부흥을 주도한 Andy Stanley 는 자신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종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비전을 예배중에 선포하였다. 그가 만들고 싶었던 교회는 비신자들조차도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였다.<sup>159</sup> 그가 예배중에 선포한 이 비전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 2) 리더 선발

비전제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소그룹 사역에 대한 공감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소그룹의 리더를 선발해야 한다. 소그룹 리더를 선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소그룹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의 평신도 리더였던 구역장이나 권찰 또는 다른 사역에서 리더로 섬기던 성도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존의 리더가 탈락되었을 때 교회의 반대세력으로 자리잡을 기회를 없앤다는 것에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연결된다는 장점도 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단점도 있다. 소그룹 리더의 성품이나 자질이 없는 성도도 리더로 세워지기 때문에 소그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지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가장 헌신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의 단점은 지원한 성도를

158)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서울: NCD, 2009), 60.

159)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2014), 51.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제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가장 단순하고 편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발성이 극히 떨어져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겠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자는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자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리더를 선발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리더의 역할과 사역의 범위 그리고 헌신의 정도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리더 세우기에 급급해서 편안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포장한다면 소그룹 전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 3) 리더 훈련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한 훈련이기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설교만으로는 리더를 위한 집중적인 훈련이 되기 어렵다.

리더훈련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독서와 토론을 들 수 있다. 소그룹과 관련된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은 소그룹의 철학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무런 이해와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 책으로만 내용을 전달할 때는 성도들 간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태환은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발생했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교회가 책으로만 전달되었으니 논쟁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sup>160</sup>

또다른 방법은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소그룹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강의보다 힘이 있지는 못하다.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나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의

---

160) Ibid., 63.

하나는 단순히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 위주의 훈련이 있어야 더 강력한 도전이 된다. 박은조는 현장 방문의 능력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체험하는 것, 강의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더구나 친절과 사랑과 헌신을 곁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안겨 주었다.”<sup>161</sup>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하면 꼭 현장을 볼 수 있는 세미나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그룹 사역은 이론보다는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역이다. 현장을 제외하고 사역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소그룹 사역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 목회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볼 수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소그룹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올해 열린 인지도가 높은 소그룹 세미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소그룹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6개 교회는 소그룹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들의 세미나 구성만 보아도 얼마나 현장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표 3> 2015 년 소그룹 세미나 현황<sup>162</sup>

내용	계자훈련 세미나	셀 컨퍼런스	가정교회 세미나	셀 전환 세미나	두 날개 세미나	가정교회 세미나
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국내 11개 교회	안산동산 교회	풍성한 교회	화평 교회
개최시기	11월 2-6일	5월 21-23일	매 월 개최	2월 22-26일	1월 25-27일	11월 24-27일
기간	4박 5일	2박 3일	2박 3일	4박 5일	2박 3일	3박 4일
소그룹 탐방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위의 표에서처럼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소그룹 세미나 6개 중 5개의 세미나는 각 교회의 소그룹을 방문하고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휴스턴 침례교회에 기반을 둔

161)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5.

162) 이 표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교회로 전화를 통해 문의하여 작성하였다. 단 지구촌교회는 2014년 자료임을 밝힌다.

가정교회는 평신도 세미나 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의 소그룹 리더의 가정에서 숙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그룹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소그룹 사역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그룹 리더들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지치게 된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 구성원들을 돌본다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지치게 만든다. 이 때를 대비하여 목자 안식년제도나 목자를 돌보는 목자를 시스템을 교회 상황에 맞게 미리 개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지속적인 영성과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그룹 리더에 대한 교회의 관심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규칙적인 리더 모임과 수련회는 그들을 더욱 강력한 리더로 만들어 갈 것이다.

#### 4) 소그룹 선택

구역과 소그룹 중심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역은 구역원을 교회가 정해주지만 소그룹의 회원은 자신이 갈 소그룹을 자신이 정한다는 것이다.

선발된 리더를 두고 성도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소그룹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그룹에 더 애착을 가지기 때문이며, 더 잘 모이고 그리고 더 잘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리더가 회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리더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만 자신의 소그룹으로 인도하려 할 것이다. 또는 교회가 정해주게 되다면 편의성은 있겠지만 자발성이 떨어지고 리더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임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가 정해주는 것이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다. 교회와 평신도 리더가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 가장 최선의 소그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수가 비교적 작아서 각 성도에 대한 판단을 교회가 잘 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하다. 교회의 규모가 커 성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조태환은 직접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되 성도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목장을 편성하기 때문에 목원은 목자를 잘 따른다. 그리고 목자는 자신을 선택해 준 목원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구역과 목장의 결속력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다.”<sup>163</sup>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의 성도가 소수의 리더에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는 자신의 소그룹을 선택할 때 한 소그룹만이 아니라 3 개 정도의 소그룹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하게 된다면 쓸림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

소그룹 회원이 자신의 소그룹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느 소그룹에 지원했는지 여부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이것이 비밀에 부쳐지지 않으면 성도들 간에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소그룹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열어 놓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맞지 않는 소그룹을 계속 다닌다는 것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소그룹을 옮기는 것도 횡수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며, 소그룹을 옮기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 5) 소그룹 중심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노력

성도들이 자신이 갈 소그룹 선택을 마쳤다면 이제 교회는 본격적인 소그룹 중심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시작된 소그룹 중심 사역이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은 소그룹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초기에는 혼란과 부정적인 반응들을 대하기 쉽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Khong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셀 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함정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163)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90.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옛 방식을 찾는다는 점이다”<sup>164</sup> Snyder의 책 제목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에 답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교회에서 사역하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대형 이벤트나 행사 등은 교회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들은 기존 교회의 사역을 한 후 자신의 소그룹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소그룹을 이끌고 소그룹원들을 섬기는데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소그룹이 잘 정착되도록 많은 가지치기를 담당해야 할 것을 김덕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여러 커다란 행사들이 연간 교회 일정표에 잡혀 있다면, 셀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분산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셀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되어, 결국 셀사역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된다.”<sup>165</sup>

### 3. 토양화의 정의

국어사전에서 “토양”이란 “‘땅의 흙, 곧 농작물 자라기에 알맞은 흙’ 또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받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sup>166</sup>이라고 정의한다. 첫 번째 정의는 토양의 원래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토양의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낸 정의에 해당한다. 이 두 정의는 모두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하게 하는 기초적인 것이다.

농부가 양질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땅을 비옥하게 개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황무지인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자라기 어렵다. 성경에는 이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있다. 마태복음 13 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 이 비유에서는 길 가,

164)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89.

165) 김덕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170.

166) “토양,” 「동아국어 대사전」 2011년 5판.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라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온다.<sup>167</sup> 이 땅에서 결실을 맺는 땅은 옥토 이외에는 없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의 종류가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가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이에 대하여 Hagner 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농부도 아니고 씨도 아니다. 씨의 운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토양의 종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sup>168</sup> Lenski 역시 토양의 질이 생산물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세 군데 땅에 수확은 없었고 한 군데서만 추수가 있었는데 그 비율은 3:1 이 아니었다. 여기 묘사된 것은 땅의 특징이 다르며, 그 특징은 씨에 그 결과를 남겼다는 것이다.”<sup>169</sup>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토양 또한 좋아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사역의 전환 또한 마찬가지다. 전통교회에서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언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전환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한다.

김덕수는 이런 사역전환에 있어서 토양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토양 준비작업이란 셀교회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정신에 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sup>170</sup>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본 논문에서 토양화란 ‘사역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역전환 이전에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구조의 변화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잘 준비된 토양화 작업없이 소그룹 중심교회로 정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토양화 작업을 펼쳐야 하는가?

167) 마태복음 13 장 3 절~9 절.

168) Donald A. Hanger, *Matthew 1-13, Worl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d Books, 1993), 369.

169) R.C.H. Lenski, 「마태복음(상)」, 448.

170) 김덕수, 「소그룹과 셀 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 351.

### 1) 토양화의 내용과 과정

토양화는 생산물을 얻는 단계는 아니다. 이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사역전환에 있어서 토양화 과정 또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 과정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때로는 마음 속에서 때로는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의 비유에서 봤듯이 이 과정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잘 준비된 토양화의 과정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 (1) 담임목사의 분명한 철학과 비전

전통교회를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하는 사람은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분명한 철학과 그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환의 성공과 실패에 직결된다. 담임목사가 확신이 없거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그마한 저항에도 쉽게 포기한다. 이에 대해 Dave Early 는 “비전이 있을 때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비전이 있으면 리더는 결코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다.”<sup>171</sup>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George Barna 는 “비전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에게 부여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신적 초상화”<sup>172</sup>라고 하였다.

한국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안산동산교회는 전통교회에서 셀교회로 시스템을 바꾸었다. 전환의 초기에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 사이에 셀교회로 전환하는 것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확고한 발언을 하였다. “담임목사가 셀목회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라고 시간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담임목사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셀교회 전환을 결단했는지 마음을 헤아려 봐라!”<sup>173</sup> 이후 모든 목회자들이 셀 전환을 위해 달려가게

171) Dave Early, *8 Habits of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 (TX: Cell Group Resources, 2001), 19-23.

172) George Barna,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조범식 역 (서울: 와그너 교회성장연구소, 1997), 57.

173)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52.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크다 하겠다. 목회자의 확신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Khong 은 전통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는데 필수요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강력한 지도자”<sup>174</sup>라고 이야기 한다. 담임목사가 사역을 지휘하지 않고 부교역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역권한에 대한 한계와 소그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역지 이동 등에 따르는 요소때문에 그 결과가 실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담임목사의 소그룹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부교역자에게 사역을 일임하면 소그룹 방향성의 차이 문제로 결국 실패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사역전환의 가장 중심인 담임목사는 소그룹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고한 의지 그리고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소그룹 중심교회는 실현 될 수 있다.<sup>175</sup> 최영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가정교회 구조로 옮겨갈 때 절대 필요한 것이 담임목사의 절대 확신입니다. 가정교회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sup>176</sup>

사역전환은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분들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열심만 있지 사역전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확고히 세우는 작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은 책 몇 권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마음 속에 아무리 전환을 하고 싶어도 참는 것이 좋다.<sup>177</sup>

## (2) 부교역자와 비전 공유

목회자가 소그룹 목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과 함께 토양화 작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은 교역자와 성도들에 대한 설득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왜 소그룹 목회로 사역을 전환해야 하는지의

174)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65.

175) 문동학, “셀목회의 한국 교회의 적용에 있어 극복과제,” 「교회와 신학」, 2003년 9월, 41-2.

176)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178.

177) 김인호, “셀 목회 그냥 되는 것 아니다,”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119-20.

중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것을 공감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정립한 소그룹 목회의 비전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와 공감을 나누어야 한다. 부교역자는 실질적으로 성도를 직접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대상이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것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부교역자가 담임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담임목사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때로는 담임목사의 방향을 비난하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을 설득하기 전에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소그룹 목회로 전환에 성공한 교회들의 토양화 작업을 보면 공통적으로 담임목사가 교역자들과 먼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당의 샘물교회는 담임목사가 가정교회를 연구한 후 그 바로 다음으로 시작한 토양화 작업이 교역자들을 세미나에 참석시키는 것이다. 샘물교회의 사역전환을 다룬 책인 “위대한 교회의 꿈”을 보면 2005년 가을 처음 교역자를 세미나에 보낸 후 2006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4군데의 세미나를 참석하게 하였다.<sup>178</sup> 안산동산교회 또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세미나와 책읽고 나누기를 통해 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였다. 이에 대해 송창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셀목회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우선 교역자들에게 셀목회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나누자는 것이었다.”<sup>179</sup> 창원에서 전통교회를 가정교회 교회로 훌륭하게 전환한 가음정교회는 담임목사가 모든 교역자를 미국에 있는 휴스턴 침례교회의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케 하였다.<sup>180</sup>

토양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교역자에 대한 비전 공유이다. 교역자들은 담임목사의 지시에 당연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토양화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178)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1.

179) 송창근, 「셀 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48.

180) 가음정교회 담임목사인 제인호 목사의 “사역전환 로드맵”이라는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을 생략했을 때는 언제나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교인들과 직접 접촉하며 담임목사의 철학을 성도들에게 직접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교역자임을 깨닫고 토양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교역자의 토양화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 평신도 리더들과 비전 공유

전통교회에 익숙한 성도들을 소그룹 목회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은 결코 선불리 할 수 없으며, 단시간에 끝내야 하는 일은 더욱 아니다. 안산동산교회의 전환을 이끌었던 송창근은 이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81</sup>

이 기간 동안에 담임목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모든 성도들과 비전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와 중직자과 먼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전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소그룹 목회로의 사역전환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역전환에 성공한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가 철학을 세우면, 다음으로 교역자와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으로 교회의 중직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순서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샘물교회를 살펴보면 교역자의 세미나 참석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장로, 권사, 샘터장이 세미나를 다녀온다. 약 1년에 걸쳐 네 차례의 세미나를 참석한 것을 책을 통해 알 수 있다.<sup>182</sup> 안산동산교회 또한 교역자들과 비전을 공유한 후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였다. “교역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에게 셀교회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접목하기 시작했다.

181) 송창근, “셀 목회의 3 단계 로드맵, ‘정착, 전환, 열매,’”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 61.

182)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1.

특별히 순장을 중심으로 한 수요 순장공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강의하였다.”<sup>183</sup> 가음정교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 교회는 교역자 부부를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시킨 후 곧 이어서 당회원 부부를 휴스턴에 보내어 가정교회를 체험하게 하였다.<sup>184</sup>

사역을 전환하는 교회가 중직자들과 먼저 비전을 공유하는 이유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며, 여론을 형성하는 그룹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4) 성도들과 비전 공유

Herold Westing 은 그의 책에서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끌고 나가는 어떤 것이다”<sup>185</sup> Westing 의 말에 동의 한다면 토양화 기간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 하는 사역적 목표가 소그룹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담임목사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만 비전을 공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단순히 따라올 것을 선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John Maxwell 은 교회 리더가 가져야 할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모든 훌륭한 리더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고 있으며,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이다.”<sup>186</sup>

신일권 목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논문에서 이야기한다. “담임목사는 소그룹 사역이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선포하고 설득해야 한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소그룹 비전의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이 때에야 비로소 성도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sup>187</sup>

183) 송창근, 「셀 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54.

184) 가음정교회 담임목사인 제인호 목사의 사역전환 로드맵이라는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85) Herold Westing, *Create & Celebrate Your Church's Uniqueness* (Grand Rapids, MI: Kregel, 1993), 23.

186) John Maxwell,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Grand Rapids, MI: Thomas Nelson, 2005), 141.

187) Il Kwon Shin, “A Strategy for spiritual growth and maturation of local congregation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165.

만약 성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되거나 생략하게 된다면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Grag Ogden 은 그의 책에서 교회 리더와 그렇지 않는 성도들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에서 10~20 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사역에 참여하고 80~90 퍼센트는 구경꾼이다.”<sup>188</sup> 교회의 리더는 전체 성도의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따라오는 80%가 소그룹에 참여할 때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80%는 리더로서 사역을 이끌어 가지는 않지만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성도들이며, 이 가운데 미래의 리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지도 않았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도 아니다. 어느 정도 사역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성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전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교회 리더들에 대한 설득작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도 있다. 이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그룹 사역이 교회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그룹의 힘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며, 소수의 성도들만이 만족함을 가지는 아주 불안정한 사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샘물교회는 전 성도들에게 소그룹 전환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 순서는 교역자와 교회리더들이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에 진행하였다.<sup>189</sup>

#### (5) 리더 세우기 및 리더 훈련

교회가 광범위하게 비전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소그룹을 이끌 리더를 세우고 훈련해야 한다. 리더를 세울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반드시 리더는 훈련된 성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가 부족하다고 훈련되지 않은 성도를 세웠을 때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88) Grag Ogden, 「새로운 개혁교회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97.

189)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1. 표 참조.

Warren은 준비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새로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이다. 모든 사역은 리더십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 준비된 리더가 없는 사역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sup>190</sup>

일산에서 가정교회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화평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 한 후 곧 이어서 가정교회 리더를 모집한다.<sup>191</sup> 이때 리더들은 제자훈련 과정 중 반드시 제자반을 마친 성도 가운데서 선발을 하였다. 이것은 훈련된 자가 아니면 한 목장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최상태의 목회적 철학 때문이었다. 이 교회에서 제자반은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쉬지않고 2년이 지나야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그 만큼 소그룹 리더는 훈련된 자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92</sup>

위에서 여러 번 설명한 샘물교회 또한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 가정교회 리더인 목자로 헌신할 자를 신청받고 그들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다.<sup>193</sup> 박은조는 사역전환에 따른 목장의 리더는 대부분 기존의 소그룹 리더들이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이 리더들은 충분히 훈련된 자들이었다.<sup>194</sup>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전환한 교회는 전 성도를 상대로 사역 전환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훈련된 자들로 소그룹 리더를 세웠다.

---

190) Rick Warren, *Purpose Driven Church*, 384.

191) 최상태, 「노출을 꺼리지 않는 공동체」 (서울: 화평교회, 2008), 65.

192)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0.

193)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1. 표 참조.

194) Ibid., 78.

## 2) 토양화의 방법

토양화는 사역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그 기간도 충분히 길어야 한다. 교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양화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신일권은 그의 논문에서 담임목사는 설교, 세미나, 목회편지, 교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성도들과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95</sup>

### (1) 설교를 통한 토양화 작업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의 구조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소그룹의 가치나 공동체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더 좋다.

가음정교회는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였는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를 실시하였고, 이때 성도들에게 가정교회에 대한 유익과 성경적인 이유 그리고 현실적인 목회적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는 목장교회로 간다”<sup>196</sup>이다.

조태환은 사역의 전환을 앞두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통해 사역 정당성을 설득하였는데 그는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주일 오후예배 시간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거의 다 참석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득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알려 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성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sup>197</sup>

195) Il Kwon Shin, “A Strategy for spiritual growth and maturation of local congregation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164-66.

196) 현재 이 책은 정식으로 출판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본 연구자가 읽었던 책은 비매품으로 출판되었을 때 읽은 것이다.

197)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63.

### (2) 세미나를 통한 토양화 작업

세미나를 통한 토양화 작업은 설교와는 달리 구조나 시스템 등을 다룰 수 있고, 사역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토양화 작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미나는 한 두 번으로 그치는 것 보다 여러 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좋다. 교역자 대상, 중직자 대상, 평신도 리더 대상 그리고 전체성도 대상으로 세미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 교역자나 중직자 그리고 평신도 리더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는 구체적이고, 교회론 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성도 대상의 세미나는 개최하기가 힘들다. 교인의 규모가 크면 클 수록 많은 성도를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는 세미나 보다는 부흥회나 집회 등을 통해 소그룹 중심교회 사역의 장점과 교회론을 설교하는 것이 좋으며, 부흥회 순서의 중간에 소그룹 중심교회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의 간증을 곁들이면 훨씬 전달력과 호소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소그룹 리더로 헌신할 성도들에 대한 세미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는 소그룹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세미나가 효과적이다. 샘물교회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소그룹 중심교회로 가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샘물교회의 가정교회 전환을 다룬 책 “위대한 교회의 꿈”을 보면 잘 나타난다. 박은조는 샘물교회 리더를 두 차례에 걸쳐 성안교회에 보낸 후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안교회를 탐방한 것은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어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가정교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체험하는 것, 강의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더구나 친절과 사랑과 헌신을 곁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안겨 주었다.”<sup>198</sup>

### (3) 독서를 통한 토양화 작업

독서를 통한 토양화 작업은 교역자 대상 또는 중직자나 소그룹 리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성도들에게

198)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0.

책읽기를 권유하고 권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독서를 통한 토양화 작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교역자를 대상으로 토양화의 초기에 독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회 리더나 또는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토양화 초기에 실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들은 후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조태환 목사는 성급한 마음으로 토양화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를 통한 토양화를 실시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논쟁은 점점 가열되어 분열이 일어나겠다는 염려마저 생겼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교회가 책으로만 전달되었으니 논쟁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sup>199</sup>

#### (4) 부흥회를 통한 토양화 작업

부흥회를 통한 토양화는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토양화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것이다. 이때는 소그룹 사역을 소개하거나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강한 마음의 동기를 일으키는 집회가 되어야 한다. 이 때는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한 부흥회이기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가 소그룹 모임에 나갈 것을 강력히 권면해야 한다.

### 3) 토양화 과정의 장애물과 그 해결

#### (1)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역을 전환한다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목회자는 안정적인 현재를 접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떠나야 한다. 만약 사역전환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실패의 두려움은 언제나 사역전환을 힘들게 만들며, 전환을 주저하게 만들며, 전환과정에 있어서도

199)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61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적 요소를 첨가하여 안정을 꾀하려 한다. 하지만 Beckham 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리더와 목회자들의 사고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sup>200</sup>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란 결국 수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 때 생겨난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되지 않을 때 초조해지거나 또는 사역전환을 실패로 생각하게 된다. 전환의 목표가 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목회자가 사역전환의 목표를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임의 회복으로 설정한다면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2)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은 그의 책 “파킨슨의 법칙”에서 조직이 변화를 시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을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한다. 그 증상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이 조직의 이익이나 목적보다 언제나 앞에 있다는 것이다.<sup>201</sup>

사역전환 과정에서 각 부서나 위원회는 전체 소그룹 사역보다 자신들의 사역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역전환의 조정과정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가 축소 또는 약화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사역전환 자체를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여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전환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담임목사는 사역전환을 할 때 교회론을 정확히 가르쳐야 하며, 소그룹을 통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여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역 조정팀을 뒤서 사역자들과 각 사역 그룹들이 교회 전체 차원에서 잘 협력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한다.”<sup>202</sup>

200) William. A. Beckham, “영적 환경인 셀을 만드십시오,” 「목회와 신학」, 2001년 10월, 106.

201) C. Northcote Parkinsaon, 「파킨슨의 법칙」, 김광웅 역 (경기도: 21세기 북스, 2010), 120-5.

202) Ibid.

### (3)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해부족

소그룹으로 사역이 전환되면 성도들은 돌봄을 받는 자에서 돌보는 자로 사역의 전환이 일어난다. 심방을 받던 자에서 심방을 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며, 가르침을 받던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성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연 그런 직분을 수행해도 되는 자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문 목회자가 맡아서 하던 영역을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전통교회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서 4:11-12 절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본 질서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인제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들에게 설교와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 (4) 헌신에 대한 두려움

소그룹으로 사역이 전환하여 평신도 리더가 소그룹을 이끌게 되면 리더들은 헌신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삶을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가정을 열고 삶을 드러내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한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해야 하는 일이기에 리더들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최영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도 집에서 같이 먹어야 한다. 친한 사람이라도 밥을 사서 대접하는 동안에는 그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에서 밥상에 둘러앉아 먹을 때에는 그 거리감이 좁아진다.”<sup>203</sup> 식사뿐 아니라 심방과 신앙상담 그리고 새가족 인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리더들은 헌신해야 한다.

203)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93.

리더들은 이전보다 더 확장된 헌신의 사역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하지만 목회자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역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교회가 리더에게 위임하는 사역이 성경적인 명령임을 가르쳐야 한다.<sup>204</sup>

#### 4. 결론

소그룹 사역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교회가 잘 받아들이기 위한 토양화 작업을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실 토양화의 많은 과정은 시스템의 변화보다는 사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고가 변화되면 시스템을 무리 없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고의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 목회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토양화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 정도면은 됐을 것이란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 설교 한 두 번과 세미나 한 번 정도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쉬운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충분히 시간을 잡고 여유 있게 준비해 나가야 토양화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토양화는 씨가 잘 자라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지 열매를 바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토양화는 소그룹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하지만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토양화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사역전환을 시도하려는 목회자들은 전환의 결과를 빨리 보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충분한 토양화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다.

---

204) 에베소서 4 장 11-12 절을 참조.

## 제 4 장

### 설문조사와 결과

#### 1. 설문 대상

설문조사는 전통교회에서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전환한 교회의 담임목사 8 명을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였다. 설문대상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나,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하였다.

첫째, 한국교회 내에서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잘 한다고 평가 받는 교회.

둘째,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전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

셋째, 사역전환 후 수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

넷째, 사역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회

총 10 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응답한 수는 총 8 명이었다.

#### 2. 설문 방법

설문지는 모두 e-mail 을 이용하여 보내졌으며, 설문에 바로 응답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본 연구자가 응답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린 후 설문지를 보내주었다. 설문지를 받는 방법은 모두 e-mail 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를 보내면서 IRB 의 기준에 맞추어 설문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목회자들은 모두 설문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에 동의를 하였다.

#### 3. 설문 내용

설문지에 담긴 설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정보, 교회의 상황, 교회의 소그룹 현황 그리고 사역전환에 관한 질문이었다. 설문은 모두 47 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설문자의 상황에 따라

45 문항에만 응답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이 질문에 모든 응답자들은 빠짐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설문에 참여하였다.

#### 4. 설문참여 교회와 정보

<표 4> 설문조사 교회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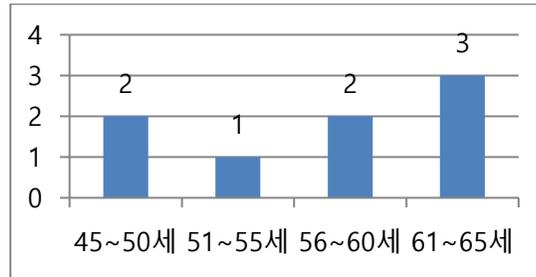
교회이름	담임목사	교회위치
구미남교회	천석길목사	구미시
울산다운공동체교회	박종국목사	울산광역시
열린문교회	이재철목사	양주시
울산시민교회	이종관목사	울산광역시
성남성안교회	계강일목사	성남시
인천등대교회	안태준목사	인천광역시
전주기쁨넘치는교회	김영주목사	전주시
가음정교회	제인호목사	창원시

#### 5.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질문은 모두 47 개로 되어있으며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45 개의 질문에만 응답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1 번부터 47 번까지 모든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나 도표를 이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 있지만 아래 질문의 응답자들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한 모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환 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역전환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그에 대한 상호관계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은 제 5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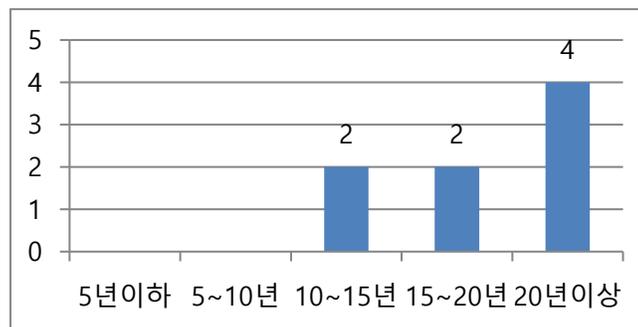
<그림 1> 나이



설문에 참여한 8개 교회의 담임목사는 40대 중반에서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담임목회의 경험이 긴 목회자부터 비교적 짧은 목회자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 세대에 걸친 소그룹 중심교회의 전환 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2) 귀하는 현재 소속교회에서 몇 년간 시무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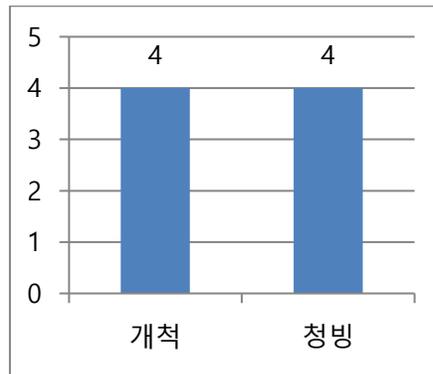
<그림 2> 시무 년수



소그룹 중심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목회자 전원이 최소 10년 이상 현재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50%를 차지한다. 이것은 담임목회자가 사역한 기간이 길어 어느 정도 교회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이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귀하는 현재 교회에 어떤 형태로 담임목사가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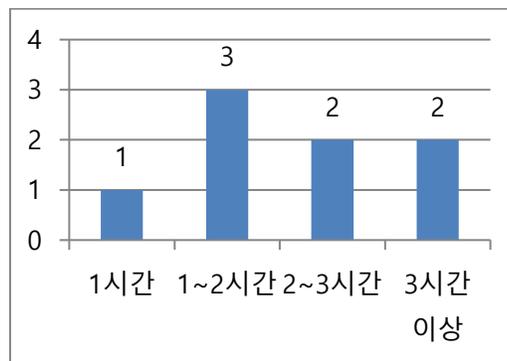
<그림 3> 담임형태



담임목사가 된 유형은 개척과 청빙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담임목회자가 된 형태는 사역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귀하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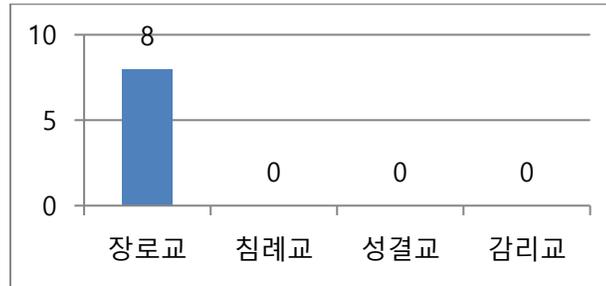
<그림 4> 하루 평균 기도시간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가장 많았다.

5) 귀하의 소속 교단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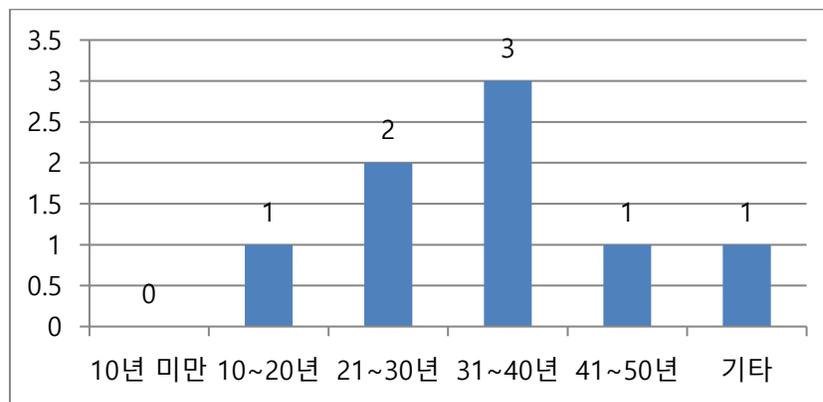
<그림 5> 교단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 전원이 장로교 교단의 목회자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한국에 장로교가 다른 교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목회자가 장로교의 신학과 맞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많은 장로교 목회자들이 소그룹 중심교회를 잘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귀하의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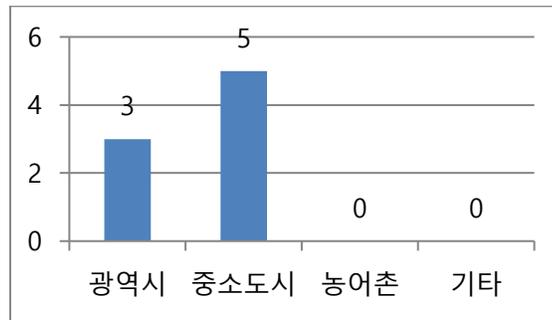
<그림 6> 교회 설립 시기



교회설립 기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20년 이상이며, 특히 30년을 넘어가는 교회가 5교회인 것을 보면 전통교회가 소그룹 중심교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7) 귀하의 교회가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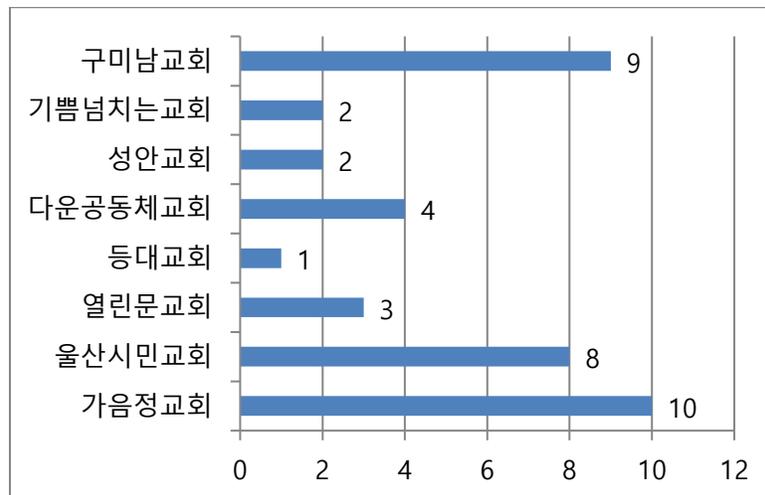
<그림 7> 교회 위치



응답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위치는 중소도시 이상의 규모에 위치하고 있다.

8) 귀하의 교회에 전임 부교역자는 몇 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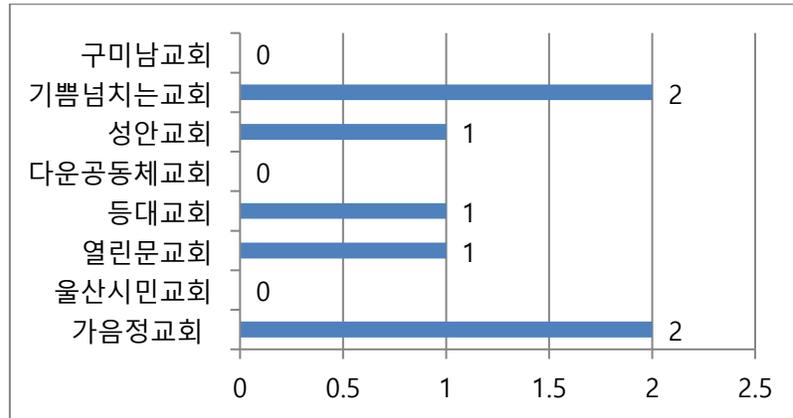
<그림 8> 전임부교역자 수



부교역자의 수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부교역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교역자 수와 소그룹 중심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5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9) 귀하의 교회에 파트 사역자는 몇 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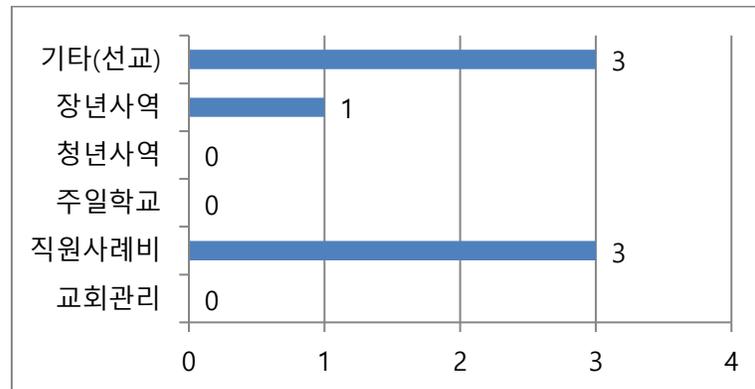
<그림 9> 파트 사역자 수



위의 표를 보면 모든 교회가 적은 수의 파트 사역자를 두고 있다. 소그룹 중심교회는 적은 수의 파트 사역자들과 사역함을 알 수 있다

10) 귀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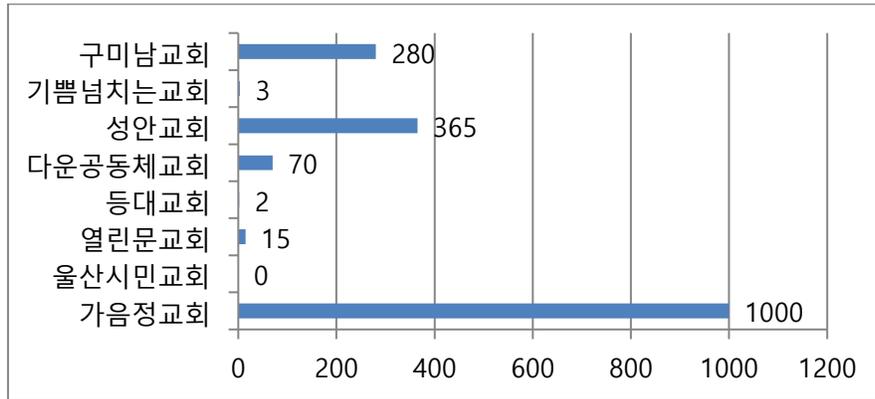
<그림 10> 예산 사용처



설문응답자 중 6 명이 직원사례비와 선교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정교회에서는 대부분 한 소그룹이 한 선교지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귀하가 처음 부임했을 때 평균 장년 주일출석은 몇 명이었습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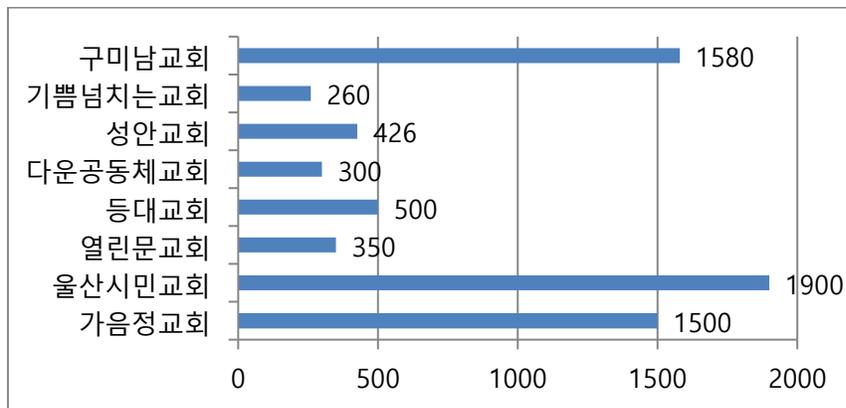
<그림 11> 부임시 장년출석



응답자 중 한 명은 대규모의 교회에서, 두 명은 중형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은 개척교회 수준의 소규모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12) 현재 귀하의 교회 평균 장년 주일출석은 몇 명입니까?

<그림 12> 현재 장년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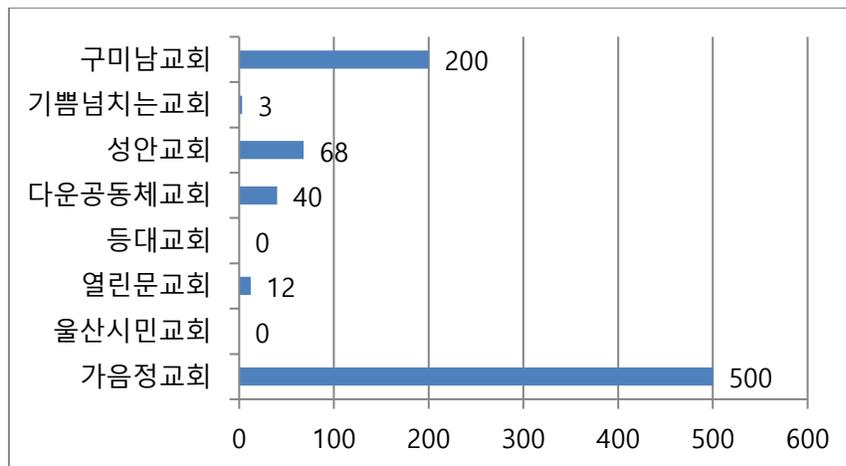


위의 표를 11 번의 질문과 비교해 보면 큰 폭의 수적인 성장이 일어났음을 잘 알 수 있다. 울산시민교회같은 경우는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현재 1900 명의 출석을 이루고 있다.

아무리 작아도 1.5 배의 성도가 수적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적인 성장이 소그룹 중심교회의 방향은 아니지만 수적인 성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13) 귀하가 처음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0 세~고등학교 3 학년) 평균 출석은 몇 명 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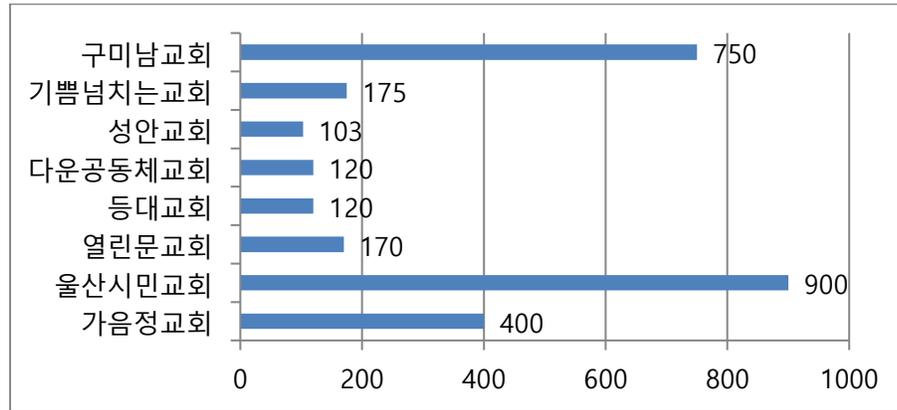
<그림 13> 부임시 주일학교 출석



두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교회는 주일학교의 수가 아주 적다. 10 명이 되지 않는 교회도 세 교회나 된다. 구미남교회와 가음정교회를 제외하면 응답한 교회의 대부분이 각 학년당 학생수가 평균 5 명 미만이었다.

14) 현재 귀하의 교회 주일학교 평균출석은 몇 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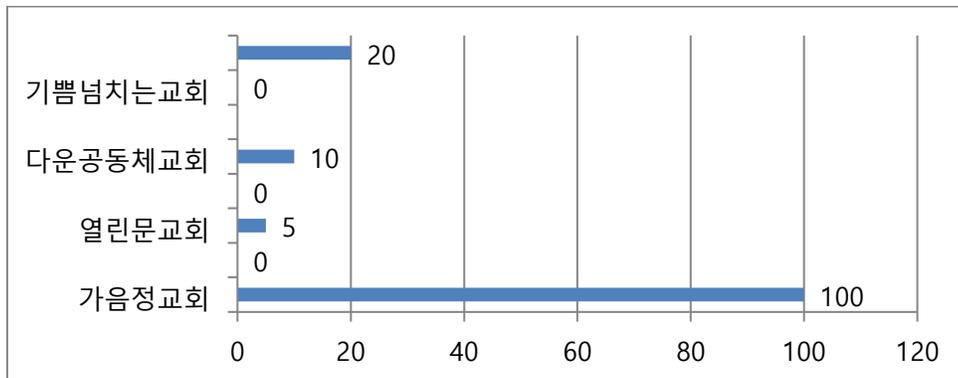
<그림 14> 현재 주일학교 출석



한 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다. 이것을 통해 소그룹 사역이 주일학교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귀하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청년들의 주일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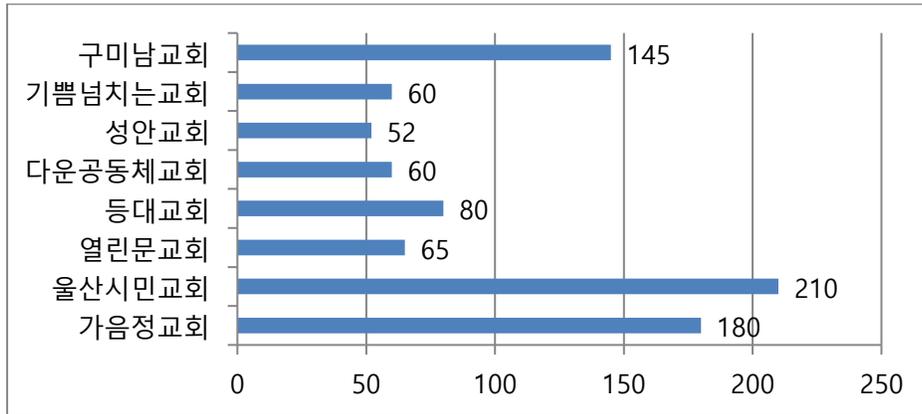
<그림 15> 부임시 청년 출석



응답자 여덟 명 중 한 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역을 시작할 당시 청장년을 구분하여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답한 일곱 교회 중 가음정 교회를 제외하면 모두 20명 미만의 청년이 있었으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세 교회가 된다.

16) 현재 귀하의 교회 청년들의 주일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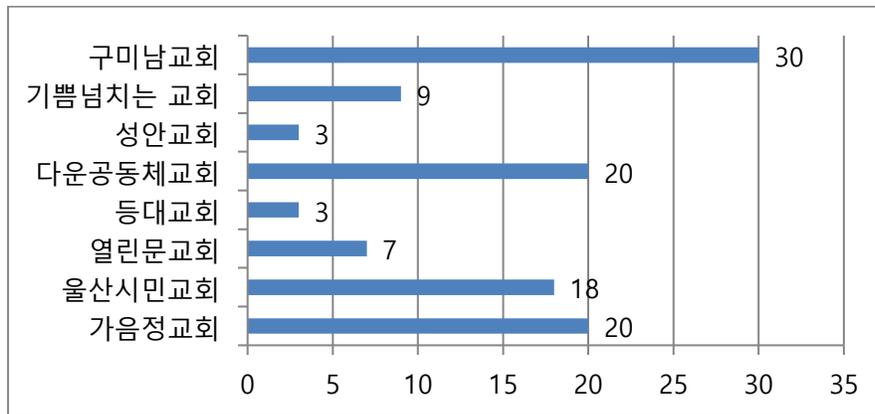
<그림 16> 현재 청년 출석



응답한 모두가 청년사역이 성장하였다. 15 번 그래프와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년부서의 성장은 주일학교 부서의 성장률보다는 낮다.

17) 귀하의 교회는 한 달에 평균 몇 명의 새신자가 방문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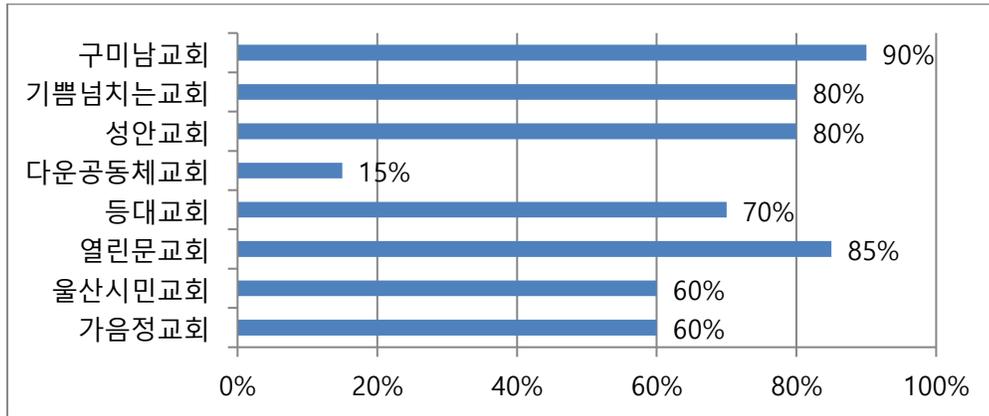
<그림 17> 새신자 방문 수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새신자의 방문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한 교회의 규모를 볼 때 한 달 평균 방문하는 새신자의 수는 전통교회와 큰 차이는 없다.

18) 귀하의 교회에 온 새신자 중 몇 %가 교인으로 정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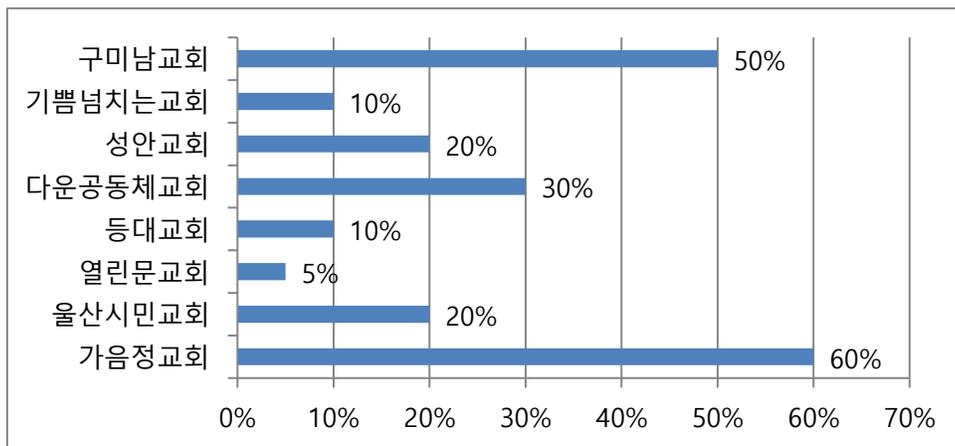
<그림 18> 새신자 정착율



새신자 정착율을 보면 전통교회의 정착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그룹 중심교회가 새신자 정착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신자도 소그룹에 속할 때 더 잘 정착함을 알 수 있다.

19) 귀하의 교회에 오는 새신자 중 수평이동 성도는 몇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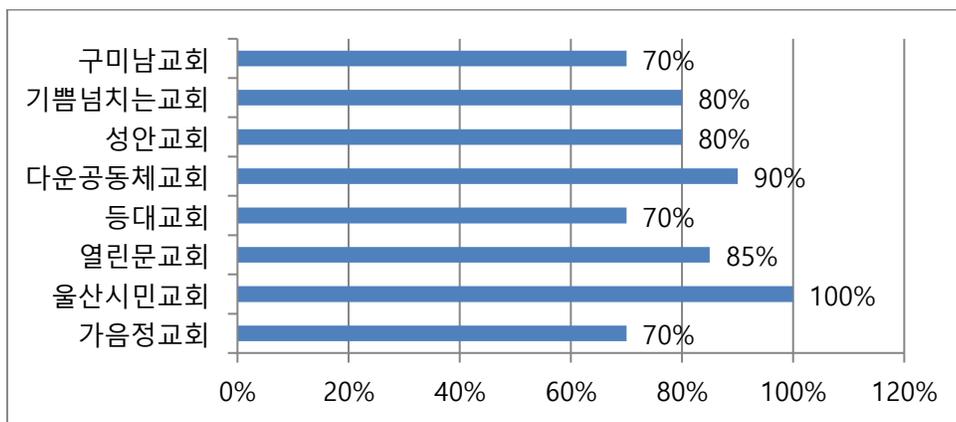
<그림 19> 수평이동 성도의 비율



응답자 중 2명을 제외하고 수평이동을 한 새신자는 30%가 되지 않았다. 50%를 넘은 두 교회는 장년성도가 1500명인 대형교회이다. 대형교회가 상대적으로 수평이동율이 높다. 한국교회가 수평이동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교회는 수평이동율이 적은 편에 속한다.

20) 귀하의 교회에 오는 새신자 중 평균 몇 %가 목장에 정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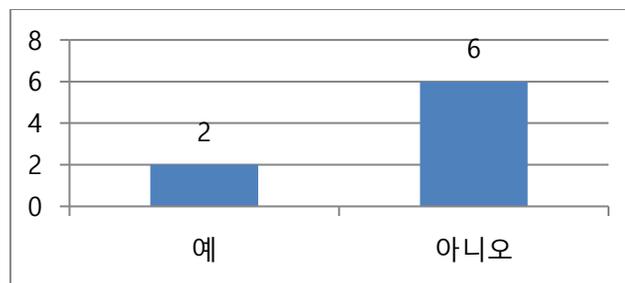
<그림 20> 새신자 소그룹 정착율



응답자 전원이 70%를 넘었다. 전통교회의 구역에는 새가족이 나눔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소그룹 중심교회는 새가족이 거의 대부분이 소그룹에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역이 가지는 한계와 소그룹이 가지는 역동성을 함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21) 귀하의 교회에는 대규모 전도집회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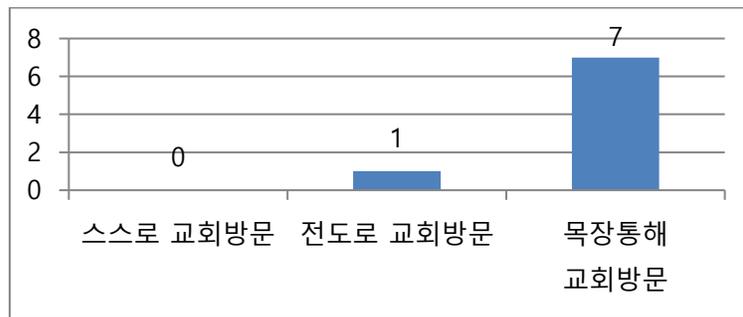
<그림 21> 전도집회 유무



대규모 전도집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월등히 많은 것은 소그룹 중심교회는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 위주로 전도를 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중심교회가 교회 정착율과 소그룹 정착율이 높은 것은 대규모의 전도집회가 아닌 소그룹 중심의 전도를 하기 때문이다.

22) 귀하의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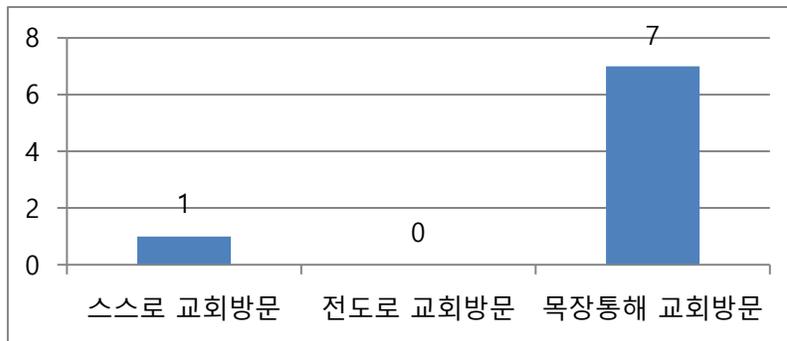
<그림 22> 새가족 교회방문 방법



응답자의 대부분이 새가족은 목장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한 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중심교회가 새가족의 교회 정착율과 소그룹 정착율이 높은 이유이다.

23) 귀하의 교회에 새가족이 정착하는 가장 높은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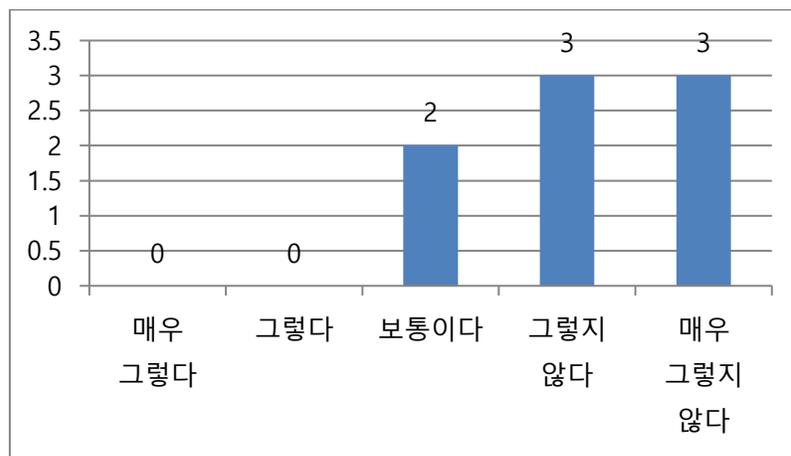
<그림 23> 새가족 정착 방법



한 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목장을 통해 교회로 등록할 때 새가족이 가장 잘 정착한다고 대답했다. 37 번 질문을 참고하면 스스로 교회방문이라고 대답한 교회는 나머지 일곱 교회와는 달리 현재를 기준으로 사역전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 귀하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신앙훈련은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까?

<그림 24> 부임시 신앙훈련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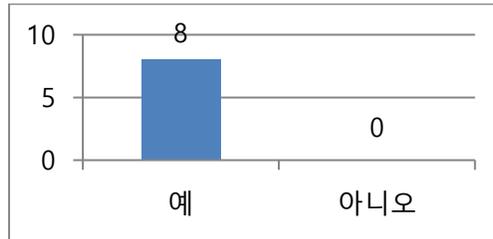


응답한 대부분 목회자가 부임시 훈련사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응답한 목회자가 대부분 15년 전에 부임을 하였고 그 때는 한국교회에 훈련사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05</sup> 또한 개척으로 인한 준비부족의 영향도 있다.

205) 응답자 중 2명은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인이 개척을 통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25) 귀하의 교회에는 초신자가 소그룹 리더가 될 때까지 훈련과정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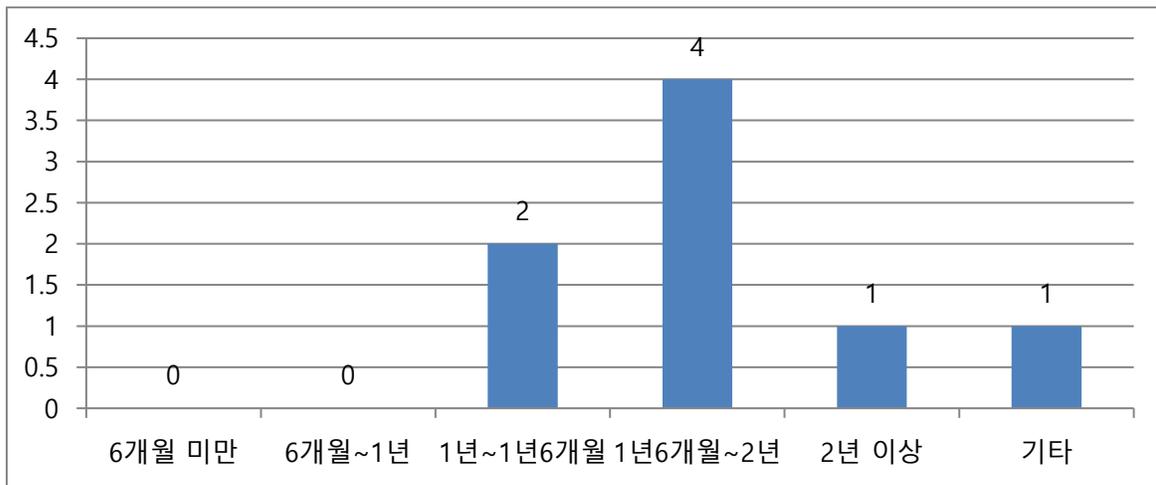
<그림 25> 훈련사역 유무



24 번의 응답과 비교해 본다면 모든 교회가 지금은 훈련사역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6) 귀하의 교회에는 초신자가 소그룹 리더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훈련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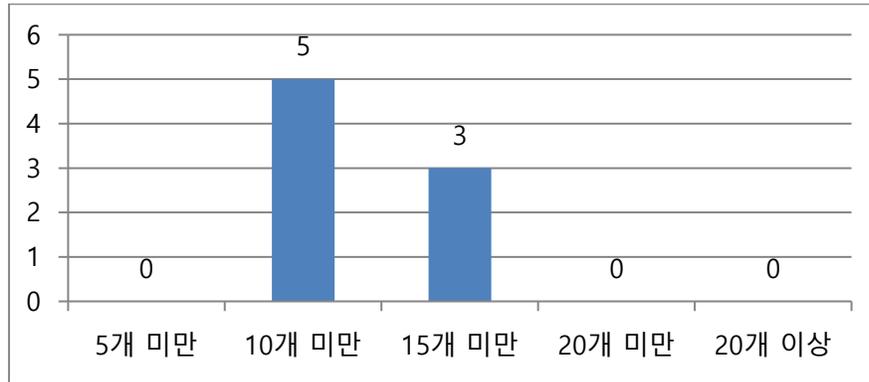
<그림 26> 훈련 소요 시간



응답한 대부분의 교회가 1~2년 사이에 훈련을 통해 소그룹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교회나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보다는 확실히 빠른 편이다. 분가를 통해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소그룹 사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27) 귀하의 교회에는 몇 가지의 훈련과목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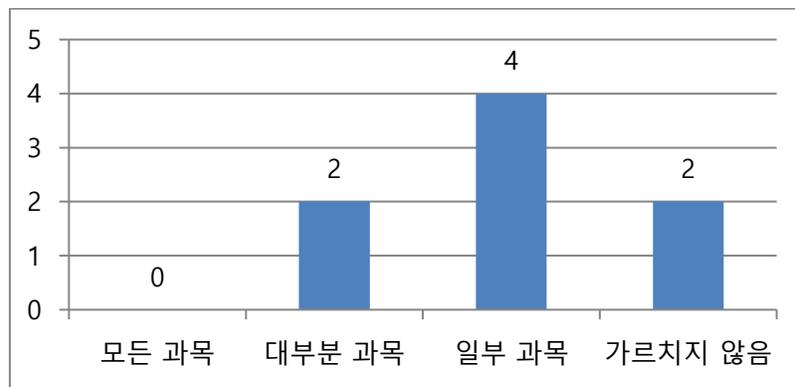
<그림 27> 훈련과목 수



대부분의 교회가 10 개 내외의 훈련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과목의 수는 전통적인 교회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28) 귀하의 교회에는 평신도가 훈련사역을 맡아 교사로서 가르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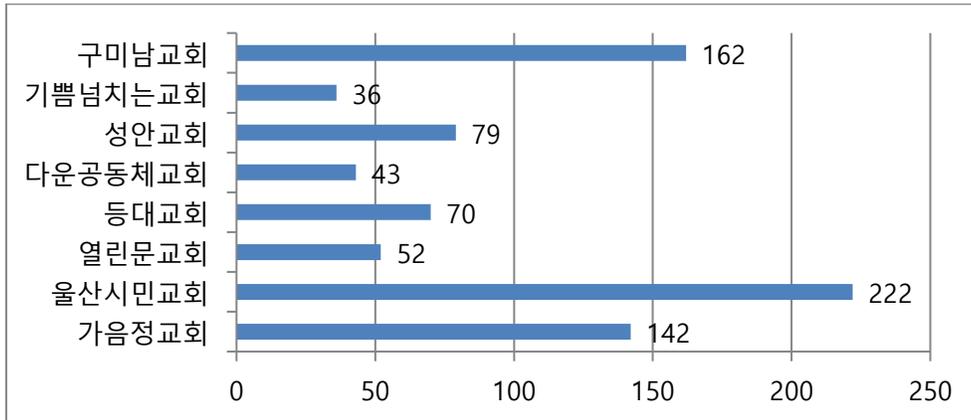
<그림 28> 평신도 성경교사 수



응답자 중 여섯 명이 교회의 훈련사역 교사로 평신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훈련은 교역자의 몫이다. 소그룹 중심교회가 평신도에게 사역의 장을 더 넓게 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9) 귀하의 교회에는 몇 개의 목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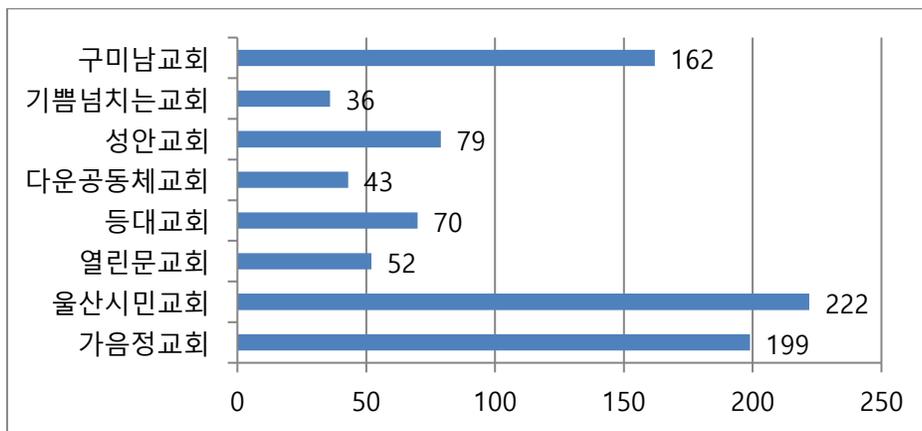
<그림 29> 목장 수



응답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성도 8~10명 당 한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30) 귀하의 교회에는 모두 몇 명의 목자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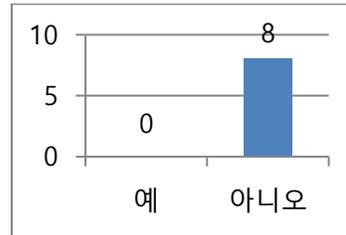
<그림 30> 목자 수



한 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두 목장의 수와 목자의 수가 동일하다. 부부목장도 부부 중 한 명만 목자로 세우기 때문에 목자 수와 목장 수가 동일하다. 응답자 중 예외적인 한 교회는 부부목장의 경우 부부모두 목자로 임명하기 때문에 목장 수와 목자 수가 다르다.

31) 귀하의 교회에는 목장 외에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까?

<그림 31> 목장 외 소그룹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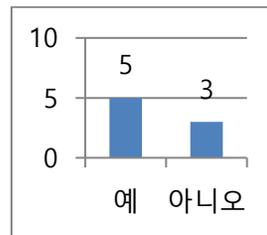
응답자 전원이 목장 이외에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모임은 없다고 답을 하였다. 그 이유는 소그룹 중심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목자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소그룹 사역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32) 또 다른 소그룹이 있다면 어떤 모임입니까?

다른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33) 귀하의 교회에는 취미 그룹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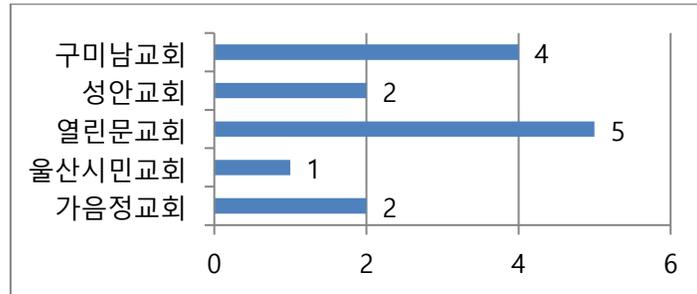
<그림 32> 취미그룹 유무



목장 이외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교회 내에 취미 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5 개나 되었다. 이는 성도들 간의 유대관계와 교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34) 몇 개의 취미 그룹이 있으며 그 이름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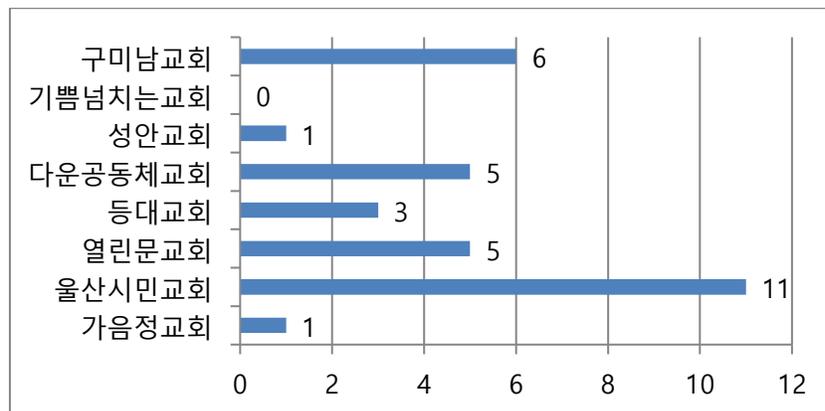
<그림 33> 취미 그룹 수



취미 그룹이 있다고 응답한 다섯 개의 교회는 다양한 수의 취미 그룹이 존재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취미 그룹의 대부분이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취미 그룹이 있는 다섯 개 교회의 총 취미 그룹 수는 14 개인데, 이중 12 개가 운동 종목이었다.<sup>206</sup> 그리고 나머지 2 개는 하모니카와 등산이었다.

35) 귀하의 교회는 2015 년에 몇 가정이 분가를 하였나요?

<그림 34> 2015 년 분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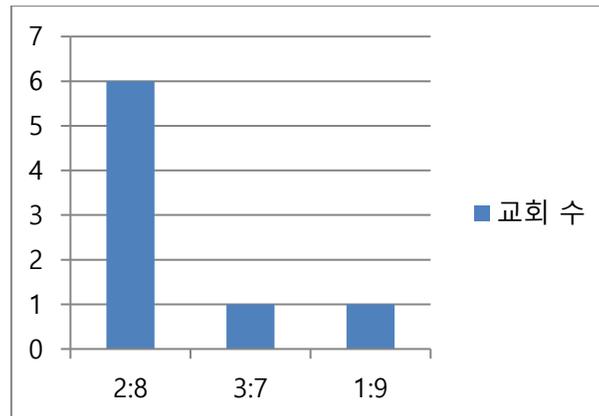


206) 응답한 취미 그룹 중 운동관련 종목은 탁구, 당구, 자전거, 골프, 축구, 족구, 농구, 볼링이었으며 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축구종목으로 다섯 개 교회 중 네 교회에서 축구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도수가 월등히 많은 교회가 더 많은 분가를 하였다. 나머지는 교회의 성도 수와는 상관없이 분가 수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나머지 교회들의 전체 성인 성도 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6) 귀하의 교회에 목자와 목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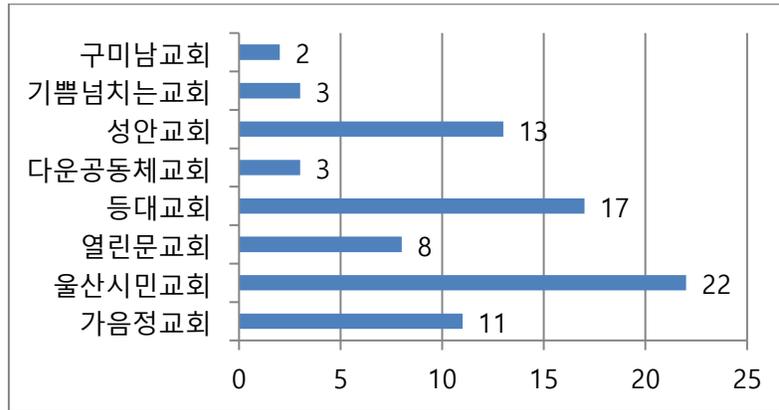
<그림 35> 목자와 목원 비율



목자와 목원의 비율은 대부분 2:8로 나타났다. 한 목자 가정이 약 4명의 목원 가정을 돌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평신도 리더가 4명의 성도를 보살피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너무 많으면 평신도 리더가 일일이 돌보기가 어렵고 너무 적으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또한 한 소그룹이 약 10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체 성도의 수에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목장의 수를 알 수 있다.

37) 귀하는 부임 후 몇 년이 지나서 사역전환을 하였나요?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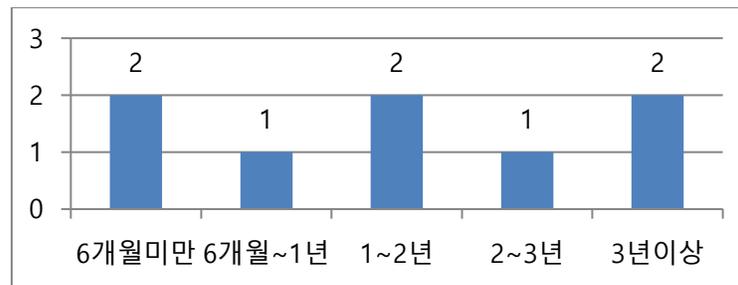
<그림 36> 부임 후 사역전환 시점



응답자 중 4 명의 사역전환 시기는 부임 후 10 년이 넘지 않았고, 나머지 4 명은 10 년이 넘었다. 하지만 한 교회의 사역전환 시기가 8 년인 것을 보면, 사역전환 시기가 부임 후 10 년이 지난 교회를 5 개 교회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통교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전통교회의 한계를 깨닫고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임 후 10 년 정도 지나면 교회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역전환을 시도 할 수 있었다.

38) 귀하가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 준비한 토양화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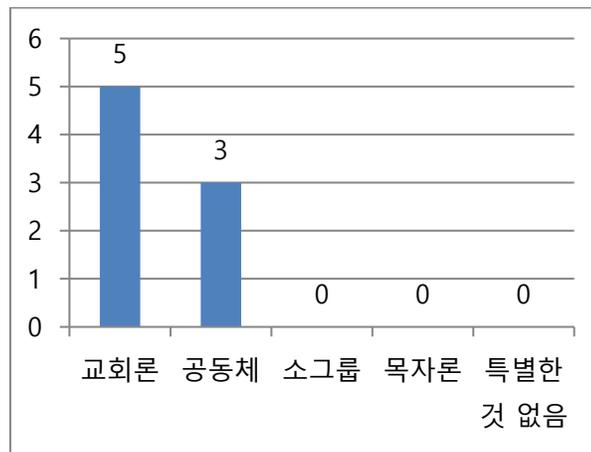
<그림 37> 토양화 기간



토양화의 기간은 응답자 별로 달랐다. 1년 이상 토양화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 교회가 1년 이하로 투자한 교회보다 많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다. 토양화의 걸린 기간은 교회의 상황, 담임목사의 리더십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39) 토양화 과정 중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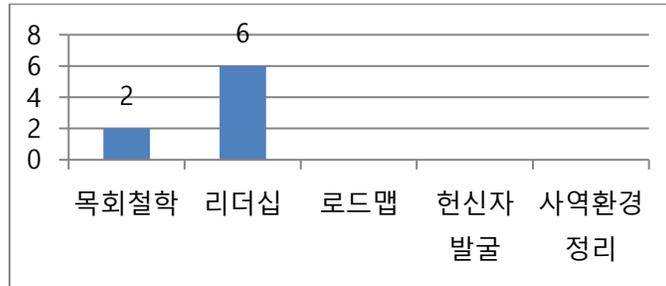
<그림 38> 토양화 중 설교내용



토양화 과정 중에는 주로 교회론과 공동체에 관해 설교한 것을 볼 수 있다. 소그룹에 관한 설교가 없는 이유는 소그룹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며 교회론적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양화 과정에서 이전과 다름이 없이 해오던 방식의 설교를 한 교회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토양화 과정에는 변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기에 특별히 사역전환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설교를 한 것이다.

40) 토양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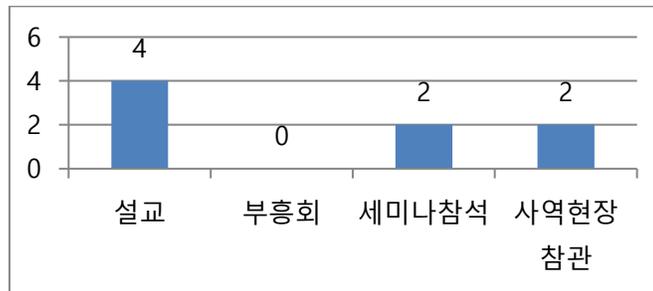
<그림 39> 토양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여섯 명이 리더십이라고 답을 했다. 분명한 목회철학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두 명이었다.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목회철학이 아무리 뚜렷해도 리더십이 없으면 자신의 목회철학대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에 대한 선택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이것들은 목회철학과 리더십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1) 사역전환에 있어 토양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0> 토양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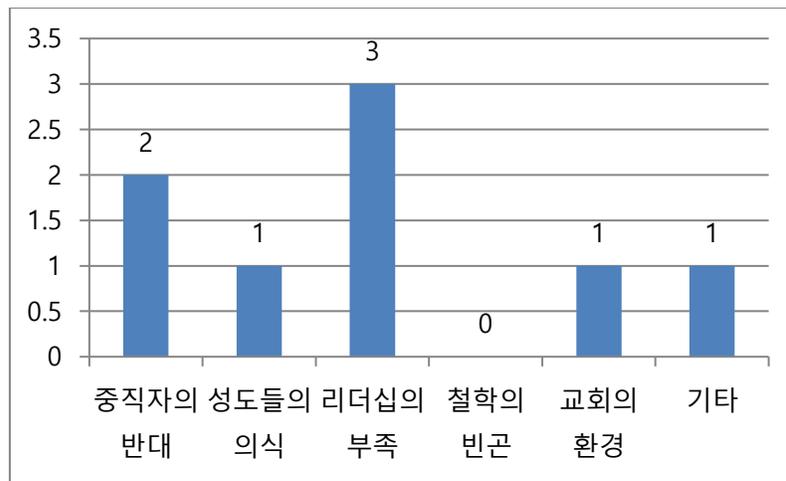


사역전환에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응답자의 절반이 설교라고 응답했다. 설교는 매주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방적인 선포의 형태로 나타나는 설교의 특성상 목회자가 가장 잘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다. 세미나 참석과 사역현장 참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두 명이 있었다. 이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설교보다는 소그룹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2) 사역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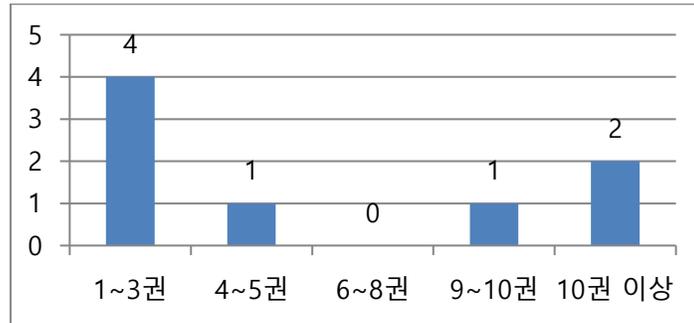
<그림 41> 토양화의 장애물



사역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목회자 자신의 리더십 부족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다. 이것은 토양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이라고 대답한 것과 동일하다. 사역전환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이며, 장애의 가장 큰 요소도 리더십이다. 이것은 사역전환의 성공과 실패가 목회자의 리더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직자들의 반대와 성도들의 의식부족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 중직자들의 반대 역시 의식부족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빈곤에는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역을 전환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기본적인 목회의 철학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3) 토양화 과정 중 책 읽기를 하였다면 몇 권의 책을 읽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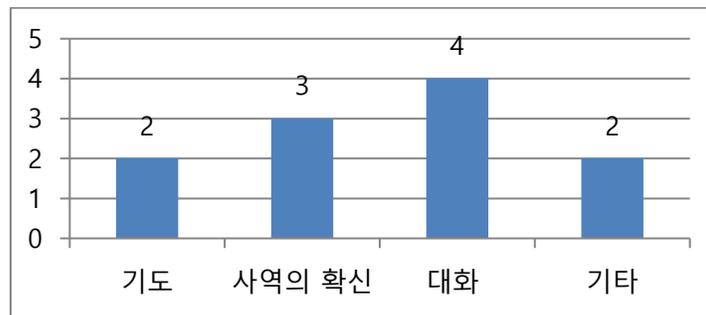
<그림 42> 토양화 과정 중 책읽기



토양화 과정 중에 독서를 통한 토양화 작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기반과 소그룹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5 권 미만이 다섯 명, 그리고 9 권 이상이 3 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목회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토양화의 요소라고 생각한 목회자와,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섞여있다고 할 수 있다.

44) 사역을 전환하면서 만난 장애물을 귀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림 43> 장애물 극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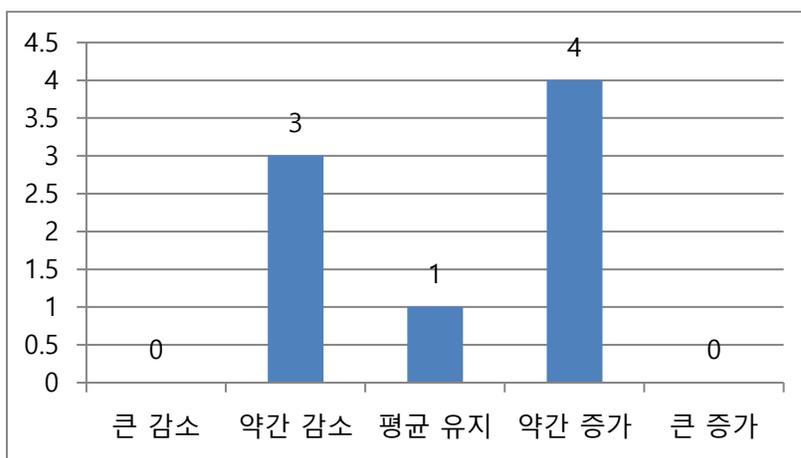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확신과 기도의 순으로 나타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가장 선호한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야 하며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와 사역에 대한 확신은 목회자 자신과만 관련된 해결법이지만 대화는 사역전환을 경험해야 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일이기에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응답자 중에 2명이 복수의 답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해결로 제시된 3 가지 방법 모두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5) 사역전환 후 1~2 년 동안 성도 수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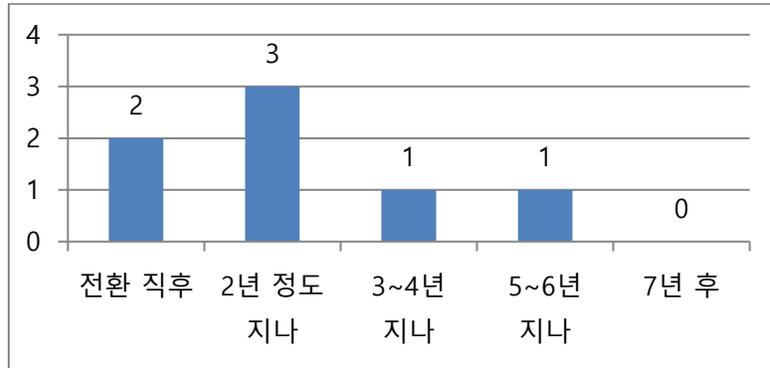
<그림 44> 사역전환 직후 성도수 변화



사역을 전환 한 후 1~2 년 동안 성도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모든 응답자들이 대답하였다. 그 이유는 사역전환에 따른 적응과 안정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역전환을 반대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는 목표가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현대에 다시 나타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역전환에 따른 의도적인 성장정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6) 사역전환 후와 현재를 비교하여 성도 수가 증가하였다면 사역전환 후 몇 년쯤에 증가를 시작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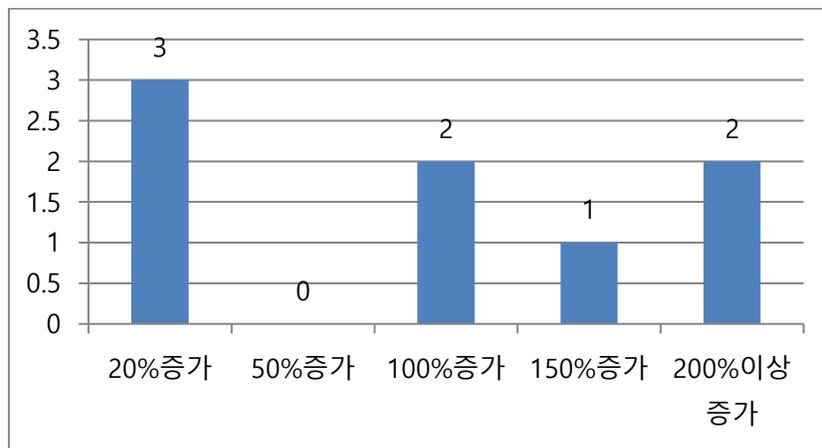
<그림 45> 성도의 증가 시점



여덟 명 중 일곱 명이 응답을 하였다. 전환 직후라고 답한 사람은 2명 이었으나 대부분은 최소 2년이 지나서 의미 있는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증가에 2년이 걸린 이유는 사역전환의 목표가 양적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사역전환에 성공하여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47) 사역전환 후 현재 성도 수가 증가하였다면 사역전환 전과 비교하여 몇 % 증가했나요?

<그림 46> 사역전환 전과 현재의 성도수의 증감



응답자 모두가 사역전환 후에 성도수가 사역전환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고 답했다. 2 배 이상(100%증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 이상이었다. 양적 성장이 목표가 아니지만 사역전환에 성공하여 소그룹 중심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면 양적인 성장도 함께 동반됨을 알 수 있다.

## 제 5 장

###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 1. 소그룹 중심교회의 장점

##### 1) 부교역자의 수가 주는 의미

응답한 여덟 명 교회의 부교역자 수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part-time 사역자의 수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장년 성도의 수가 1000 명이 넘는 대형교회도 3 개나 있지만 동일하게 part-time 교역자의 수가 적었다. 제일 많은 교회가 2 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하겠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부산지역의 전통교회를 살펴보면 part-time 사역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full-time 과 part-time 사역자의 수이다.

<표 5> 부산과 경남의 대표적인 전통교회와 사역자 수<sup>207</sup>

교회 이름	Full-time 사역자	Part-time 사역자	교인 수(장년)
온천제일교회	5 명	4 명	700 명
신부산교회	5 명	5 명	900 명
남도교회	4 명	3 명	700 명
주례교회	2 명	4 명	400
부전교회	14 명	7 명	2800 명

207) 표에 나타난 5 개 교회의 full-time 과 part-time 사역자의 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장년 수는 해당교회에 직접 전화를 하여 교회 직원들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5 개 교회는 모두 설립한지 45 년이 지난 전통적인 교회들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장년 성도수가 400명 교회에서 약 3000명 교회까지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part-time 사역자의 수가 소그룹 중심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유가 담임목회자의 목회적 철학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통교회와 소그룹 중심교회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전통교회에서는 주로 part-time 사역자들은 주일학교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한다. 그런데 part-time 교역자들이 적다는 것은 full-time 교역자들이 주일학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일학교가 아닌 장년 성도들은 누가 보살피고 돌보는 것인가? 여기서 바로 소그룹 중심교회의 사역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

소그룹 중심교회는 단순히 소그룹으로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이기에 소그룹 안에서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야 진정 소그룹 중심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12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최영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절에 등장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무슨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12절에는 세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말씀 사역자, 즉 목사의 사역인가? 아니면 일부만이 목사의 사역인가?.....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의 주어는 11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자이고,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의 주어는 성도다..... 즉 목양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라는 말이다. 정리하자면,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목양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208</sup>

소그룹 중심교회는 위에서 말한 최영기 목사의 성경해석을 지지한다.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한다. 소그룹 리더는 자신과 함께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돌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교회처럼 full-time 사역자들처럼

208)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81.

성도들을 모두 살피고 돌보지 않아도 교회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full-time 사역자를 주일학교 사역이나 다른 교회 사역으로 배치를 하여, 더 큰 교회의 이익과 건강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sup>209</sup>

## 2) 양적인 증가

설문 11 번의 그래프와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답한 8 명의 목회자중 부임할 당시 성도가 1000 명 이상인 교회는 하나 밖에 없었다. 오히려 100 명 미만의 교회가 5 개가 있었다. 그리고 응답한 8 명의 목회자의 부임시 전체 평균 장년 출석은 216 명 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장년 성도 수는 평균 852 명으로 증가하였다. 장년 1000 명이 넘는 교회도 3 교회가 되었으며 가장 적은 수로 모이는 교회도 300 명 가까이 되었다. 한두 교회만 큰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응답한 모든 교회가 큰 폭의 성장이 있었다. .

본 연구자는 45 번 질문에서 사역전환 직후 성도 수의 변화를 물어보았다. 사역을 전환한 직후 큰 성도수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변화가 있어도 약간 감소, 약간 증가에 그쳤다. 큰 폭의 증가와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증가가 시작된 것은 사역을 전환한 후 2 년이 지나서 시작되었다. 즉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소그룹으로 사역을 전환한 후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그 성장은 2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sup>210</sup>

사역을 전환한 지 2 년이 지나서야 대부분의 교회에서 증가가 일어났다는 것은, 목회자가 2 년 동안 큰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중심교회의 가치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순히 수적인 증가를 위해 사역을 전환하였다면 2 년 정도가 되어도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역의 방향을 옮기게 된다. 하지만 2 년 동안 성장이 없었음에도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209) Full-time 사역자가 장년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회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장년 사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교회처럼 장년에 대한 모든 것을 교역자에게 일임하지 않는 것이다.

210) 47 번 설문을 참고 할 것.

양적인 성장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단단한 목회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영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가정교회 구조로 옮겨갈 때 절대 필요한 것이 담임목사의 절대 확신입니다. 가정교회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sup>211</sup>

사역에 대한 확신과 철학을 가지고 소그룹을 이끌어 갈 때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이에 대해 최영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으로 돌아가 신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sup>212</sup> 이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였기에 성장의 은혜도 함께 얻은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흔히 우리가 보는 성장지상주의가 목표하는 성장과 다른 것이다. 고 옥한흠은 성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흥은 양과 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질이 양을 결정하는 부흥이 건강한 부흥이라는 것이다.”<sup>213</sup>

최영기의 고백대로 “신약적인 교회 회복”을 위하여 사역을 전환하고,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겨 교회의 일과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3) 새신자의 정착

설문을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새신자의 교회 정착이다.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의 시기가 멈추고, 감소의 시기도 들어섰다. 교회마다 새신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새신자의 감소와 더불어 수평이동이

211)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178.

212)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9.

21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5.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성장한다고 불리는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의 등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교회만 옮겨온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상을 볼 때 소그룹 중심교회의 새신자 방문과 정착은 큰 도전을 준다.

설문 18 번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새신자 정착률이 최소 60%를 넘고 있다. 가장 높은 교회는 90%까지 정착률이 올라간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양적인 크기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교회의 양적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새신자 정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큰 교회를 찾아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요즘의 흐름과는 반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소그룹 중심교회에서 이렇게 새신자 정착률이 높은 이유는 설문 21 번과 22 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21 번의 설문을 보면 응답한 8 개의 교회 가운데 6 교회가 대규모 전도집회를 열지 않고 있다. 즉 교회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신자를 집단적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그룹 중심교회에서는 어떻게 새신자가 교회를 방문하는가? 설문 22 번을 보면 새신자의 교회 방문 방법이 교회를 통한 직접적인 방문이 아니라 소그룹을 경유하여 교회로 온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답을 한 응답자가 8 명 중에 7 명이 되었다.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인 새신자 등록 방법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지인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수의 새신자를 등록하게 한 후, 교회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그룹 중심교회에서는 새신자가 교회로 처음부터 직접방문하기보다 소그룹으로 먼저 인도되어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성된 후 교회로 방문하기 때문에 정착율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조태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새신자의 정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전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목장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다.”<sup>214</sup>

214)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67.

설문 23 번에는 새신자가 정착하는 가장 높은 전도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8명 전원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7명이 소그룹을 통해 교회를 방문할 때 가장 정착이 잘 되는 방법이라고 답을 했다.

설문 20 번의 새신자의 소그룹 정착률을 분석해보면 응답자 전원이 새신자 중 70% 이상이 목장에 정착한다고 말을 한다. 새신자의 소그룹 정착률이 새신자의 교회 정착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소그룹 모임이 새신자에게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그룹에 정착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수평이동과 관련하여도 소그룹 중심교회의 장점은 잘 나타나고 있다. 새신자 중 수평이동 한 성도의 비율을 보면 2 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30% 아래로 형성된다.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현상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30%이상인 두 교회는 성도 수가 1500명 정도되는 큰 교회이다. 이 두 교회가 수평이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교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새신자의 정착률이 높으면서 동반되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주일학교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참석한 8 교회 중에서 7 교회가 사역을 전환 한 후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교회 전체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300%의 성장이 있었다. 주일학교 학생의 감소가 뚜렷한 한국교회에서 300%의 성장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성장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새신자의 정착에 따른 자녀들의 주일학교 등록이라 할 수 있다. 새신자가 소그룹과 교회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함께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성장을 함께 가져온 것이다.

#### 4) 사역하는 평신도

고 옥한흠은 평신도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안타까워하였다. “겉으로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제사장인 것처럼

연동하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기현상이다.”<sup>215</sup>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로서 그 본연의 위치를 바로 찾아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그들을 섬기는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평신도 중심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먼저 좀 더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공간적인 상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평신도가 자기 본연의 위치를 찾으면 교역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 훈련은 평신도가 교역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병적 체질을 교역자가 평신도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sup>216</sup>

소그룹 중심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이해한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12 절에서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영기는 에베소서 4장 11~12 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목양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의 사역을 자신들이 했다.”<sup>217</sup>

옥한흠은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역은 안내 위원이나 전도회 회장직 같은 것을 맡겨서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목회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세워주는 영적인 사역을 놓고 하는 말이다.”<sup>218</sup>

평신도가 사역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원리라면, 소그룹 중심교회만큼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도 없을 것이다. 소그룹 중심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면 소그룹 중심교회가 얼마나 평신도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다.

21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77.

216) *Ibids.*

217)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82.

218)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178.

화평교회 최상태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초대교회처럼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리드하는 그룹으로 하여금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sup>219</sup> 최영기는 가정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정교회라고 하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sup>220</sup> Finnell 은 그의 저서에서 셀을 이렇게 정의한다. “셀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소그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유기체다.”<sup>221</sup>

신약성경에서도 소그룹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 장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sup>222</sup>

성경도 그리고 신학자들도 모두 나름의 소그룹 형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모든 정의 가운데 공통점은 “평신도”가 모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잘 드러나는 것이 소그룹 중심교회이다. 소그룹 중심교회의 핵심은 사역의 주체를 목회자에게서 평신도에게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을 통해서도 이것이 잘 나타난다.

설문 28 번을 보면 평신도가 교회의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응답자 중 6 교회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 그 중 2 교회는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성경공부를 평신도가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소그룹 중심교회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직접 다른 평신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에게 사역이 이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신도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교회의 기능이란 고 옥한흠이 말한 것처럼 목회적 사역을

219) 최상태, 「21 세기 신 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63.

22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39.

221) David. L. Finnel,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28.

222) 사도행전 2 장 44~47 절을 볼 것.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설문 8, 9 번을 통해 보았듯이 소그룹 중심교회는 교역자의 수가 전통교회보다 적다. 이것 또한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설문 31 번을 보면 응답자 전원이 교회에서 목장이나 셀모임 이외의 다른 소그룹 모임은 없다고 응답한다. 이 또한 교회의 사역 중심에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하겠다.

## 2. 토양화 과정과 그 중요성

### 1) 토양화 성공의 핵심 - 리더십

본 연구자는 토양화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설문 40 번에서 물었다. 응답자 8 명 중 6 명이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 명은 목회철학이라고 답을 했다. 그 이외에 로드맵 제시나 사역환경 정리 등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목회철학도 담임목회자의 영역이기에, 사역전환을 위한 토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인 담임목회자 자신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목회자의 리더십인 것이다. 리더십이 있어야 자신의 목회철학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Rod Dempsey 는 2005 Super Conference 에서 신학자나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였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 Oswald Sanders -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Elmer Towns -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 어떻게 목표점에 도달할지는 알아야 한다. Howard Hendricks - 리더십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아는 능력이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다.”<sup>223</sup>

223) Rod. Dempsey, “How to Develop Leaders In a Local Church,” 『Super Conference hand book』, 2005.

리더십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사역의 전환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며, 이끌어 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상태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가치관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핵심요소가 된다.”<sup>224</sup>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 중에서 전통교회에서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전환한 시기를 묻는 37 번의 질문에 5 명이 부임 후 최소 8 년이 지나서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부임 후 22 년이 지나서 사역을 전환하였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시기인 약 10 년 정도가 되어서야 사역을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 2) 토양화의 기간

토양화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6 개월 미만부터 3 년이상까지 다양한 답이 나왔다. 토양화 기간이 가장 짧은 6 개월 미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 명이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짧게 토양화 기간을 가진 배경은 두 응답자의 공통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응답한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이며, 또한 성도의 수가 400 명이 미만의 작은 교회였다는 것이다. 반대로 성도수가 1000 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목회자는 응답자 중 3 명이 있는데 이들의 토양화 기간은 1~2 년이 2 명, 3 년 이상이 1 명이 있었다.

토양화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가진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사역전환 당시 성도의 수가 많지 않았다. 이것은 개척을 하였기에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성도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역전환을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평교회를 개척하여 가정교회로 전환한 최상태 역시 사역전환을 위한 토양화 기간이 3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여서 리더십이 갖추어진 상태였고, 강력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미 소그룹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25</sup>

224) 최상태, 「21 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6.

225) Ibid., 65-6.

성도수가 1000 명 이상인 목회자의 토양화 기간은 1~2 년이 2 명, 3 년 이상이 1 명이 있었다.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사역을 전환한 분당의 샘물교회는 토양화 기간이 2 년정도 소요되었다.<sup>226</sup> 이것은 성도 수가 많기 때문에 토양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성도의 수가 많으면 전달되는 속도와 공감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토양화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설득해야 할 사람이 많고,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토양화의 기간은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교회의 상황마다 다르다 할 수 있다. 성도의 수와 담임목사의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성도의 수가 적고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확실히 서있는 경우는 토양화의 기간이 비교적 짧을 수 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많고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확실히 서있지 않을 때는 토양화 기간이 비교적 길어야 한다. 이것이 토양화 과정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 3) 성공적인 토양화의 가장 큰 무기

사역전환에 따른 토양화 작업을 위해 목회자는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론하기도 하며, 성도들을 세미나에 보내기도 한다. 또는 소그룹을 잘 이끌고 있는 목회자를 초청하여 강연과 부흥회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역전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 41 번에 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 응답자 8 명 중 4 명이 설교를 그리고 각 각 2 명이 세미나참석과 사역현장 참관을 꼽았다. 설교는 매주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토양화 과정 중에 설교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했다. 설문 39 번에서 응답자 중 5 명은 교회론에 대해 설교를 가장 많이 했다고 답했으며, 3 명은 공동체에 관해 가장 많이 설교했다고 답했다.

226)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61.

즉 목회자들은 소그룹 중심으로 사역을 전환하는 것을 교회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을 설교를 통해 가장 많이 전달하며,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토양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방법 중 사역현장 참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 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2 명의 응답자는 동일하게 토양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한 설교의 주제가 교회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소그룹”에 강조점을 둔 경우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정착되어 움직이고 있는 사역현장을 참관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 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 교회론의 일부인 것이다.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며, 그것을 통해 교회의 기능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미나 참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토양화 과정에서 설교의 주된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소그룹 사역의 교회론적 근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것이다. 사역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목회자들은 사역전환을 교회의 성장이나, 시대의 주류라는 형식으로 보지 않았다. 사역전환을 교회론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 3. 사역전환의 장애물

사역전환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그런데 설문 40 번에서 토양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리더십이라고 답을 하였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사역전환의 성공과 어려움이 결국 목회자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직자들의 반대와 성도들의 의식부족이 또한 장애의 요소라고 답을 하였다. 중직자들의 반대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성도들의 의식부족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도들의 의식이 부족하여 반대를 하는 것이 큰 장애물이라고 답을 한 것이다. 성도들의 부족한 의식과 반대를 설득하고 바꾸어서 사역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리더십이라면 결국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설문에서 보는 것처럼 리더십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문 44 번에서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대화”였다. 그 다음으로 “사역의 확신”과 “기도”였다. 사역전환에 반대하는 성도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도와 사역에 대한 확신은 개인의 문제이다. 담임목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기에 반대하는 성도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인 대화를 통해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답한 것이다.

설문 42 에서 사역전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담임목사의 리더십이라고 답을 했다. 이것은 교회나 성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극복의 방법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인 기도와 사역의 확신이라는 두 가지를 합하면 5 명의 응답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이 4 명의 응답으로 단일응답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물 극복의 방법에 대한 설문자의 응답은 다른 설문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답을 한 응답자가 2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사역의 확신과 기도 그리고 대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자는 본 것이다.

#### 4. 토양화와 양적성장

토양화를 통해 사역을 전환한 후 교회의 양적 성장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것은, 설문 45 번에서 사역전환 직후 성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전원이 큰 폭의 증가나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것은 사역을 전환한 후 교회의 양적인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역을 전환하게 되면 초기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선호하는 성도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이탈이 없었다는 것은 설교나 대화를 통해 목회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도들을 설득하였을 때 성도들이 받는 충격이나 반발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 46 번에는 사역전환 후 교회의 양적인 증가가 언제쯤 나타났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응답자 7 명 중<sup>227</sup> 5 명이 2 년이 지나서 성도의 증가가 시작되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새신자의 방문 그리고 정착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 번의 설문에서 설문에 참여한 8 명의 목회자들 중 6 명의 목회자가 수평이동 성도의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답을 했다. 즉 대부분의 소그룹 중심교회에 오는 새신자는 수평이동이 아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새신자들이다. 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가장 많은 방법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로 방문할 때이며,<sup>228</sup> 이 때 정착률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sup>229</sup>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새신자가 소그룹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등록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전환 후 바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신자가 소그룹을 통해 교회를 방문하고 그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방식으로 자리잡기까지 약 2 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부터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역을 전환한 후 목회자는 사역이 정착되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 2 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역에 대한 철학과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나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소그룹을 도입한다면 목회자는 2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전환 후 현재의 성도는 사역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설문 47 번에서 물었다. 응답자 8 명 중 5 명이 2 배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3 명은 20% 증가했다고 답했다. 응답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하는 교회조차도 수평이동으로 인한 성장이 더 많은 현실이다. 정체를 지나 감소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교회에서

227) 8 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228) 설문 22 번 참조.

229) 설문 23 번 참조.

소그룹 중심교회는 수평이동을 통한 성장이 아닌 순수한 새가족이 등록하여 성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소그룹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전도에 있어 탁월한 방법인지 알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가장 탁월한 방식인 소그룹을 놓지 말아야 한다.

## 5. 결론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그룹 중심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의 사역화가 일어 날 수 있으며,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새신자의 정착률이 성장하고 따라서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이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토양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전환을 시도하는 사역자 자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역자 자신이 설교와 대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면 사역전환은 성공을 이루며,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이곳을 통해 믿지 않는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제 6 장

### 결론

성공적인 토양화 작업은 전통교회를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현재 한국의 많은 전통교회들이 가정교회나 셀교회 같은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나 또는 사역전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 열리는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의 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셀 사역전파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안산동산교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총 4434명의 목회자가 등록하여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이것은 연간 약 370명의 목회자가 세미나를 들었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으로 잘 알려진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세미나에는 1986년부터 2015년 4월까지 30년간 총 22520명의 목회자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이것은 연간 약 750명의 목회자가 세미나를 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230</sup> 가정교회 세미나와 풍성한 교회에서 주관하는 두 날개 컨퍼런스 등이 현재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소그룹 세미나인데 이 세미나 또한 개최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이 마감되는 일이 많다.<sup>231</sup>

이처럼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그룹에 관심이 많고, 사역을 전환하려는 목회자도 많다. 이들 중 사역전환에 실패한 사례도 많으며, 사역전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본 연구자는 이들의 실패와 갈등이 토양화 과정을 충실히 했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전통교회가 소그룹 중심교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 토양화 과정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토양화 작업의 방법을 설문을 통해 도출된 자료와 소그룹 전문가의 연구에 근거하여 제안할 것이다.

---

230) 안산동산교회와 사랑의 교회 자료는 교회 사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이메일로 자료를 받았다. 제자훈련 세미나는 직접적인 소그룹 사역은 아니지만 제자훈련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다락방이기에 참고하였다.

231) 본 연구자가 풍성한 교회와 가정교회 사역원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어 통계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사역전환을 꿈꾸는 한국 전통교회에 대해 본 연구자는 다음의 6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전통교회가 소그룹 중심교회로 사역을 전환한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목회자 자신에게나 성도들에게도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박영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셀교회로의 전환은 철저히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나 사역과 사명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sup>232</sup> 그렇기 때문에 한 순간의 감정적인 접근이나 신중하지 않은 접근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 자신에게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사역전환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인호는 다음과 같이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사역전환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회 상황을 분석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며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sup>233</sup>

제인호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사역전환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는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한 후, 목표를 설정한 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목표에 접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토양화의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사역전환의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토양화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너무 짧게 가지게 된다면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역전환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이 약할수록 전략적인 접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232)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78.

233) In Ho Jee, “A Strategy on Small Group Leadership Development For Transitioning of GAEUMJUNG Church into A Cell-Based Church” (D.Min. diss., Liberty Theological Seminary, 2008), 155.

## 2.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전환하라

사역을 전환함에 있어 리더의 분명한 철학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철학은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철학의 중요성을 최상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수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지만 열매를 거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의 성경적인 목회철학의 빈곤 때문이다.”<sup>234</sup> 분명한 철학이 있으면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된다. 방향성을 가지면 목회자 자신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철학이 있으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정확한 방향성은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든다. 분명한 계획은 성도들을 설득하는 가장 큰 무기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전통교회가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교회의 근원부터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큰 변혁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가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장애물이 다가오게 될 때 흔들리게 되고, 과거의 시스템과 타협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의 전통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sup>235</sup> 하지만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교회성장의 도구나 목회의 기술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목회로 돌아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전환과정에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소그룹 사역의 본질적 철학에 관해 유양욱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셀 목회는 목회의 방법론보다 목회의 본질에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sup>236</sup> 소그룹 사역자체가 성장의 도구가 아닌 본질로의 회귀라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물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3. 분명한 비전을 전달하라

비전이란 미래의 일이다. 아직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일의 결과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Gorge Barna 는 비전을 “앞으로 될 수 있거나 되어야만 하는 일의 방향을

23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8.

235) 김한욱, “전통적인 목회에서 셀 목회로의 전환,” 「신학과 선교」, 32집 (2006): 31.

236) 유양욱, “전통적 교회에서 셀을 중심으로 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49.

바라보는 마음의 눈 속에 있는 그림”<sup>237</sup> 이라고 정의한다. 비전은 미래의 일이고 아직 현실에서 손에 잡히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리더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의 그림인 비전을 구체화하여 성도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전을 공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Gorge Barna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연구한 모든 성장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적인 그리고 수적인 성장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sup>238</sup> 비전이 없는 교회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수적인 성장이든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다.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비전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몽상에 불과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8 개의 교회에서 토양화 기간 중 설교한 내용은 모두 교회론과 공동체와 관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여 성도들에게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모든 교회가 토양화 기간 중 책읽기를 하였다는 것은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책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 중심교회에 대한 비전을 설교를 통해 그리고 대화와 독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 4.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소그룹 리더는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교회의 리더는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윌로우클릭교회 소그룹 담당이었던 Bill Donahue 와 Russ Robinson 은

237) Gorge Barna, *The Power of Vision* (Ventura, CA: Regal books, 1992), 54.

238) Ibid., 12.

Bill Hybels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윌로의 소그룹 사역을 이끌도록 여러 사람을 세워 왔는데 내가 항상 유의한 것은 그들이 리더십의 은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 사역은 특히 리더십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이다.”<sup>239</sup>

소그룹 사역에서 필요한 많은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리더가 섬기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부하나 직위가 낮은 사람이 섬긴다. 하지만 소그룹 중심교회에서 리더는 자신의 구성원들을 섬겨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모범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모두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며, 담임목사는 섬기는 리더십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최영기는 담임목회자의 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정교회에서는 종이 되는 리더가 자연스럽게 세워진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안수집사들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다…… 가정교회로의 전환 성공 여부는 담임목사가 종이 되는 리더십을 얼마나 체득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40</sup>

##### 5. 저항을 예상하고 준비하라

어디에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교회 안에도 변화의 바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Aubrey Malphurs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전형적인 교회 안에는 변화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sup>241</sup> 더구나 전통교회를 소그룹 중심교회로 바꾸는 것은 몇십 년 동안 내려오던 교회의 조직을 바꾸는 것이기에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김인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셀교회 페러다임은 지극히

239)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 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63.

240)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86-7.

241) Aubrey Malphurs,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dkins*, 80.

성경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존의 한국교회의 정서와 비교하면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사역전환을 시도할 때는 언제나 저항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저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저항에 대한 사역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역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사역전환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인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셀사역이 얼마나 가치있는가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하찮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sup>242</sup>

또한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고 익혀왔던 모든 것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sup>243</sup>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상황이 바뀌면서 교회도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많은 대화를 통하여 진솔하게 나누어야 한다.

## 6. 리더를 준비하라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 또한 그의 승천을 대비하여 3년 동안 그의 제자들을 준비하셨다. 리더가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사역전환은 불가능하게 된다.

리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리더를 훈련시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내의 잡음이 줄어들게 되고, 리더에서 탈락하여 마음이 상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더로 섬기기에 부족한 분들도 리더로 세워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여 사역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사역의 역동성과 성실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의 리더 가운데 리더로 발탁되지 않을 때는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다가 리더로 발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 또한 리더의 가족들도 동일한 성향을 가질 수 있다.

242) 김인호, 「셀교회 전화와 셀리더 세우기」, 131.

243) Aubrey Malphurs,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dkins*, 80.

어떠한 방식을 취하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있다.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부터 뽑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사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과 권한도 함께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그런 후에 교회가 임명하기 보다는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다음 예비리더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Appendix A

### 설문조사

#### [개인에 대한 질문]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45~50 세 ② 51~55 세 ③ 56~60 세 ④ 61~65 세 ⑤ 기타
2. 귀하의 현재 소속 교회에서 몇 년간 시무하셨습니까?  
① 5년 이하 ② 5년~10년 ③ 10년~15년 ④ 15년~20년 ⑤ 20년 이상 ⑥ 기타
3. 귀하의 현재 교회에 어떤 형태로 담임목사가 되셨습니까?  
① 개척 ② 청빙 ③ 기타
4. 귀하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 이상
5. 귀하의 소속된 교단은 어디입니까?  
① 장로교 ② 침례교 ③ 성결교 ④ 감리교 ⑤ 기타
6. 귀하의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입니까?  
① 10년 미만 ② 10년~20년 ③ 21년~30년 ④ 31년~40년 ⑤ 41년~50년  
⑥ 기타

#### [교회에 대한 질문]

7. 귀하의 교회가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④ 기타
8. 귀하의 교회에 전임 부교역자는 몇 명인가요?  
(            명)
9. 귀하의 교회에 파트 부교역자는 몇 명인가요?  
(            명)
10. 현재 귀하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교회 유지,관리 ② 직원 사례비 ③ 주일학교 ④ 청년사역 ⑤ 장년사역 ⑥ 기타

#### [성도 수에 관한 질문]

11. 귀하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교회 평균 주일출석 성도(성인)은 몇 명입니까?  
(            명)
12. 현재 귀하의 교회 평균 주일출석 성도(성인)은 몇 명입니까?

- (            명)
13. 귀하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교회 주일학교(0 세~고 3 까지)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            명)
14. 현재 귀하의 교회 주일학교 성도(0 세~고 3 까지)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            명)
15. 귀하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교회 청년들의 주일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            명)
16. 현재 귀하의 교회 청년들의 주일 평균 출석은 몇 명입니까?  
(            명)

**[새가족 및 전도에 관한 질문]**

17. 귀하의 교회는 한 달에 평균 몇 명의 새신자가 방문합니까?  
(            명)
18. 귀하의 교회에 온 새신자 중 몇 %가 교인으로 정착합니까?  
(            명)
19. 귀하의 교회에 오는 새신자 중 수평이동 한 성도는 몇 %입니까?  
(            명)
20. 귀하의 교회에 오는 새신자 중 평균 %가 목장에 정착합니까?  
(            명)
21. 귀하의 교회에는 대규모 전도집회나 전도잔치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2. 귀하의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가장 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무엇입니까?  
① 스스로 교회에 방문    ②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방문    ③ 목장을 통해 교회에 방문  
④ 기타
23. 귀하의 교회에 새가족이 정착하는 가장 높은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스스로 교회에 방문할 때    ②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방문할 때  
③ 목장을 통해 교회에 방문할 때    ④ 기타

**[훈련사역에 관한 질문]**

24. 귀하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신앙훈련은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strongly agree)    ② 그렇다(agree)    ③ 보통이다(somewhat agree)  
④ 그렇지 않다(disagree)    ⑤ 매우 그렇지 않다(strongly disagree)



**[토양화에 대한 질문]**

37. 귀하는 부임 후 몇 년이 지나서 가정교회(셀교회)로 사역을 전환하였나요?  
(                    년)
38. 귀하가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 준비한 토양화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1년~2년 ④ 2년~3년 ⑤ 3년 이상
39. 토양화 과정 중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교회론에 관해 ② 공동체에 관해 ③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에 관해  
④ 목자론에 관해 ⑤ 특별히 준비하지 않음
40. 토양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② 담임목사의 리더십 ③ 성도들에게 로드맵 제시하기  
④ 헌신자 발굴하기 ⑤ 소그룹에 맞는 사역환경 만들기 ⑥ 기타
41. 사역전화에 있어 토양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설교 ② 부흥회 ③ 세미나참석 ④ 사역현장 참관 ⑤ 기타
42. 사역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중직자들의 반대 ②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의식 ③ 담임목사의 리더십 부족  
④ 담임목사의 철학 빈곤 ⑤ 교회의 환경 ⑥ 기타
43. 토양화 과정 중 책 읽기를 하였다면 몇 권의 책을 읽었나요?  
① 1권~3권 ② 4권~5권 ③ 6권~8권 ④ 9권~10권 ⑤ 11권 이상
44. 사역을 전환하면서 만난 장애물을 귀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① 기도 ② 사역에 대한 확신 ③ 대화 ④ 기타
45. 사역전환 후 1~2년 동안 성도 수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① 큰 감소 ② 약간 감소 ③ 평균 유지 ④ 약간 증가 ⑤ 큰 증가
46. 사역전환 후와 현재를 비교하여 성도 수가 증가하였다면 사역전환 후 몇 년쯤에 증가를 시작하였나요?  
① 전환 후 바로 ② 2년 정도 지나서 ③ 3년~4년 정도 지나서 ④ 5년~6년 지나서  
⑤ 7년 후
47. 사역전환 후 현재 성도 수가 증가하였다면 사역전환 전과 비교하여 몇 % 증가하였나요?  
① 20%증가 ② 50%증가 ③ 100%증가 ④ 150%증가 ⑤ 200%이상 증가

## Bibliography

### 참고 자료

#### 1. 국내서적

- 김대학, 정중현.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김덕수. 「소그룹과 셀사역, 그리고 셀 교회로의 전환」. 서울: 킹덤박스, 2011.
- \_\_\_\_\_.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서울: NCD, 2002.
- 김삼성. 「셀교회에서 G-12 교회로」. 서울: 서로사랑, 2003.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류혜옥. 「현대인은 풀어야 할 6 가지 마음의 병이 있다」. 서울: 클릭출판사, 2009.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출판사, 2006.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박은조. 「위대한 교회의 꿈」. 서울: 항상다출판사, 2010.
- 송창근. 「셀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목장」. 서울: 두란노, 2004.
- 이상근. 「로마서」, 「신약성서주해」. 대구: 성등사, 1993.
- \_\_\_\_\_. 「사도신경」, 「신약성서주해」. 대구: 성등사, 1993.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 조태환. 「환희와 함께 가는 가정교회」. 서울: NCD, 2009.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도: 소그룹하우스, 2010.
- 최상태. 「노출을 꺼리지 않는 공동체」. 서울: 화평교회, 2008.
- \_\_\_\_\_. 「21 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2. 외국서적

Barna, Gorge. *The Power of Vision*. Ventura: Regal books, 1992.

Bloomberg, L. Craig. "Matthew."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H, 1992.

Bock, Darrell. L. "Luke."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Bruce, F. F.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Old Tapp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74.

Cho, Yong-Gi. *Successful Home Cell Groups*. NJ: Bridge Publishing Inc. 1981.

Dempsey, Rod. *Innovate Church: What is God's Will for My Church? DISCIPLESHIP*.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8.

Dunn, James. "Romans 9-16." *World Biblical Commentary*. Mexico: Thomas Nelson, 1988.

Durham, I. John. "Exodus." *Worl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ld, Incorporated, 1987.

Early, Dave. *8 Habits of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 TX: Cell Group Resources, 2001.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7.

Getz, Gene.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Wheaton: Victor Books, 1984.

Hanger, A, Donald. "Matthew." *1-13, Worl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d Books, 1993.

Hull, Bill. *Seven Steps to Transform Your Church*. Grand Rapids: Fleming H.Revel, 1993.

\_\_\_\_\_. *The Disciple-Making Church*.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90.

Lloyd-Jones, Martyn. *Christian Unity: An Exposition of Ephesians 4:1-16*.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Malphurs, Aubrey.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93.

Maxwell, John.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Grand Rapids: Thomas Nelson, 2005.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Snodgrass, Klyne.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Warren, Rick. *Purpose Drive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95.

Westing, Herold. *Create & Celebrate Your Church's Uniqueness*. Grand Rapids: Kregel, 1993.

### 3. 번역서적

Anders, Max. 「Main Idea 로 푸는 에베소서」.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4.

Stanley, Andy.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4.

Barna, George.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조범식 역. 서울: 와그너 교회성장연구소, 1997.

Beckham, Bill. 「제 2 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경기도: NCD, 2012.

Bruce, F. F. 「사도행전(상)」, 「핸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이용복, 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4.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1」. 김종흡 외 3 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_\_\_\_\_. 「에베소서」, 「신약성경주해」.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8.

Donahue, Bill.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 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English, Donald. 「마가복음 강해」, 「BST 시리즈」. 정옥배 역. 서울: IVP, 2000.

Finnell, L. David.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경기도: NCD, 2009.

Foster, Jonh. 「새롭게 조명된 초대교회의 역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8.

Green, Michael. 「마태복음 강해」, 「BST 시리즈」. 김장복 역. 서울: IVP, 2005.

Hagner, A. Donald. 「마태복음 (상)」, 「WBC 성경주석」.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1999.

Hendriksen, William. 「마태복음(하)」, 「핸드릭슨 성경주해」. 김경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4.

- Icenogle, Weldon. Gareth.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 Jimjon, Wolfgang.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0.
- Lenski, R. C. H. 「마태복음(상)」. 문창수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3.
- Marshall, I. H. 「루가복음」. 「국제성서주석 시리즈」. 강요섭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Martin, P. Ralph.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9.
- Mcbride, F. Neal.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7.
- Mcknight, Scott. 「베드로전서」, 「NIV 적용주석」. 문종윤, 권대영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5.
- Neighbour, W. Ralph. 「셀교회 지침서」. 정지우 역. 서울: NCD, 2006.
- Ogden, Grag. 「새로운 개혁교회 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 Osborne, Grant. 「베드로전서」, 「LAB 주석 시리즈」. 류호영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 Parkinsaon, C. Northcote. 「파킨슨의 법칙」. 김광웅 역. 경기도: 21 세기 북스, 2010.
- Reeder, L. Harry.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송영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Ryle, J. C. 「마태복음서 강해」.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Stott, John. 「에베소서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 Towns, Elmer. 「예배전쟁의 종결」. 이성규 역. 서울: 도서출판 누가, 2009.
- Wagner, Glen. 「사람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4. 정기 간행물

- 권문상. “21 세기 목회를 위한 조직신학적 제언.” 「개혁신학 논문집」, 13 권 (2002): 95-109.
- 김경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89 년 10 월, 24-30.

- 김인호. “교회 개척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서서.” 「목회와 신학」, 2002년 4월, 70-75.
- \_\_\_\_\_. “셀 목회 그냥 되는 것 아니다.”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116-121.
- \_\_\_\_\_. “한국교회 셀 목회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 36-39.
- 김한옥. “전통적인 목회에서 셀 목회로의 전환.” 「신학과 선교」, 32집 (2006): 29-47.
- 명성훈. “셀그룹 목회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월간목회」, 2002년 8월, 50-55.
- \_\_\_\_\_. “한국교회 성장의 실상 분석과 대책.” 「목회와 신학」, 1996년 1월, 114-125.
- 문동학. “셀목회의 한국 교회의 적용에 있어 극복과제.” 「교회와 신학」, 54호 (2003): 40-45.
-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72-79.
- 손병덕. “사회봉사-기독교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2010년 4월, 196-203.
- 송창근. “셀 목회의 3 단계 로드맵, ‘전환. 정착. 열매.’”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 60-64.
- 오성춘. “삼위일체 교리와 섬김의 공동체 비전.” 「장신논단」, 10집 (1994): 535-553.
- 이성희. “기능적 직분이해가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1994년 6월, 220-223.
- 정근두. “오늘의 구역제도, 왜 문제인가.”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46-51.
- 정무성. “한국 복지 정책 진단과 교회의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11월, 210-214.
- 정용성. “신약 가정 교회와 21세기 한국 교회를 위한 제언.” 「개혁신학 논문집」, 13권 (2002): 61-94.
- 정용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56권 (1980): 66-69.
- 정재영. “소그룹 모임과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 70-77.
- 최현중. “한국 교회의 새신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목회와 신학」, 2015년 9월, 42-45.
- 황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52-58.
- Beckham, A. William. “영적 환경인 셀을 만드십시오.” 「목회와 신학」, 2001년 10월, 100-109.

#### 4. 학위논문

- 배성찬.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2005.

유양욱. “전통적교회에서 Cell 을 중심으로 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Comiskey, Joel. “*Cell-Based Ministry as a Positive Factor for Church in Latin America.*”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7.

Jei, In Ho. “*A Strategy on Small Group Leadership Development for Transitioning of GAEUMJUNG Church into A Cell-Based Church.*” D.Min. diss., Liberty Theological Seminary, 2008.

Park, Sung Kyu. “*Effective Pastoral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a Tradit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jeon Presbyterian Church.*”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9.

Shin, Il Kwon. “A Strategy for spiritual growth and maturation of local congregation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 5. 기타

「동아국어 대사전」 2011 년판.

「우리말 사전」 초판.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Dempsey, Rod. “*How to Develop Leaders in a Local Church.*” 「*Super Conference handbook*」 . 2005.

[www.kosis.kr](http://www.kosis.kr).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rch 30, 2016

Young Bae Lee

IRB Approval 2431.033016: Research in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ization Process during a Traditional Church to Small Group Focused Church Transition

Dear Young Bae,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study has been approved by the Liberty IRB. This approval is extended to you for one year from the date provided above with your protocol number. If data collection proceeds past one year, or if you make changes in the methodology as it pertains to human subjects, you must submit an appropriate update form to the IRB. The forms for these cases were attached to your approval email.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with the IRB, and we wish you well with your research project.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R**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